연구총서 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 재 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 재 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인 쇄 2006년 12월 26일
발 행 2006년 12월 26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 서재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11)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79-5 93340 : ₩10000

340.911-KDC4
320.95193-DDC21 CIP2006002843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1905년~1930년대 만주지역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운동 ····· 11

1. 1905년~1919년 문화계몽 운동 ····· 13
2. 1920년대의 무장투쟁 ····· 16
3.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무장투쟁 ····· 19
4.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의 형성과 활동 ····· 24

제3장. 1930년~1940년대 동북항일연군 및 김일성부대의 항일운동 ····· 31

1. 1920년대 만주지역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계열의 형성과 중국공산당 입당 ····· 33
2. 9·18사변과 동북인민혁명군 및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 44
3.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전개과정 ····· 57

제4장. 1930년~1940년대 화북지역 조선의용군의 항일운동 ····· 93
1. 조선의용군의 의의 ····· 95
2. 조선의용군의 형성 ····· 96
3. 조선의용군의 활동 ····· 101
4. 일본 패방이후 조선의용군의 활동과 입북 ····· 106

제5장. 소련군정에 의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神話化) ····· 111
1. 소련의 북한 점령과 친소정권의 형성 ····· 115
2. 소련의 김일성 옹립과정 ····· 120
3. 소련의 빨치산파 육성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 132
4. 김일성의 소련파 숙청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 135

제6장. 북한의 시대별 역사서에 나타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과정 ····· 139
1. 역사서별 출간 배경 및 특징 ····· 141
2. 역사적 사실의 왜곡내용과 각 역사서별 왜곡 추이 ···· 165
3. 역사 왜곡의 유형 ····· 216

제7장. 항일무장투쟁의 통치이념화 실태 ····· 225
1. 통치이념화의 배경과 과정 ····· 227
2. 통치이념화의 내용: 개인숭배의 정당성 근거로서의 항일무장투쟁 ····· 234
3. 통치이념화의 방법: 북한사회 행위의 준거틀로서의 항일무장투쟁 ····· 237
4. 통치이념화의 결과 ····· 239

제8장.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신화에 대한 비교 평가 ····· 243
1. 평가기준 ····· 245
2. 무장투쟁 활동의 비교 ····· 251
3. 소결 ····· 259

제9장. 결론 ····· 263

참고문헌 ····· 27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79

표 목 차

<표 Ⅳ-1> 역사적 사건별 주도자에 대한 사실과 북한 역사서 왜곡 ····· 217

제1장

서 론

I. 서 론

북한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군정치는 항일무장투쟁에서 그 정당성의 뿌리를 찾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함으로써[1] 선군정치가 단순히 체제위기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만들어낸 계엄정치가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시대,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은 북한에서 정권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통치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은 김일성 정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통치이념의 소재였다. "사상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요한 세계관, 가치관의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화와 예술의 소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정권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북한주민은 온통 항일무장투쟁의 신화(神話) 속에 살고 있으며,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성경처럼 읽혀졌다. 탈북자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북한체제를 등지고 남한에 왔지만 김일성만큼은 평생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숭배의 념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일성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하여 일제에서 조선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을 해방시킨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고, 소련과 미국

[1]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서울: 평양출판사, 2003).

의 한반도 점령에 따라 일본이 퇴각하였기 때문이며 김일성은 1940년 10월부터 소련에 피신하고 있다가 조선이 해방한 이후인 1945년 9월말에 소련함대를 타고 원산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정설이다. 북한주민들이 믿고 있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역사는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 과장·왜곡된 역사를 북한의 국내정치에 과장되게 활용하였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한국, 중국, 특히 연변지역,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상이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서대숙, 김준엽과 이창순, 와다 하루키, 신주백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2] 특히 서대숙의 연구가 가장 개척자적이며, 가장 최근까지 진행된 신주백의 연구가 가장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된 연구이다. 우리 학계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이 진짜냐 가짜냐 여부를 주장하는 논쟁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논쟁은 종결된지 오래다.

그런데 북한의 항일무장투쟁 역사 왜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가령, 와다 하루키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신화화(神話化)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서를 내었다.[3] 그러나 매우 객관적인 연구라고 평가되고 있는

---

[2] 서대숙,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서울: 화다신서, 1985); 원본: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Univ. Press, 1967);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5권』(서울: 청계연구소, 1986); 와다하루끼, 이종석 역, 『김일성과 항일만주투쟁』(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와다하루끼,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돌베개, 1998);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서울: 선인, 2005).

와다 하루키의 연구도 김일성 만주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일성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신화화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새로운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존연구에서는 북한 역사서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어떻게 왜곡하여 국가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원에서 일본과 대적하여 싸운 조선의용군의 역사는 북한의 역사에서 지워져버린 역사이다.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 2군 6사가 거의 궤멸되어 소련으로 피난간 뒤에도 조선의용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지속하여 해방시점까지 투쟁을 지속한 부대이다. 그들의 항일무장투쟁의 업적은 결코 김일성이 활동하였던 만주지역에 못지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방이후 북한에 입북하여 연안파라는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였고, 조선인민군 창설의 주력이 된 집단이며 6·25남침의 주력부대로 참여한 부대이다. 또한 1920년~1930년대의 민족주의 계열의 역사도 북한의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역사에서는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수많은 조선족 무장대와 유격근거지의 사람들의 역할도 역사로 존재하지 않고 김일성 혼자만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북한 역서서에 대한 왜곡의 실상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왜곡은 남한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서의 왜곡된 역사가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을 이질화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우리학계에서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분

[3]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석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루었고 그 전모가 드러났지만 북한학계와 북한당국이 행한 역사의 왜곡, 조작, 날조의 실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우리학계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분석마저도 혹시 북한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국가정통성 논란뿐 아니라 정치균열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가령, 최근 부산 전교조 교사들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써서 통일교육 교재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둘째, 오늘의 북한을 변화시키는데도 필요하고, 통일미래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는 현재의 통합이 어렵다. 북한의 역사책이 무엇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남북통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전의 역사학적 분석과는 다른 방법으로서 남한, 중국, 일본역사학자들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분석과 북한역사학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분석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되, 왜곡된 역사, 삭제된 역사를 바로잡고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역사학계가 유일한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한 만주파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경쟁집단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서 멸실시켜버린 조선의용군의 투쟁실적이나 1910년대부터 1930년 후반까지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된 민족주의계열의 항일무장투쟁 실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직접 전장에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유격대원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조달해준 유격근거지 조선인들의 기여도 간과할 수 없는 업적으로 부각한다.

이 연구는 만주지역 항일무투와는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행한 독립운동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도 시도한다. 왜냐하면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일제에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장투쟁을 통하여 저항의지를 보인 것도 중요했지만, 제2차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열강들이 한국을 일본에서 독립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독립하게 되었는데, 열강들의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역사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김일성의 자력혁명 vs. 소비에트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시도한다.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역사왜곡은 일제의 퇴각과 해방의 과정에 관한 부분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해방이후 김일성의 권력 장악과정에 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항일무장투쟁과 북한정권과의 연계성에 관한 논란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이 일제에서 독립을 쟁취하여 북한정권을 수립하였다는 인식(자력혁명 시각)이 있는가 하면, 소련이 북한체제를 만들었다는 인식(소비에트화 시각)이 있다. 자력혁명시각은 연안파나 민족주의계열의 항일독립전쟁 등의 실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온 인식일 수 있다. 당시 조선의용군의 세력과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이 글은 항일무장투쟁이 통치이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행한 역할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실시한다. 소련이 김일

성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옹립하고 김일성의 빨치산파를 주류 엘리트 집단으로 육성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활용하게 된 내용을 심층 분석한다.[4]

끝으로, 이 글은 항일무장투쟁이 단순히 역사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이념적 측면임을 강조한다. 와다 하루키는 북한을 유격대 국가라고 했다. 1948년 건국이래 1967년부터 1972년에 걸쳐 2차적으로 형성된 체제를 유격대국가로 불렀다.[5] 이제 김정일 정권을 정규군 국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흔적은 아직도 온존하고 있다. 이것은 와다 하루키가 파워엘리트적 측면만을 부각한 때문이다. 항일무장투쟁의 통치이념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 체제의 특징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과잉 통치 이념화로 규정하고자 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만주 항일전쟁을 김일성 개인숭배의 소재로, 절대적 신화로 만들었다. 이 신화는 너무 절대화되었기 때문에 깰 수 없게 되었다. 가령, 항일무장투쟁의 신화 때문에 일본과의 국교수교가 아직 안되고 있다. 북한이 성립된지 60년, 식민지 지배도 전쟁도 진작에 끝났는데 민주화된 일본과 화해도

---

[4] 소련의 배후 조종이 없었다면 김일성은 국내파와 연안파를 제치고 권력을 독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항일무장투쟁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되는 과정과 항일무장투쟁이 신화화되는 과정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 글은 항일무장투쟁의 통치이념화 과정에서 소련이 행한 역할에 주목하여 이 쟁점의 답을 제시한다. 소련 군정이 김일성에게 최고지도자로서의 안정된 권력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총들고 일본과 싸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김일성이 최고지도자로 옹립되는 명분을 만들었고, 김일성의 이너서컬이었던 빨치산파들도 같은 명분으로 다른 파벌들을 제치고 권력 핵심으로 양성했다. 소련파들이 각 부처의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최고위직에는 주로 빨치산파들을 앉혔다. 이로써 북한은 와다 하루키 교수가 주장한대로 유격대국가가 되었다.

[5]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6]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돌베개, 2002).

수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선진국 일본과 경제협력도 포기하고 있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 역사의 과잉 통치이념화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법의 하나로서 과거 역사를 통한 현재 이해하기의 일부이기도 하다. 현재의 선군정치가 북한에서 먹혀들고 있는 이유를 탐색하고자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되고 있기에 오늘날 21세기에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나올 수 있으며 이것을 수용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말인가?

이 연구는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라기보다는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기존 역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항일무장투쟁을 북한이 어떻게 왜곡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내용은 이미 중국 조선족 학자, 일본학자, 우리 학자들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연구를 토대로 북한 역사학계와 당국이 항일무장투쟁을 어떻게 신화화하여 국가 통치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켰는지를 분석한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위하여 이 연구는 필자가 개발한 일부의 구술면접 자료[7]를 제외하고는 이미 이루어진 연구결과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성과를 종합정리하고, 전체적 시각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위치 지우는 노력을 하였다. 이 사실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역사서들에 대한 내용분석하여 역사왜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

[7] 2002년~2005년 동안 통일연구원에서 추진한 학술진흥재단 과제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헌 및 구술자료 수집"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다수의 자료가 이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다. 1949년 「조선민족해방투쟁사」, 1958년 「조선통사」, 1958년 「조선해방투쟁사」, 1961년, 1978년 책, 1979년 이후의 「조선전사」, 「세기와 더불어」, 2002년판 「항일무장투쟁사」 등을 분석한다.

제2장

1905년~1930년대 동북지역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투쟁

일제시기 항일운동의 큰 특징의 하나는 투쟁지역의 광범위함에 있으며, 다른 하나의 특징은 투쟁의 다양한 방법에 있다. 또 다른 특징은 19세기 말부터 1945년 8월 해방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만주, 중국의 관내, 노령, 일본, 미주 지역에서 항일운동이 광범위하게 장기간 전개되었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계보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만주지역 민족주의계열로서 남만의 조선혁명군과 북만의 한국독립군이 있고, 공산주의계열로 동북항일연군이 있으며, 중국의 관내(화북)에 조선의용군이 있다. 특이한 점은 동북항일연군내 김일성 부대 (2군 6사)만 우리 민족 군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 군대의 일부로 편성되어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을 우리민족 전체의 항일운동의 맥락에서 조망하기 위하여 이들 3개 계보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개관해본다.

1. 1905년~1919년 문화계몽 운동

중국 동북은 한국과 인접되어 있으며 양국 간에는 매우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한민족은 17세기말부터 하나둘 씩 동북지방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동북에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주로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1869년(청조 同治帝 8년)에 한반도 북부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가 들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계 내로 들어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그후 몇 년간 많은 한국교민들이 중국에 들어갔다.

둘째는 1910년 한일합방후 많은 한국교민이 일제의 잔혹한 통

치를 피해서 동북지방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때 많은 반일지사와 의병들은 압박에 못이겨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여, 만주지방은 독립운동의 중심기지로 되었다. 1931년 일본이 중국에서 9·18사변을 일으키기 전까지 동북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은 적어도 130만명~200만명에 달하였다.[8]

동북의 한국교민들이 한국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반일지사를 수용하고 반일지사들이 조직한 반일 민족주의 단체나 반일무장역량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조선민족의 반일투쟁은 문화계몽운동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이 일본에 망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때문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봉건통치와 유교사상때문이며 이를 개혁해야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고 보고 근대문화사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남들은 비행기를 날리고 대포를 쏘는데 우리는 담배대를 물고 허세를 부리는 낡은 사상을 바꾸어야 하며 서양의 근대문화를 배워서 새로운 백성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1906년 8월에 건립된 최초의 조선족 사립학교인 룡정 서전서숙을 세운 것이 문화계몽기 운동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조선민족은 많은 곳에서 근대적 사립학교와 군사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반일교육과 군사교육을 시킴으로써 반일투사를 양성하였다. 마을마다 1개 학교 1개 교회를 세우면 조선이 독립될 수 있다고 보고 사립학교 운동이 전개되었다. 명동학교, 창동학교, 길동학교 등이 이때 설립되었다.[9]

---

[8] 진가외 (陳可畏),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동북의 한국교민",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관리처 편·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서울: 시대의 창, 2005), p. 89.

[9]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1912년 이후 동만 즉, 연변 각 지방들에서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1916년까지만해도 연변에 조선족학교가 158개소가 있었으며 학생수는 3,879명이었다. 남만의 경우, 1922년통계에 의하면 각종 조선학교가 165개소가 있었으며 학생수는 1,715명이었다. 북만의 경우, 22개소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1931년 통계에 의하면 전 동북지구에 조선족 반일지사와 민간이 꾸린 학교는 280여개소가 있었고 학생수는 7,070명에 달하였다. 종교계통에서 설립한 학교는 103개소가 있었고 학생수는 6,433명이었다. 이 두가지 유형의 학교를 합하면 학교수는 388개소에 달하고 학생수는 13,503명이었다. 이것은 1916년에 비하면 배나 증가한 셈이다. 연변지구는 동부지구 조선족 집거지구 가운데서 교육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구였다.[10]

이 시기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만주에 이주하여 항일활동을 하였다. 이상용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후, 국경을 넘어 동북 남부지역의 한국교민들의 집결지로 가서 扶民團을 설립하고 단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동녕은 동북 연길 일대의 한국교민 집결지인 용정촌에 서당을 세우고, 한국교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진행하여 독립인재를 양성하였다. 이시영은 통화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항일 독립군의 간부를 양성하였고 조소앙 등도 이 시기에 동북의 한국교민의 집결지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항일투사들은 항일단체를 조직하고, 홍범도, 김좌진, 이청천, 서일, 류린석 등이 이끄는 여러 반일의병부대, 독립군에 참가하여 일제와 투쟁하였다. 동북 각지의 조선족들은 1919년 3·1운동 직

[10] 황용국외, 『조선족혁명투쟁사』(심양: 료녕성민족출판사, 1988), pp. 175~177.

후, 일어난 3·13운동을 계기로 3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15개 현에서 93차의 반일집회와 시위행진을 단행하였으며 1만여명이 참가한 거족적인 반일투쟁을 벌렸다. 이것은 동북지구에서 시간이 가장 길고, 참가자가 가장 많으며, 범위가 가장 넓은 반일애국투쟁의 첫 번째 고조이다.[11]

2. 1920년대의 무장투쟁

국내의 3·1운동은 동북지역 우리민족의 항일운동에 일대 전기로 작용하였다. 1919년 3월 13일 이 지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일어났다. 한국교민의 거주지인 길림, 봉천, 흑룡강 등의 모든 지방에서 강력한 호응을 보였다. 그후 각 지방에는 신민회, 한민족회, 대한독립단, 서로군정서, 대한민국회 북로군정서 등 민족해방독립운동 단체가 설립되었다. 의병장군 출신인 홍범도는 연길 일대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하였다. 이 군대는 설립되자마자 국내작전을 개시하여 수 차례나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군대의 잔혹한 보복과 진압을 받았으나 대한독립군의 활동은 세계여론의 주목을 받았다.[12]

3·1운동 이전까지 동만 연변에서는 수구파와 개화파가 항일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노선갈등이 있었으나 3·1운동이 진압당하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다.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쪽으로 항일운

---

[11] 『조선족략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p. 63;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북경: 민족출판사, 1998, pp. 9~10에서 재인용.

[12] 진가외 (陳可畏),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동북의 한국교민,"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관리처 편·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p. 90.

동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반일단체를 건립해서 무장을 갖추자는 의식각성이 일어나고, 수구파들이 무장투쟁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노선을 바꾸어 무장투쟁으로 돌아섰다. 민족학교에서 교육받은 젊은 청년들이 각 학교에서 일어나 수많은 무장단체가 조직되었으며 봉오동 전투, 청산리전투로 대표되는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1920년에는 1,651건에 4,643명의 독립군이 국내에 진격하였다.[13]

일제는 만주지역이 항일민족운동 세력의 근거지가 되어 한국 국내의 치안까지 불안정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1920년 10월 초 경신참변을 일으켜 11월 말까지 두달에 걸쳐 조선주둔 제19사단 등 18,000명~20,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동만지방 일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연변, 동변도 일대에서 3,500명 사망하고, 2,500채의 민가가 소실되었으며, 28개 학교 소실되고, 5,400석의 식량도 소실되어 겨울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14] 이것이 경신년 대참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다. 이에 대항한 전투의 일부가 청산리 전투이다.

생존한 병력은 대오를 다시 정돈·정비 편성함으로써 3·1운동과 1920년대 초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고조된 조선민족의 반일독립의식을 장기적이고 강인한 항일무장투쟁에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각 단체별 대동단결 통합문제였다. 1922년을 전후하여 당시 중국 동북지구에는 적어도 수십을 헤아리는 크고 작은 독립군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

[13]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경찰지개요』(1925), pp. 123~124;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p. 55에서 재인용.

[14] 박창욱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남만지역에서 무장단체들에 대한 통합운동이 가장 먼저 결실을 거두어 1922년 봄에 대한통군부가 결성되었고 대한통의부로 확대발전되었다. 대한통의부는 산하에 대한통의부 의용군을 두었는데 병력이 700여명이었다. 대한통의부의 결성은 통합의 오랜 숙원이 달성된 것이었지만 참의부와 정의부로 분열되었다. 동북 만주지역에서도 1922년 8월부터 지역통합운동이 전개되어 1925년에 신민부가 창설되었다.

이같이 동북 3성의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들은 거듭되는 이합집산을 거쳐 1925년 3월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로 정립되었다. 그동안 각지에 산재해 있던 수많은 독립군단과 단체는 제각기 3부에 흡수, 통합되었다. 3부의 총병력은 1,600여명이었다. 3부의 재편성은 독립운동 역사상 일대 진전으로서 단결된 힘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새로이 벌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참의부의 관할구역은 봉천성, 정의부는 길림성, 신민부는 영안현이었다.

3부는 군사조직체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자치정권의 성격을 띤 조선족단체였으므로 반일무장투쟁에 전력을 경주하는 외에 조선족의 산업진흥, 문화계몽, 교육향상, 민권신장의 도모에도 진력하였다. 조직기구도 거의 다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설립하였고,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장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실무기관으로 민사, 법무, 군사, 교육, 실업, 교통 등 부서를 설치하였다.[15]

이 시기 3부의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군경, 정부기관을 습격

[15]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북경: 민족출판사, 1998), pp. 87~93.

하고 일본침략자들을 살상하고 그 통치기능을 마비시키고 일제의 밀정, 앞잡이,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동북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조선경내에 깊숙이 진출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비록 뚜렷한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끈질기고 피어린 항전을 수행하였다.[16]

1920년대 후반에 3부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국민부와 혁신의회 등 두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1930년대 들어 혁신의회는 김좌진을 수반으로 하는 한족총연합회를 구성하였고, 홍진, 이청천을 수반으로 하는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한국독립군을 창설하였으며 주로 동북의 북부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국민부는 현정경, 현익철 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혁명군을 창설하였는데,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은 주로 동북의 남부지역에서 활동하였다.

3.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무장투쟁

1931년 7월의 만보산사건 및 9·18사변이 일어난 후, 독립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이 시기부터 동북의 한국교민들은 중국 동북의 각 민족 인민과 연합하여 항일운동을 하게 되었다.[17]

1931년 일제는 9·18사변을 일으키고 그 이튿날 심양, 장춘 등

---

[16] 위의 책, p. 93.

[17] 진가외 (陳可畏),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동북의 한국교민,"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관리처 편·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p. 91.

20여개의 도시를 점령하였으며, 4개월만에 동북3성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전략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 제민족들은 중국 공산당의 호소와 영도하에 전면적인 항일구국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3부 통합운동은 실패하였으나 북만에서 한국독립군과 남만에서 조선혁명군이 창건되었다. 북만에서는 1931년 9·18 만주사변 직후인 1931년 11월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군을 설치하였는데 이청천을 총사령, 남대관을 부사령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병력 수는 500명~600명이었다. 2년여의 항일투쟁끝에 국내에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한국독립당이 만주사변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임하는 정세인식은 다음과 같다. 즉, 왜적의 만주사변은 다만 만주 침략에 그치지 않고 장차 산해관 이내 중국 대륙과 기타 지역까지 침략할 것으로 정확히 보았다. 그렇게 되면 중국 중앙군과 공동작전을 펴서 무기 탄약과 일체의 보급을 얻어낼 수 있으며, 또 일보 더 나아가서 세계연합군의 교전단체로 참가하여 전후 강화회의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18] 이처럼 한국독립당은 만주사변의 국제적인 성격을 잘 파악하였고 국제적인 모순관계가 전쟁이란 형태로 폭발하는 것을 이용하여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들도 1920년대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군사활동이나 조선혁명군처럼 대외정세활용론에 입각해있었다. 그러나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조선혁명군과는 달리 한국독립군은 독자적인 항일투쟁과정에서 교전단체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

---

[18] 趙擎韓(한국독립군 지도자), 『백강 회고록』, (서울: 한국종교협의회, 1979), p. 94;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045』(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pp. 324~325에서 재인용.

고 있었다.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항일무장대 가운데 무기와 의약품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강력한 후원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만지방으로 이동하여 시세영의 항일부대와 연합작전을 펴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독립군은 한중연합군을 추진하여 1932년 1월 29일 서란현성을 포위, 공격하여 적군 150여명을 살상하는 등 전과를 올린 것이 한중연합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이다. 이외에도 그해 9월의 1차 쌍성보공격전에서 위만군 1,000여명을 살상하고 2,000여명을 항복시키는 전과를 올렸고, 11월의 2차 쌍성보공격전에서는 일본수비대 한개 중대를 섬멸하고 많은 위만군을 살상, 투항하게하였다. 특히 1933년 6월의 대전자승첩에서는 한중연합군이 일본군 2개대대를 완전히 격파하는 큰 전과를 올렸는데 이것은 한국독립군의 한중연합군의 항전역사에서 최대의 승전이며 독립군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중에서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버금가는 대승으로 평가된다.[19]

그러다가 한국독립군과 시세영의 구국군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전리품 분배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시세영 구국군의 용공노선과도 대립이 생겨서 구국군이 이청천을 포함한 수십명의 한국독립군 관병을 구금하고 전원의 무장을 해제하는 불상사가 생기면서 양국간의 연합군은 해체되고 말았다.[20] 또한 동변도지방에서 1933년 10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겨울철 치안숙정공작에 밀려 1933년 10월 한국독립군의 주력은 중국 관내지역으로 이동하고 말았다.

---

[19]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05.
[20] 위의 책, pp. 121~122.

남만에서는 국민부가 조선혁명군을 창설하였다. 국민부는 정의부 출신이 1929년 4월 1일 조직한 민족주의 계열 단체이다. 혁명(독립)과 자치를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1929년 12월 조선혁명당을 결성하였다. 국민부는 1929년 5월 자신의 무장대인 조선혁명군을 창설하였다. 1개 중대에 30여명씩 10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전후해서 4개 중대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국민부 좌파가 이탈해나갔기 때문이다.

국민부 좌파가 이탈한 것은 국민부가 반공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1929년 9월에 제1회 중앙위원회를 열고 모든 사회주의운동 정파를 적으로 규정하였다. 민족주의운동 계열이 반공적이었던 것은 중국국민당과의 협력관계 때문이었다. 국민부 좌파는 국민부의 반공 노선에 반발하여 국민부에서 이탈하고 1930년 9월에 조선혁명군길강성지휘부를 결성하였으며, 11월에는 중국국민당 관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민족단체를 표방"한 재만조선혁명군사령부로 바꾸었다. 사령관에 이종락, 고문 고활신, 군사부 김광렬, 참모부 안붕, 정치부 장기명, 박진이다. 국민부좌파는 1931년 3월 "제3세력"을 지향한 단체로서 세화군(世火軍)군정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세화군정위원회는 공산당원과 연락하며 반국민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조직은 1931년 5월 동방혁명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민부 출신인 신영근, 박근원, 최창걸, 차광수, 김성주(김일성) 등이 동방혁명군 간부였다.[21]

9·18만주사변 직후인 1932년 1월에 국민부는 조선혁명군을 확대조직하여 1937년까지 장기간 활동하였다. 1933년 1월 총사령관에 양세봉이 취임하였다. 한국독립군과 마찬가지로 자금과 무기

[21]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p. 201~202.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요녕민중자위군과 연합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반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33년 10월 일제의 치안숙청 공작으로 요녕민중자위군이 궤멸되자, 이번에는 1934년 3월 신빈현 홍묘자 회의 결정으로 중국공산당의 동북인민혁명군 1군 독립사와 연대투쟁을 하였다.[22]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계열 항일무장대와 연대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36년 10월부터 일제는 중국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1937년 7월 7일의 중일전쟁)을 발동하기 위하여 동북지구에서 항일부대에 대한 '종합적 대토벌'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동북지구 항일무장투쟁은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되었고 조선혁명군 내부는 분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부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투항하였고, 일부는 무기를 놓고 귀향하여 농민으로 돌아갔고, 김학규 등 일부 대원은 관내로 이동하여 조선의용군에 가입하였으며, 1937년 초가을 조선혁명군 부사령원 박대호, 제2사사장 최윤구 등 60여명의 대원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에 편입하였다.[23]

조선혁명당에 의해 중국 관내에 파견된 김학규는 남경에서 정당의 통일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만주의 조선혁명군을 지원할 방책을 논의하였다. 조선혁명당과 신한독립당은 1935년 7월 한국독립당의 김두봉, 조소앙, 조선의열단의 김원봉, 윤세위, 미국의 대한인독립단의 김규식 등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민족혁명당은 토지국유화하고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등 만주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

[22] 위의 책, p. 319.
[23]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p. 122~123.

이처럼 관내로 이동한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당원들은 임시정부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반임시정부 태도를 취하면서 정당형태로 관내지역의 민족운동 단체를 통일하고자 노력했던 세력과 결합하여 민족혁명당을 조직한 것이다. 또한 만주지역에서 파견된 김학규가 중국 관내의 민족운동 세력과 연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은 조선혁명군의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해결하여 무장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중국관내로 계획적으로 이동한 경우는 김학규의 활동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24]

4.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의 형성과 활동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3·1독립운동 이후, 고무된 민족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국내외에서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 수립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이 구성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제정되었고 4월 13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정체를 민주제로 하고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잇는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책임제적 지도체제도 출범하였다.

1932년 김구의 지도로 한 炸彈멸왜운동을 전개하여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일제 요인 암살 작전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에 쫓겨 상해를 떠나 남경, 항주 등을 거쳐 1940년 중경에 정착

[24] 위의 책, p. 332~333.

하였다.

임시정부는 군사활동 분야외에 내정, 교통, 외교, 교육, 문화, 재정, 사법 등 8가지 기본 광복운동의 정책적 방침을 결정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을 관할하였다.[25] 특히 외교활동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선후책이기도 한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등을 파견, 주 파리위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자유세계가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21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회의에 한국대표로 이승만, 서재필 등을 파견, 독립의 보장을 요구하는 외교공세를 폈으나 성과는 없었다. 소련, 구미 각국의 의회지도자나 유력하 재야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특히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발행은 국내외 동포를 고무시켰다. 조소앙 외무무장 등의 노력으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회담에서 독립보장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26]

나. 광복군의 창설

1940년 중경(重慶)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국정부의 지원하에 독립군의 맥을 잇는 광복군을 창군하였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된 광복군은 군사활동 중 가장 집약되고 통일된 군사단위로서 총사령부와 3개의 지대를 편성, 이후 5년 간 활발한 활약을 전개하였다.[27]

---

[25] 이현희, "대한민족 임시정부의 광복운동,"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7), p. 537.
[26] 위의 책, p. 538.
[27] 박성수, 이현희 논문 참조.

임시정부는 서북 간도와 시베리아 일대의 독립군을 그 산하로 통합하고 일제와의 결전을 도모하는 한편, 서북 간도의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광복군총영 등은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이 인도, 버마 전선에 파견되어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편 것이나 OSS 작전에 참여한 군사활동은 그들이 국내 진압작전을 세워 본토수복의 결의와 신념을 보여준 것과 함께 특기할 사항이다.[28]

광복군에 합류한 또 하나의 부대가 조선의용대이다. 조선의용대는 김약산에 의하여 창설된 부대로서 대대수 대원들은 1941년 4월부터 6월까지 화북에 북상하여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에 합류하였고 일부는 임시정부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원래 김약산은 중국 동북 길림에서 1919년 의열단을 창립하여 암살 파괴를 하면서 일본의 침략행위에 저항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러나 일제가 김약산에 대한 지명수배령을 내려 활동이 어려워지자 1925년 의열단의 투쟁방식을 바꾸어 군사간부를 훈련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1926년 많은 대원들을 데리고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항일투쟁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1931년 9·18사변이 나자, 한국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1932년 11월 10일 김약산은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여 총서기를 담당하게 되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중국에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하자, 중국인민은 전면적인 항일운동에 일어서자 조선

---

[28] 김광재, "한국광복군의 한미합작훈련에 대한 임정 내부 및 각국의 반응," 『사학연구』 제73호, (2004), p. 133.

민족혁명당에서 개편된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김약산(김원봉)이 총대장이 되었다. 김약산은 전체대원을 이끌고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적극 참가하였으며 조선독립해방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29]

조선의용대는 김약산의 국민당 계열과 최창익의 공산당 계열의 두 분파가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였는데 결국 숫적으로 다수였던 최창익 계열이 이탈하여 공산당 팔로군 지역으로 이탈함으로써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조선의용대의 정통성은 숫적으로 많은 공산당계열이 맥을 잇게 되었고 그들이 훗날 북한의 연안파들이다.

그러나 중경의 조선의용대 총부 김약산은 국민당 장개석 정부와의 역사적 연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계열로 옮겨가지 않았다. 김약산은 장개석이 교장인 중국 국민당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장개석과 특별한 우의가 있었으며, 중국 국민당 군·정 요인들과도 깊은 우의를 맺었다. 김약산이 의열단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 각지 군사학교에 많은 성원들을 보내 배우게 하고 조선의용대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도 장개석을 포함한 중국 국민당 군사 요원들의 많은 원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약산이 비록 사상이 급진적이지만 결국은 민족주의 범위에 속하므로 자연히 중국 국민당의 삼민주의에 기울지 공산주의인 중국 공산당에 기울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김약산이 볼 때 중국 국민당 정부는 정통적이고 강대한 군사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소련,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야당이며 군사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

[29]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p. 40.

하는 팔로군 지구로 경솔하게 향하지 않은 것이다.[30]

조선의용대의 대다수 대원이 중국 공산당 팔로군으로 이탈해 가자 조선의용대 총대부는 인원이 없고 전투력이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중경의 중국 국민당 정부는 많은 조선의용대원이 북상하여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이탈해간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팔로군 활동에 참가하는 조선의용대원들에 대하여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1942년 5월 15일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는 조선의용대를 개편하여 한국광복군에 편입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김원봉 등 18명의 조선의용대는 1942년 5월 중경에서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조선의용대 대장 김약산(김원봉)은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 겸 부사령으로 되고, 광복군 총사령은 이청천이다.[31]

다. 광복군의 활동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창설되어 1941년 12월 9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 합동작전, 국내에 공작대를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38년 10월 10일 창설된 조선의용대를 1942년 5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케 하였다.[32]

광복군은 교육과 훈련기관으로 한국청년훈련반과 한국광복군훈련반을 두었으며 주로 일제에 의해 학도병과 징병으로 중국에

---

[30] 楊昭全·李輔溫, 『조선의용군 항일전사』(서울: 도서출판 고구려, 1995), p. 193.

[31] 이현희, "대한민족 임시정부의 광복운동,"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p. 537.

[32] 楊昭全·李輔溫, 『조선의용군 항일전사』, p. 201.

온 한국인 병사 가운데, 탈출병과 투항병 등을 중국 군사당국을 부터 인수받아 이들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시킨 후, 광복군에 편입케 하였다. 장준하, 김준협이 이 곳에서 혼련을 받았다.[33]

광복군의 선전활동은 광복군의 활동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었다. 광복군은 1941년 2월에 선전활동을 위한 일종의 선전지로 '광복'을 창간하였다.

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대일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인도, 버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활동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광복군은 미국군과도 연합작전을 추진하였는데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와 합작하였다.

광복군은 서안에서 실시한 OSS훈련이 완료되면서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하였다. 1945년 8월 7일 작전 출발 대기중에 일제가 항복하여 국내 진입작전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34]

---

[33]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 (서울: 일조각, 1993), pp. 246~247.
[34] 위의 책, p. 309.

제3장

1930년~1940년대 동북항일연군 및 김일성부대의 항일운동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1920년대 만주지역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계열의 형성과 중국공산당 입당

가. 사회주의사상의 만주지역 유입

1920년대는 사회주의사상이 동만지방에 유입되어 북만과 남만으로 확산된 시기이며 일부 민족주의계열에까지 확산되어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시기이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선민족의 최초의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은 소련경내에서 탄생하였다. 1918년 6월 초기공산주의자 리동휘가 소련 극동지구 하바로브스크에서 맑스-레닌주의 단체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였다. 그 이듬해 1919년 9월에 일본유학 출신의 김철훈이 소련 이르쿠츠크에서 '전로씨아 한인공산당'을 건립하였다. 한인공산당은 중국 상해로 건너와 리동휘, 박진순, 려운형 등 초기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으로 개편됨으로써 재중 조선민족이 최초로 건립한 공산주의 단체가 되었다.[35]

사회주의사상이 급속히 확산하게 된 몇가지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동북지방에서 살고 있던 조선민족은 안으로는 중국의 지주로부터의 착취, 밖으로는 일제의 침략과 억압의 이중의 고통을 받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10월혁명과 사회주의사상에 매료되었다. 만주로 이주하였던 한인들 중에는 이미 1910년대부터 일본의 약탈을 받았던 사람들

[35] 국내에서는 1925년 4월에 서울에서 북풍회, 화요회, 조선로동당, 무산자동맹회 4개의 공산주의 단체가 합병하여 조선공산당을 창건하였다. 강기주, 『중국 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p. 187~189.

로서 농민소작쟁의까지 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노농혁명사상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또한 당시 민족주의의 결함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파들은 유학사상의 영향 때문에 농민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농민들을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사상은 청년학생층과 소작농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사회주의자들은 1910년대의 근대화론에서 노농운동으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이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사회는 일본자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착취와 압박이 없는 체제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민중들이 이제야 우리가 주도하는 세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1910년대부터 동북지방에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사립학교 설립과 근대적 교육운동의 혜택을 받은 새로운 지식인들이 1920년대에 대두하였다. 1912년이후 동만 즉, 연변 각 지방들에서는 각종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1916년까지만 해도 연변에 조선족학교가 158개소가 있었으며 학생수는 3,879명이었다. 남만의 경우, 1922년 통계에 의하면 각종 조선학교가 165개소가 있었으며 학생수는 1,715명이었다. 북만의 경우, 22개소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1931년 통계에 의하면 전 동북지구에 조선족 반일지사와 민간이 꾸린 학교는 280여개소가 있었고 학생수는 7,070명에 달하였다. 종교계통에서 설립한 학교는 103개소가 있었고 학생수는 6,433명이었다. 이 두가지 유형의 학교를 합하면 학교 수는 388개소에 달하고 학생수는 13,503명이었다. 이것은 1916년에 비하면 배나 증가한 셈이다. 연변지구는 동부지구 조선족 집거지구 가운데서 교육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구였다.[36]

이러한 교육사업의 결과, 청년학생층이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청년학생층 사회주의자들은 농촌에 들어가서 노래를 배워 주면서 맑스주의를 선전하였기 때문에 문맹자도 사회주의를 알았다고 한다. 가령, 연변대 박창욱교수는 어머니가 86세에 사망할 때 "너는 이제 맑스를 아느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안다"고 말하였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맑스주의가 광범위하게 침투되었다.

셋째, 이 시기 항일무장투쟁 일변도의 독립운동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상황에서 민족진영 각 독립운동 단체들의 무리한 독립자금 징수나 강요는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으로 되고 있었다. 실제로 1926년 4월 길림성 아성현의 주민들이 정의부의 무리한 의무금 징수에 대항하여 "정의부는 민중의 적합한 기관이 아닌 동시에 무산대중의 당면이익에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단연 정의부에서 탈퇴할 것을 만천하에 성명한다"는 내용의 정의부탈퇴성명서를 발표하였다.[37]

넷째, 코민테른의 반제노선과 한국의 독립에 대한 관심과 지지 천명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해방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1920년 10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간도출병은 만주지역 민족진영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였으며, 1921년 11월 개최된 이른바 워싱턴회의에서도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민족진영의 정치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코민테른에서는 1920년 9월, 제1회 동양제민족대회

---

[36] 황용국외, 『조선족혁명투쟁사』, pp. 175~177.
[37] 황민호,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서울: 신서원, 2005), pp. 92~93.

와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극동인민대표자대회를 통하여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천명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되자 코민테른은 한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국제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실제로 당시 한인사회의 동향에 대한 일제의 정보분석에서도 조선인 적화운동이 점차 왕성하게 된 것은 간도토벌 이후, 특히 워싱턴회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38]

당시 한인사회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는 민족독립을 위한 사상이었다. 러시아 10월혁명은 반제국주의 운동으로서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맑스주의와 사회주의사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가령, 여영준 노인은 1930년대 만주에서 전령병으로서 항일혁명참가에 참가했는데 왜 혁명에 참가했느냐는 질문에 민족독립운동을 위해 참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민족독립을 위하여 공산주의에 참가했다고 한다.[39]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결과, 만주의 노농대중은 계급의식, 민족각성이 현저히 제고되었고 반일회, 반제동맹, 로동조합, 농민동맹, 청년동맹, 부녀동맹 등 수많은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동만지구만 보더라도 1930년 10월까지 5,000여명의 조선족 군중들이 각종 반일단체에 결속되었고 그들의 영향하에 있는 군중은 약 5만명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동북지구의 공산주의운동과 반일투쟁은 광범한 군중적 토대가 다져지게 되었다.[40]

---

[38] 위의 책, p. 88.
[39] 여영준, 『동북항일연군 2군 6사 전령병』, (2004년 2월 연변에서의 인터뷰 내용).
[40]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91.

사회주의 사상이 조직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조선공산당만주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만주총국을 통해서이다. 1926년 5월, 조선공산당의 '조직전권위원'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조봉암과 만주의 상해파 및 화요파는 영안현 영골탑에서 조선공산당만주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만주총국을 결성하였다. 1926년 가을, 당만주총국은 동만지방 등지에서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던 만주공청파와 결합하였다. 하지만 1927년 10월 '제1차 간도공산당 검거사건'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사회주의운동 세력은 크게 화요파, ML파, 상해파로 분열되었다. ML파는 1928년 10월 제2차 간도공산당 검거사건'도 겪었다.

나. 사회주의계열과 민족주의계열과의 관계

1929년, 1930년 시기는 만주지역에서 전개된 한인 민족운동의 주도권이 민족주의운동에서 사회주의운동으로 바뀐 시기였다.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은 적대관계라기 보다는 협력과 경쟁관계였다. 만주총국이 결성된 이후 1928년 말경까지 만주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하여 민족유일당을 결성하고자 하였으며, 한인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튼튼한 민족운동 기지를 구축하고자 자치기관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서 사회주의 계열은 광범위한 인텔리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사회주의 사상은 농민층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정의부, 신민부와 같은 민족주의 운동 단체내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이 전파되어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29년까지 민족주의계열, 사회주의계열은 상호 협력, 경쟁하는 관계였다. 1927년 4월부터

는 민족유일당 결성을 위하여 두계열이 공식적인 회의를 하였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1929년까지는 민족운동의 두 계열이 대립한 측면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경쟁한 측면이 더 많았다.

민족유일당 건설이 실패한 것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계열의 이념적 차이에 기인하기 보다는 조선연장주의라는 문제를 두고 민족유일당결성운동 촉성회 계열과 협의회 계열간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41]

그런데 1929년 4월 1일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을 중심으로 결집해있던 협의파가 국민부를 결성하는데 국민부는 정의부를 기반으로 하고 참의부와 신민부내의 견실한 민족주의자들을 통합하였다. 국민부는 본부를 흥경현에 두고 주로 통화, 흥경(신빈), 환인 일대에서 활동하였다.[42] 국민부는 반공주의 노선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계열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1929년 10월 남만참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으로서 국민부의 군인들이 남만한인청년총동맹의 간부 6명을 죽인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 사회주의계열은 1930년 1월 김좌진을 암살하면서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은 완전히 적대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국민부 좌파는 국민부에서 이탈하여 프로레타리아 동맹, 제국주의 타도동맹을 결성하고 사회주의계열에 본격 합류하게 된다.[43]

동북지구 민족주의계열은 점차 소멸되었는데, 북만지구에서는 1933년 가을, 남만지구에서는 1937년 가을이면 거의 해산된다. 일부는 동북항일연군 양정우 부대에 합류하고, 일부는 국민부의 조

---

[41]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p. 293~297.
[42] 황용국외, 『조선족혁명투쟁사』, p. 118.
[43] 위의 책, p. 119.

선혁명군 부대의 깃발을 계속한다.[44]

다. 사회주의계열 한인의 중공당 입당의 배경

1929, 30년 시기는 한인사회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에 입당함으로써 일제하 우리나라 사회주의운동의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45] 한인사회주의자가 중공당에 입당하게 된 배경은 한인사회주의계열의 내적인 요인과 중공당의 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적인 요인으로는 조선인 공산주의단체들은 민족주의 계열 단체와의 적대적 관계, 공산주의 단체내의 다양한 분파와 노선이 갈등하여 사분오열의 상태에 빠졌고 유혈사태를 빚기까지 하였다. 1928년 12월 7일 국제공산당 정치서기국은 '조선공산당 당내 정세에 관한 코민테른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조선공산당이 극히 치열한 당내 파벌투쟁에 빠졌기 때문에 만주에서 조선공산당의 지부승인을 취소하고 재건을 지령하였다(12월 테제). 그리고 1930년 3월 20일, 코민테른의 1국1당 원칙에 따라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해체 선언하고 중국공산당에 흡수되도록 지시하였다. '1국1당'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결정을 내렸다.

둘째, 중공당이 한인을 중공당에 가입시킨 중요한 이유가 있다. 1929년 4월 현재 만주성위에는 당원이 254명뿐이고 그들 가운데 57명만이 농민출신이고 나머지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노동

---

[44] 최홍빈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2월).
[45]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298~299.

운동에서 농민운동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활동의 비중을 옮기려는 만주성위로서는 한인농민에 기반을 두고 있던 한인사회주의운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공당이 한인 농민들을 중공당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에서 조선공산당을 해산하고 중공당에 가입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중국공산당 만주성위가 한인들을 중공당에 가입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붉은 5월투쟁'을 조직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황용국 외는 "중공만주성위가 1930년 4월 24일 '5·1투쟁행동위원회'를 설립하고 한인농민들을 선동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인 지주를 공격하여 봉기를 일으킨 '붉은 5월투쟁'에 참여시킴으로써 투쟁의 시련을 거쳐 그들을 공산당과 공청단조직에 가입시키고자 하였다"[46]는 것이다.

이후 1929년~1930년 사이에 한인 사회주의운동의 최대 쟁점은 중국공산당 입당문제였다. 파벌별로 논의와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화요파, 엠엘파 등은 만주에 있는 조선공산당인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야 하며 중국혁명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만주에서의 조선혁명운동은 반드시 중국혁명운동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하며 재만조선공산당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직접 중국혁명에 가입하여 중국혁명에 참가하며 조선혁명운동을 원조해야 한다는 협의를 하게 되었다.

한인사회주의자의 중국공산당 입당은 이전까지의 조선연장주의의 포기·폐기를 의미한다. 조선연장주의란 만주와 국내의 차별

[46] 황용국외, 『조선족혁명투쟁사』, p. 154.

적인 조건에 주목하지 않고 만주지역이 국내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만주지역을 국내의 특종지대로 간주한 입장을 말한다.[47]

조선연장주의를 포기한 배경의 하나는 이제까지 사회주의운동은 항일운동에만 집중하고 한인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의 결과였다. 조선 소작농은 한족지주의 착취를 받고 일제의 착취를 받는 이중의 착취하에 있었다. 동북에 조선인이 60만 뿐인데 이것만으로 중국 봉건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없으므로 만주의 4,000만 중국인과 연합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중국 봉건주의를 타도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야하며, 중국에 사는 이상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반봉건 반제 연합을 추진해야 했다.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의 관계에서 볼 때 만주는 조선이 아니고 중국인데 중국에서 조선혁명만 할 수 있나, 중국혁명에 우선 참가해야 한다, 중국혁명 승리로 조선혁명을 추진해야 하며, 중국 공산당은 마땅히 조선혁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싸움의 대상이 달랐다. 즉 국내의 항일운동은 일제와 친일세력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었지만, 만주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은 중국의 지주와 봉건관료까지도 싸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조선연장주의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셋째, 한인사회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의 지부승인을 취소하고 1국1당 원칙을 준수하며 조선공산당을 새롭게 재건하라는 코민테른 정치서기국의 지시를 실천하였다. 넷째, 재만한인 사회주의자는 중국혁명의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48]

---

[47]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19.

1930년 '붉은 5월투쟁'은 한인사회주의운동 계열에게는 전통적인 활동기조였던 조선연장주의를 폐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 중공당의 입장에서는 5월투쟁은 한인사회주의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공당 내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한인의 중공당 입당의 결과

조선족의 중국공산당 가입으로 중국공산당 동북당조직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첫째,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은 당건립사업을 주로 조선족 집거지인 농촌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도시에 중점을 둔 중국공산당은 항일무장대오의 농촌유격근거지 마련에 획기적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둘째, 동북당조직은 심양, 대련, 장춘, 할빈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현위 및 그 이하의 기층조직은 최초에는 대부분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그러므로 각지의 지부, 특별지부, 구위, 현위와 중심현위의 제1서기는 대부분이 조선족이었고 남만, 동만, 북만 특위와 만주성위의 주요 성원들 속에도 조선족이 있었다. 1931년의 3월의 통계를 보면 동만지구의 농촌당원 636명중 조선족이 618명이고, 남만지구의 농촌당원 200명중 조선족이 193명이었다.[49]

1930년 11월, 마침내 만주성위는 한인들의 중공당가입이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였다. 한인이 중공당에 가입한 결과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이 중공당에 대거 가입함으로

---

[48]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262.
[49]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p. 198~199.

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만주성위의 지방조직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1931년 4월 현재 만주성위 소속 당원은 모두 1,190명이었는데 동만지방의 전체 당원 636명 가운데 한인이 96.5%인 618명, 남만지방의 200명 당원가운데 한인이 96.5%인 193명, 북만지방의 244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한인이었다. 공청단의 경우 1931년 1월 현재 1,500여명의 단원가운데 90%이상이 모두 빈농출신의 한인 청년이었다. 이에 따라 한인의 가입으로 만주지역에서 중공당의 영향력이 제고되었다.

둘째, 지방 당, 단 간부의 측면에서 볼 때 동만지방의 당과 단 특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각 현위 책임자와 위원들 전부가 한인이었다. 한인이 아니라면 동만특별위원회 조직 자체가 이렇게 확장될 수 없었다. 남만과 북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셋째, 그러나 만주성위에 한인 위원은 한두 명에 불과했으며, 그들도 무임소 간부였다. 중공당의 한인에 대한 경계심리의 한 단면을 드러낸 사례이다.

넷째, 이와같은 민족구성의 심한 편차는 만주지역 공산주의 운동은 중국인 지주에게는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비쳐지기 보다는 한인들의 민족투쟁으로 비쳐질 수도 있었다.[50]

조선족을 주성분으로 하는 당, 단 조직의 실태는 동북지구 인구구성에 볼 때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금방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3천만 동북 총인구중 조선족은 100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절대다수인 한족과 여타민족을 대표할 당원들을 새로 영입하였다. 하지만 조선족당원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고위 간부를 맡기도 하였다. 1934년 11월에 남만림시특위

[50]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p. 272~274.

서기로 선출된 리동광, 1936년 3월 송강성위에 임명된 리성림, 1936년 9월 북만임시성위 조직부장으로 임명된 리복림, 1939년 4월 북만성위 서기로 선출된 김책, 1942년 9월 소련경내에서 건립된 동북의 당위원회 서기로 선출된 최용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조선민의당간부들이 각급 당직에서 활동하였다.[51] 동만당에서 조선인이 과도한 대표성이 1932년 반민생단투쟁 사건으로 전개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9·18 만주사변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1930년부터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자마자 만주사변이 발발하였고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군대는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무저항주의에 힘입어 하루만에 봉천을 점령하고 아주 짧은 시간내에 료녕, 길림 두개 성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연변을 점령하였다. 1934년 3월에 위만주국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군대는 동북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중을 무수히 도살하였으며 또한 식민지통치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북의 여러 민족 인민들에 대하여 피비린 탄압을 감행하였다. 1932년 4월부터 일군은 동만과 남만의 조선족 거주지구에 대하여 군사토벌을 감행하여 '해란강대혈안'을 일으키었다. 연변지구에서만 4,000여명의 조선족 인민들이 살해되었다.[52] 이에 대항하여 중국내 각 민족

[51] 강기주, 『중국조선인족 항일투쟁사 연구』, p. 201.

과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어떻게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생성기 (1931년 말~1936년 2월)

일본의 만주점령에 대한 항일투쟁은 공식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 1931년 9·18사변이 일어나자 9월 20일과 22일 중국공산당은 즉시 일제의 침략만행을 반대하는 선언과 결의를 발표하고 전국 각족 인민들에게 항일구국을 호소함과 동시에 동북의 당조직에 인민대중을 조직, 무장하여 항일유격전쟁을 벌릴 것을 지시하였다.[53]

중국공산당의 결의에 따라 만주성위에서도 일련의 선언, 결의안을 발표하여 조선족과 각 민족 인민대중이 일치단합하여 반일투쟁을 단행하고 무력으로 일제의 침략을 물리칠 것을 호소하였다.

중공 동만특위에서는 9월 2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중공만주성위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일제의 만주점령을 반대하는 긴급결의안, 일본의 만주점령을 반대하여 군중에게 알리는 글 등의 일련의 문건을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각종 반일단체들을 건립하고 확대하며 일본의 동북 점령을 반대하여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중공당의 만주조직은 국민당과의 투쟁에 정신이 팔려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조직을 꾸리는데서 뒤처졌다. 조선인 당원이 많고 무장항일의 전통이 있는 남만의 반석현 지방과 동만의 간도 일대에서는 다른 곳보다 빨리 공산당이 조직한 무장조직이

---

[52] 황용국외, 『조선족혁명투쟁사』, pp. 199~200.
[53] 위의 책, p. 216.

탄생하였다.[54]

중공 동만특위는 특위서기 동장영의 지도로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를 열고 중공중앙의 지시에 근거하여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유격대를 창건하며 유격전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1932년 2월 중공만주성위는 동만특위에 대한 사업지시에서 "유격전쟁을 발동하는 것은 당전 동만의 주요한 임무"라고 강조하고 유격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4월에 동만특위는 만주성위의 이러한 지시에 근거하여 각 현위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 현위는 각기 당, 단 열성분자회를 열고 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도록 결정하였다. 1931년 겨울부터 1932년 봄까지 각 현위는 우수한 당, 단원 골간을 군중투쟁속에로 침투시켜 돌격대, 작위대, 소선대들을 기초로 하여 인민항일무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다.[55] 이리하여 남만, 동만, 북만 각지에서 중공당이 영도하는 크고 작은 항일유격대가 수십개나 창건되었다.

항일유격대의 전개과정에 중요한 정책이 1933년 1월 26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만주 각급 당조직 및 전체 당원에게 보내는 지시편지」(소위 1·26지시편지, 또는 1월서한)이다. 이 지시는 중국공산당 동만특위의 그동안의 계급 대 계급간의 투쟁이라는 '좌경맹동주의'를 시정하고 광범위한 반일무장통일전선을 전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들만이 아니라 유산계급들까지, 전 민족 연합전선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54]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43.
[55] 황용국외, 『조선족혁명투쟁사』, pp. 240~241.

지시의 결과 구 동북군 부대로 조성된 의용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들로 구성된 구국군, 농민들 위주로 구성된 대도회,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유격대 등 네가지 반일부대들이 연합하여 반일무장통일전선을 실행하게 하였으며 특히 유격대와 구국군의 연합전투가 많이 전개되었으며 구국군이 공산당의 항일유격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남만, 동만, 북만에서 전개된 유격대는 모두 11개 군으로 발전하였으며 '동북인민혁명군'을 창설하였고, 1935년 7차 공산국제의 민족간 통일전선 구축의 지시를 반영하여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하였다.

남만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반석중심현위의 지시에 따라 리홍광은 1931년말 7명의 조선족 청년으로 적위대를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만주에서의 첫 항일무장대오이다. 이것은 1933년 9월 18일에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로 발전되었다. 군장겸 정위는 양정우, 참모장은 박한종, 1사 사장겸 정위는 리홍광이 맡았다. 1934년 11월 7일에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으로 창건되었으며 1935년말까지 1군의 병력수는 1,6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1936년 봄에 동북항일연군 제1군으로 발전되었다.

만주성위가 남만 1군독립사에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신속히 항일연합군 총지휘부를 조직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1934년 4월에 항일연합군총지휘부를 조직하고 양정우를 총지휘, 리홍광을 참모장으로 선거하였다.

동만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1932년 4월에 동만특위는 만주성위의 지시에 근거하여 각 현위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할 것을 제시하였다.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 현위는 각각 당, 단 열성분자회의를 열어 유격대를 창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1932년 가을부터 1933년 봄에 이르러 연길, 왕청, 화룡, 훈춘 일대에서 항일유격대가 창건되었다. 연길현 유격대, 화룡현 유격대, 왕청현 유격대, 훈춘 유격대 등 네 유격대를 총칭하여 동만유격대라 불렀는데 그 당시 병력은 420명, 조선족이 90%이상을 차지하였다.[56]

이 당시 김일성은 1932년 4월 안도에서 15~16명 규모의 별동대를 결성하였다. 안도 별동대는 안도, 통화의 양세봉 조선혁명군, 돈화, 액목, 남호두 등지를 전전하던 중 1933년 1월 왕청현의 유격대 근거지 마촌으로 와서 왕청유격대에 합류하였다.[57]

동만특위는 1934년 3월 네현의 유격대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로 통일하고 사장에 주진, 정위에 왕덕태를 임명하였고, 연길, 화룡, 왕청, 훈춘유격대로 각각 제1퇀(团), 제2퇀, 제3퇀, 제4퇀을 편성하였다. 이때 김일성이 3퇀 정위로 임명되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가 편성되었을 때 김일성은 제3퇀 소속이었으며 제3퇀장에 조춘학 (그후 방진성), 정위에 남창일(그후 김일성)이 맡았다.

1935년 5월에 2군독립사는 요영구회의의 결의에 따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으로 확대되었고 군장에 왕덕태, 정위에 위증민

---

[56] 위의 책, pp. 241~255.

[57]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96에는 1933년 초라고 기록되어 있고 박창욱 교수는 1933년 1월이라고 증언.

(한족)이 임명되었고 정치부주임에 이학충, 참모장에 유한흥이 선출되었으며 군부는 아도현 차창자에 두었다. 이때 병력은 1,200여명으로 발전하였으며 약 2/3가 한인이었다.[58]

공산국제당 7차회의 결의에 따라 1936년 3월에 동북인민혁명군이 조선족 등 타민족과의 연합군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제2군으로 재편되었는데 군장과 정위는 여전히 왕덕태와 위증민이다. 이때 중공당은 민생단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있던 조선족 투사들을 석방하여 2군 3사로 편성하고 김일성을 3사 사장에 임명하였다. [59]

북만의 제항일유격대와 동북항일연군 제3군-7군

북만지구는 항일연군 제3군-제7군의 전신 또는 그 일부분인 주하, 밀산, 녕안, 탕원, 요하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곳이다. 1933년 10월 조상지를 대장, 리복림을 정치지도원으로 13명의 주하항일유격대가 창설되었는데 이듬해에는 500명의 대원으로 성장하였고 1935년 1월에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으로 확건되었고 1936년 8월에 동북항일연군 제3군으로 개편되었다. 대원은 이미 수천명으로 발전되었다. 이때 김책은 제4퇀 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밀산유격대는 1933년 김백만 등 당원, 단원 4명으로 시작하여 1934년 3월 밀산유격대를 정식으로 창건하고 1936년 3월에 동북항일연군 제4군으로 발전되었다.

탕원유격대는 1930년 11월초부터 최용건과 리인근의 지도하여 군사기초지식을 배우고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항일유격대 창건

---

[58]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357.
[59]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209.

의 기초를 닦았다. 40여명의 유격대원 가운데 세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족이었다. 1934년 10월에 만주성위의 지시에 따라 탕원유격중대로 편성되고, 1936년 1월에 동북인민혁명군 제6군으로, 그해 6월에는 동북항일연군 제6군으로 발전하였다. 대원은 4,500여명으로 발전하였다.

요하유격대는 황포군관학교 교관으로 있던 최석천(최용건)이 요하중심현위의 영도하에 1932년 창건된 것이다. 대원 120명은 모두 조선족이었고 대장은 최용건, 정부부 주임은 김문형이었다. 1936년 3월 동북항일연군 제7군으로 확건되었으며 대원은 1,000여명으로 발전하였다. 영안유격대는 주보중에 의하여 5군으로 발전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동북지구 항일운동의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조선민족 당원, 단원과 애국청년들은 각지 항일유격대의 창건, 발전과정에 솔선적, 골간적, 주체적 역할을 하였다. 모든 항일유격대의 초창기에는 전체 대원 또는 다수의 대원이 모두 조선민족이었으며 나중에 발전하여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6군, 제7군으로 발전하였다. 총 11개의 군단중에서 6개의 군단이 조선족에 의하여 창설되고 발전된 것이다.

동북항일연군 제2로군 총지휘 주보중은 당시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완강한 동반유격대와 강대한 반석유격대, 주하유격대, 밀산유격대, 탕원유격대, 요하유격대는 모두 조선족동지와 혁명적 조선 군중둘이 창건한 것으로서 후에는 항일연군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6군, 제7군으로 발전하였다. 제5군내에도 우수한 조선동지들이 적지 않았다. 항일연군의 각 군에는 군장, 정치부 주임으로부터, 련장, 패장, 지도원에 이르기까지 조

선동지들이 많았다."[60] 김일성도 이렇게 많은 조선족 사람 중의 하나였다.

둘째, 항일유격대는 당의 직접적 영도하에 당원, 단원(공산당청년단)을 골간적 역량으로 하여 결성된 당의 영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인민의 무장대오이다. 항일유격대는 항일유격대는 만주성위 및 그 산하의 각급 조직에서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우수한 당원, 단원과 반일열혈청년들을 선출하여 건립하였으며 최초부터 부대내에 당, 단조직과 정치기관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정치사업제도가 엄밀히 제정되어 있었다.

당, 단조직과 정치기관의 일군들은 자기의 능동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간고한 전쟁환경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 한 실례로 각 유격근거지와 유격대에는 투쟁, 전투보, 민중보, 반제전선 등 수많은 출판물을 발간했는데 일제가 당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종류는 500종이 넘었고 1933년 한 해 동안에 적의 손에 들어간 부수만 하더라도 무려 4만5천여부에 달했다.

중공당이 직접 결정한 제1군-제7군에서는 한인 간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구국군 내지는 산림대가 기본역량이 된 제8군-11군에는 한인이 거의 없었다.

중공당에서 주도하여 결성한 북만지방의 제3군부터 제7군에 소속된 한인간부는 몇몇 지도자만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책, 허형식, 최용건, 이학복이다.[61]

---

[60] 주보중, "길림성위군중사업회의에서의 보고," (1946년 12월);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연구』, p. 214에서 재인용.

[61]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215.

나. 동북항일연군의 전성기 (1936년 2월~1938년 6월)

1935년 여름부터 동북인민혁명군 각 군은 기타 항일부대와 군사적, 조직적 연합을 추진하였다. 1935년 7월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는 반파쇼 인민통일전선의 신방침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당 대표단도 망국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분자와 당파는 단결하여 항일연군을 조직하라고 신방침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동만과 남만, 그리고 길동지구에 신방침이 정식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은 1936년 2월 5일 연안현 북호두에서 위증민이 주보중과 만난 북호두회의에서부터였다.[62]

영안현 북호두에서 동만특위 서기 위증민과 5군군장 주보중이 만나 1935년 7월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 반파쇼인민전선 신방침을 채택하였는데 이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위증민이 동만, 남만, 길동지구에 신방침을 전달하는 회의를 하였다. 신방침의 3대 내용은 1) 전만주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며, 2) 만주를 남만, 동만, 북만, 길동4대 유격구로 나누어서 투쟁하고, 3)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항일연군으로 명침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신방침은 산림대 구국군, 조선인 부대를 연합하여 항일투쟁의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신방침에 따라 1936년 2월에 양정우를 총사령, 조상지를 부사령, 리홍광을 참모장으로 하는 동북항일연군 총사령부를 건립하였다. 이때로부터 1937년말까지는 동북항일연군이 가장 장대하고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로서 최전성기에는 대원이 무려 4만명에 달하였고 도처에서 일본군과 위만군을 대량으로 섬멸하였다.[63]

---

[62]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422.

코민테른 7차회의에서 한인문제와 관련된 신방침이 확정된 회의는 미혼진회의이다. 미혼진회의는 1936년 3월 상순에 열렸는데 만주성위의 3월 8일자 문건[64]이 미혼진회의 결과보고서로 추정된다. 결정사항은 1)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연군 제2군으로 재편하며, 2) 3사를 신설하여 2개사를 3개사로 편성하되, 민생단 혐의로 감옥에서 석방된 100여명을 대원으로 3사를 편성하고 김일성을 3사장으로 임명하며, 3) 재만조선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며, 4) 반민생단투쟁을 종료한다고 선언하였다.

동만에서 미혼진회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한 회의가 1936년 5월의 동강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2군 1사와 3사로 하여금 백두산 일대로 진출하도록 결정하였다. 즉 김일성의 2군3사가 백두산으로 진출하도록 결정되었다.

1936년 7월 하리회의에서 2군정위 위증민이 1군 군장 양정우와 만나 1) 남만특위와 동만특위를 합쳐서 남만성위원회로 통일하며, 2) 제1군과 제2군을 합쳐서 제1로군을 결성하였다. 그래서 2군의 1사, 2사, 3사는 각각 4사, 5사, 6사로 개칭됨에 따라 김일성의 3사는 6사로 변경되었으며, 백두산지역에서 활동하도록 결정되었다. 하리회의를 통하여 조선족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은 동만지구로부터 장백산일대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65] 또한 하리회의에서 3) 재만조선인조국광복회를 조직하도록 결정하였다. 한인만의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대신 재만조선인조국광

---

[63]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223.

[64] 김우종 주필, "위민생, 왕덕태가 공작위원회 및 윤성동지에게 보내는 서한", 『동북지역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흑룡강성: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3), 제8권, pp. 269~271.

[65] 황용국외, 『조선족혁명투쟁사』, p. 375.

복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다. 동북항일연군의 쇠퇴기 (1938년 6월~1940년 말)

1936년 4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북부동변도 만주국치안숙정3개년계획이 항일유격대를 3년간 꾸준히 공격하였다. 일제는 그 일환으로 남만의 동변도지방에서 1936년부터 북부동변도치안숙정공작을 실시하였고, 1937년부터 삼강지구치안숙정공작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항일부대 토벌은 1937년 7월의 중일전쟁의 발발과 때를 같이 하며 1937년 6월의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보천보 전투 그 자체의 전과는 미미한 것이었지만 동북한일연군의 첫 번째 국내 진공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작전이었다. 만주의 무장부대가 국내에 진출하였다는 점에서 일군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1937년 7월의 중일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후방교란을 기도하는 만주 무장대의 국내진출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일본은 보천보전투를 빌미로 조국광복회 조직을 궤멸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음해 9월까지 739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188명을 기소하였다. 이것이 소위 혜산사건이다.

그리고 일본은 1938년부터 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하나는 집단부락 건설로서, 집단부락이라는 전략촌에 농민들을 이주시켜 빨치산과 분리시키는 전략으로서 유격근거지를 분쇄하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투항자를 죽이지 않고 전향시켜 빨치산 토벌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

의 가장 큰 성공은 1938년 6월 동북항일연군 제1사장 정빈이 투항하여 일본군의 선두에 서서 양정우의 토벌을 도왔던 사건이다. 제1로군 총사령이자 동북항일연군 총사령인 양정우의 한쪽 팔이었던 그의 투항은 제1로군 전체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제1군 사장 정빈이 투항하게 되자 부대의 비밀이 누설된 것을 대비하여 1938년 7월에 노령회의를 소집하여 1,400명의 병력을 3개의 방면군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제2군 6사는 제2방면군으로 개편되었다. 1938년 6월 이후 항일연군은 다년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악전고투하며 큰 손실을 입은데다 일제가 끊임없이 '훼별적 소탕'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최저한도의 생존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당시 김일성 부대는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1938년 12월초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100여일에 걸쳐 몽강현 남패자에서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먼길을 일본군의 추적을 따돌리며 눈속을 행군해간 것이다. 이것을 북한의 역사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66]

1939년 10월부터 관동군은 동남부 치안숙정공작이라는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는 겨울에 눈 속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수색하며 유격대를 막대른 골목까지 몰아간다는 작전이다. 작전을 개시하여 3개월째인 1940년 1월에 1로군군장 양정우가 사살되었으며, 다음달 김일성 부대의 참모장 림수산이 일본군에 투항하였다. 림수산은 투항후에 림수산공작대를 조직하여 김일성 토벌을 위하여 일하였다.[67]

일본의 일제 토벌작전에 유격근거지는 거의 전부 파괴되었고,

---

[66]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p. 141.
[67]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52.

양정우, 허형식 등 우수한 고위급지휘원과 많은 대원들이 희생되었고 투항, 도망자도 속출하였다. 1940년초 제1로군의 지도자 위증민도 “지금당장 도망, 투항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조직내부의 동요가 심각하였다.[68] 1940년 말에 이르러 부대는 1,00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40년초와 1941년초에 소련경내에서 동북의 당, 군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고 위증민, 주보중, 김책으로 3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련경내로 부대를 이동시켜 장기투쟁을 견지하자는 방침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940년 말부터 1942년 봄까지 항일연군의 일부의 소부대만 남겨두고 모두 소련 경내로 철수하였다.

처음에는 잠시 건너가 월동이나 하고 봄에 되돌아와 유격전을 재개할 작정이었으나 1941년 4월에 소련이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소련이 만주로의 부대이동을 금지하였다. 부득이 장기적인 야영훈련으로 넘어갔다. 1942년 8월 항일연군은 교도려를 편성하였다. 주보중이 려장, 리조린이 부려장, 최용건이 참모장직을 맡았고, 김일성은 조선민족관병이 제일 많은 제1영장직을 맡았으며, 안길, 강신태, 김책은 1, 2, 3영의 정위직을 각각 맡았다.

교도려는 최석천을 서기로 하는 중공동북위원회의 영도하에 야영지에서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다그치는 한편 수시로 소부대를 동북에 파견하여 군사정찰, 군중사업, 항일선전, 소규모 유격전 등 임무를 수행하였다.[69]

교도려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한 뒤 해산되었으며, 김일성

---

[68]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429에서 재인용.
[69]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p. 233~234.

일파는 해방된지 한달이 넘게 지난 1945년 9월 19일 소련함대를 타고 원산항으로 입국하였다.

3.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전개과정

가. 중국공산당 입당~3환정위 시기(1931년 10월~1935년): 동만시절

(1) 김일성의 국민부좌파 활동과 중국공산당 입당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 이전까지는 민족주의계열 국민부에서 활동하였다. 민족주의계열의 학교를 다녔고, 민족주의계열에서 지원해준 학자금으로 육문중학교를 다녔으며, 육문중학교를 중퇴한뒤 민족주의 계열의 국민부에서 화성의숙에서 만났던 선배 이종락, 최창걸 등을 따라서 국민부에서 활동하였다.

김일성은 무송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13세되던 1926년 6월에 무송의 화성의숙에 입학하였다. 화성의숙은 국민부[70]의 전신인 정의부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의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로서 소대장급 이상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전문학교였다. 김일성은 1926년 12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살고 있는 무송으로 왔다가[71] 6개월간 다니던 화성의숙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10여살이나 위인 동급생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들이 1927년

---

[70]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과 더불어 민족유일당 건설을 협의하다가 결렬되고 정의부 다수파와 신민부, 참의부의 민족주의자들이 1929년 9월 국민부를 조직하였다.

[71]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40

1월 길림의 육문중학교로 옮겨주었다.[72]

그는 육문중학교 재학시절인 1929년에 상월선생이 부임해와서 1929년 가을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통하여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사회주의 사상을 배웠다. 육문중학교는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학교로서 비교적 진보적 선생들이 많았다. 상월선생은 관내에서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김일성은 그곳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접했다. 김일성의 맑스주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은 손정도 목사이다. 손정도목사는 기독교를 꾸리면서 길림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길 학우회를 운영하였다. 김일성은 육문중학교와 손정도 목사의 여길학우회에서 두개 방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초보적으로 배웠다. 육문중학교에 조선인 6~7명, 문광학교에 5명정도, 길림 법전에 몇 명정도의 조선인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1928년 길림에서 길회(길림-회령)철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이 철도를 건설하여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여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길회철도 반대운동은 길림 법전에서 먼저 일어났으며 한족 위주의 운동이었는데 조선사람까지 합세하여 길림광장에서 3천여명이 참여하여 시위를 하였다. 김일성도 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듯이 김일성이 영도한 집회는 아니다. 김일성은 자신이 지도하던 소선대(소년선봉대)를 동원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길림전체를 지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73]

이러한 일련의 운동을 통하여 이 시기 민족주의 단계였던 정의부의 청년층은 좌경화되어가고 있었다. 국민부원이었던 계기화에

---

[72] 박창욱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73] 박창욱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따르면 1927년에 길림지역이 “벌써 ML당의 마수에 넘어”갔고, 1928년에 들어서는 남만학원, 화흥중학의 학생들도 좌경화되어 길림성 반석현까지 ML 당의 지반이 되었다고 한다.[74] 김일성도 이러한 청년층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 정보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은 1929년 5월 상순경 허소, 한석훈, 이금천, 성숙자, 김동화, 신영근 등과 더불어 ‘조선공산청년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조선공산청년회는 정의부 시기부터 좌익화한 청년층 중심의 비합법 조직이었다.[75]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에서 조선공산청년회 활동 건으로 야기된 1929년 가을 길림 제5중학교 독서회사건을 수습하던 중 중국관헌에 체포되어 1930년 5월초에 석방되었다고 주장한다.[76]

김일성은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육문중학교에서는 퇴학당하였기 때문에 오갈데가 없어서 화성의숙시절 알고 지내던 형뻘인 이종락을 찾아갔다. 이종락은 국민부 좌파의 핵심으로서 고유수에서 민족주의 계열 국민부 조선혁명군의 중대장이었며, 국민부 좌파로서 ㅌ·ㄷ 동맹을 조직한 사람이다. 정의부와 국민부 내부에 화요파, ML파, 상해파에 경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종락이 국민부에서 좌적으로 넘어가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김일성은 이곳에서 이종락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종락부대에서 분대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77]

김일성은 청년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로부터 공산주의를 지향

---

[74] 桂基華, “3부·국민부·조선혁명군의 독립운동 회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p. 405;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관한 연구』, p. 149에서 재인용.

[75]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관한 연구』, p. 150.

[76] 김일성,「세기와 더불어」, 제1권 p. 345~361.

[77]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하는 청년들과 교제를 갖고 그 중의 한 사람인 이종락이 만든 조선혁명군길강성 지휘부에 참가하였다.[78] 조선공산청년회는 당시 세력구도로 볼 때 친국민부 반ML 경향이었으며 이 시기 김일성도 국민부 소속 청년층의 새로운 동향과 같은 흐름에 있었다.

국민부내에서 좌경화된 청년가운데 일부, 예를 들어 이종락, 최창걸, 김원근 등과 김일성은 1929년 2월에 결성된 남만한인청년동맹에서 함께 활동하며 점차 좌경화하면서 국민부를 비판하고 ML파를 반대하며 재건설파와 친숙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종락 등은 1930년 중반경부터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는 문제를 놓고 재건설파와도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결별했을 뿐만 아니라 1930년 8월부터는 국민부를 공공연하게 반대하였다. 1930년 8월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국민부는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었다. 국민부 좌파는 조선혁명군길강성지휘부(1930년 9월)를 결성하였고 1931년 봄에는 동방혁명군으로 개칭하였다.[79] 와다 하루키에 의하면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의 다른 이름이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동맹)이다. 1931년 3월 17일자 중공 남만특위 보고는 反국민부 세력가운데 제3세력을 막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유신파, 프로동맹,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세개를 들고 있는데, 이 제3의 조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타제동맹은 국민부 군인 속에서 분화해온 일부가 조직한 것이다. 그 중심지도자는 리종락이며 근거지는 반석 북부, 고유수길강 노선, 히덕현 등이다. 800여호의 조선농민에, 20여명의 무장이 있다. 지난해 12월 당 특파원이 해결하려고 한 적

[78]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41.
[79]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p. 390~391.

> 이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다. 올해 2월 리종락 등 4명이 일제에 붙잡혔다. 이 타제동맹은 대중의 역량과 사상에서 프로동맹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무장은 그들보다도 강력하다.[80]

김일성이 1926년에 조직하였다는 ㅌ·ㄷ동맹은 사실은 이종락이 조직한 것이며, 김일성은 당시 화성의숙때 친하게 지내던 이종락의 ㅌ·ㄷ동맹을 자기가 한 것으로 왜곡한 것이다.

1931년 이종락부대는 일본 관헌에 의해 완전히 궤멸되었고 이종락도 1931년 1월 28일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조선혁명군 길강성지휘부가 해체되었다. 또한 최창걸은 1931년 11월 국민부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부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이 부대에 속해 있었던 김일성은 체포를 피했으며 1931년초에 어머니가 사는 안도로 피신해 왔다.[81] 김일성이 자기가 ㅌ·ㄷ동맹을 주도하였다면 이종락의 체포와 무관하게 그곳에서 활동을 계속하였을 것이다.

김일성은 19세가 되던 해인 1931년 9·18사변 직후인 10월 안도에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82] 중공당이 무장부대를 건립하여 일제에 무장투쟁을 결의한 시점에서 김일성은 중공당에 가입하였고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면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장부대에 들어갈 때 자기 가족이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변명으로 등록하는 것은 이 시대 조선인들

---

[80]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鬪爭資料匯編』, (심양: 요녕민족출판사, 1992), p. 727.

[81]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p. 65~66.

[82]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근대혁명운동사』(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61); (서울: 도서출판한마당, 1988), p. 233, 1935년 12월 20일, 위증민의 보고에 '1931년 입당'이라고 씌어있다.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86.

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1930년까지 김성주라는 본명으로 일본 관헌자료에 나타났던 인물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시기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83]

요약컨데, 김일성의 사상 편력은 원래 민족주의자로 성장하였으나, 민족주의 좌익으로 나왔다가, 조선공산당의 영향을 받았다가, 중국공산당에 들어왔다.

(2) 김일성의 별동대와 남만 원정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당의 정책에 따라 본격 무장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1931년 9·18 사변이후 중국공산당 동만특위는 1931년 12월 안도현성 명월구 회의를 개최하여 무력저항을 결정하였다. 동만특위 서기 동장영의 영도밑에서 개최된 회의로서 중국공산당 영도밑에서 무장대를 조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의 결정에 따라 동만에서 공산계열의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이후는 중국공산당의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되어 있었다. 당시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원으로서 철저히 중국공산당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 동북항일연군의 부대원으로 편입되었다. 김일성이 소속한 동북항일연군의 지휘자는 중국공산당이며, 강령은 중공의 강령이었고, 김일성 부대의 일거수일투족은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의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공당 입당 초기에는 아직 중공당의 조직에 크게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국군에서 남

---

[83]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86, 각주 55.

만의 조선혁명군으로의 유랑기가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남만 유랑기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명월구회의가 끝난 다음, 동만특위 공청단의 일원으로서 안도 소사하에 파견되어 왔다. 소사하에 어머니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당에서 파견된 순시원 역할을 하였는데 명월구회의 정신에 따라 안도 소사하에서 중국 우사령 구국군의 별동대를 조직하였다. 15~16명정도의 규모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조직한 것은 별동대이지 유격대는 아니었다. 구국군의 별동대(정치공작원)이다. 유격대는 단독 독립부대인데 반하여 별동대는 길안내도 하고 후원도 하는 등의 부대이다. 중공당은 별동대 조직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는데 별동대란 "중국의 민족주의계열 구국군 부대의 동요성과 불철저성을 투쟁을 통하여 극복하고 반일적인 요소를 적극 조장시키는 한편 병사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킴으로써 그들을 반일투쟁의 길로 확고히 이끌어주는 조직이다."[84] 즉, 별동대는 중공당이 조직한 것으로서 구국군을 선전선동, 정치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데 북한은 중공당이 조직한 별동대를 '안도 유격대'라고 부르고 이를 북한조선인민군의 창군기념일로 삼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조선혁명군 성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무력인 반일유격대(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고 기술하고 있다.[85]

별동대는 구국군에 침투하여 사상무장을 시키는 조직이었는데

---

[84]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81.
[85]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88.

문전박대 당하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김일성은 별동대를 데리고 남만의 민족주의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김일성은 별동대를 데리고 소위 남만원정을 떠났다. 남만원정의 목적의 하나는 무기 조달이며, 또 다른 목적은 김일성이 중국군 별동대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지 조선사람을 찾아서 떠난 것으로 보인다. 남만에서 찾아간 사람이 민족주의계열 조선혁명군 양세봉이다. 양세봉은 김일성 부친 김형직과 같이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써 동료의 아들이 찾아와서 연대 투쟁을 하자고 제의하자 양세봉은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 연대할 수 없다고 문전박대하였다.

양세봉은 "민족주의는 패당은 있어도 사람은 안죽였다"고 하면서 김일성을 거부하였다. 당시 공산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인 김좌진 장군 등을 죽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북한의 영화 '조선의 별'에서는 양세봉이 조선의 영수가 왔다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였다고 묘사하였다. 북한 역사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반일부대사령관은 복잡한 정치정세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시고 명철한 판단을 내리시는 그이의 원숙한 식견과 철저한 반제혁명정신에 탄복하여 마침대 반일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동의하였다.[86]

그러나 사실은 양세봉에 의하여 문전박대 당하였다. 그래서 김일성은 다시 프로동맹 최창걸을 찾아갔다. 최창걸은 이미 전투에서 사망하고 없었다. 1931년 11월에 이미 국민부 무장부대인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부하에 의하여 살해된 사실을 몰랐다.[87] 김일

[86] 위의 책, p. 87.

성이 남만에 간 것이 헛수고였다. 별동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안도로 온 것이 아니라 동령현에 갔다가 왕청으로 왔는데 이때가 1933년 1월이었다. 이것을 북한은 남만원정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중공당의 성원이라면 남만의 조선인 민족계열 부대에 연합작전을 하자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일성의 별동대가 왕청의 이광 별동대처럼 중공당에서 창설한 부대라면 동만특위 군사부의 허락없이는 남만까지 병력을 이동하지 못한다. 당시 김일성의 부대는 중공당에서 창설한 부대가 아니라 구국군 별동대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중공당의 승인없이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립교수는 안도에 여러번 가서 당시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공안 국장하던 한족 우사령이 일본이 쳐들어오니 반일기치를 들고 우사령부대를 창설하였는데 김일성은 우사령부대의 별동대로 조직되었다고 현지 주민들이 증언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중국공산당 입당 초기에 민족주의계열과 공산계열 사이에서 방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남만 무송에서 어릴때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국민부이다. 김일성이 다닌 학교인 화전의숙이 민족주의 계열인 국민부의 학교이다.[88]

(3) 왕청유격대 합류와 3퇀(团) 정위로 임명

별동대를 데리고 다시 왕청으로 왔던 시점이 1933년 1월이다. 이 당시 왕청에는 이미 유격대가 건설되어 있었다. 김일성의 별

---

[87]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관한 연구』, p. 162.
[88] 남임오 연변대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동대는 왕청유격대에 합류했다. 영안유격대도 왕청에 합류하여 왕청유격대, 영안유격대, 김일성 별동대가 합하여 왕청유격대대가 되었다. 대장이 양성령, 정위가 김일성으로 되었다. 김일성은 중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왕청대대(3퇀)의 정위가 되었다. 왕청대대 정치위원이 된 것은 중요한 직책이다.[89]

1933년 9월, 동년현성 전투가 유명한 전투이며 김일성이 부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전투이다. 이 전투는 주보중이 지휘한 전투로서 여러민족 부대가 연합하여 항일투쟁하라는 '1933년 1.26 지시편지'에 따라 연합작전 형태로 시행한 전투이다. 김일성의 왕청유격대 1개중대와 최충국 1개중대 등 2개중대가 라자구에 집합하여 시세영의 구국군 부대에 합류하여 동령현성에 투입되었다. 이 때 이청천도 독립군을 데리고 왔다. 민족주의 이청천, 공산주의 김일성이 같이 연대하여 전투를 하였다. 김일성은 공산당의 영향이 강하지 않을 때였다. 투쟁을 같이 했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만 참가하였다고 주장하고, 남한에서는 이청천만 참가했다고 주장한다.

동녕현성 전투는 유격활동근거지를 만들기 위하여 구국군에서 주도한 전투이다. 구국군 몇천명이 투입되었으나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투를 하지 못하였다. 일본이 반격하자 구국군은 금방 후퇴하였고 후퇴하는 과정에 사충환 구국군 여단장이 부상당하였다. 김일성이 최충국을 시켜서 업어서 구출해냈다. 이것이 후에 김일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충환이 자기를 구출해준 것에 감사하여 자신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고 한다.[90]

---

[89]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90]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4) 민생단 혐의와 북만원정 (1차)

민생단 사건은 중공당에 참여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우리 조선인에 대하여 일제 간첩단체라고 의심하여 체포하여 처형한 사건으로서 일제의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분열책동, 조선인과 중공인의 민족갈등, 조선인 공산주의자내의 파벌, 중공당의 지식인 자산계급 출신자를 신임하지 않는 좌경적 오류 등이 겹쳐서 발생한 사건이다. 조선인 지식인, 민족독립운동출신자와 조공당 출신자들이 주로 의심을 받았으며 조선인 항일지도자 500여명이 민생단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된 사건이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31년 9·18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 동북지방에 내부분화가 발생하였다. 동만 조선인 사회의 친일세력은 더욱 득세하게 되었는데 '자치촉진회' 등 세력은 동북군벌의 신속한 붕괴와 더불어 친중에서 친일로 급전환하였으며, 공산주의계열은 중공당의 영도아래 항일무장투쟁에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민생단은 1932년 2월 조선인 사회의 정치세력들이 친일반공과 무장투쟁의 두개의 진영으로 분화되는 환경에서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친일세력의 주도아래 '간도한인자치'를 주장하였다. 일본은 박석윤 등 친일파를 내세워 혁명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인 지도 밑에서 자치기구를 만들고 조선총독부하에서 참정권을 얻자는 주장을 하였다. "공산당이 적이다, 우리 살길을 찾자, 자위대도 조직하자"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반공친일 노선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처음에는 중국인과 조선인을 분열시키는 전략으로 묵인하였으나 관동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일제는 동북에 대한 식민통치와 만주국건설이라는 보다 큰 전략적 목표에서 조

선인들이 '간도한인자치'를 용인할 수 없었으며 또 민생단이 자기들이 신임하는 친일파들이 조직한 것이지만 조선민족의 단일한 사회단체라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민생단의 '자치운동'은 바야흐로 형성되던 조중민족 항일통일전선을 파괴하기 때문에 중공당계열의 반대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민생단은 일제의 태도변화, 중국사회의 냉대, 중공당의 격렬한 반대로 말미암아 5개월간의 단명으로 해체되고 말았다.[91]

1932년 7월 민생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중공 동만당은 반민생단투쟁의 연장선에서 자기조직과 항일유격구 내부의 반간첩투쟁의 일환으로 반민생단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해 10월부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반민투는 날로 격화되었으며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번져갔다. 1936년 3월에 종료될때까지 3년 반 동안 진행된 반민투 과정에서 동만 조선인 당·단 간부와 항일혁명가 560여명이 억울하게 처형되었고 수천명이 의심, 배척당하고 박해를 받았다.[92]

발단은 일제가 조선인과 중국인의 분열를 위하여 획책한 것인데 당시 중공당내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갈등과 중공당의 좌경적 오류에 기인하여 조선공산당 파쟁분자 = 조선민족주의 = 일본간첩 민생단분자로 규정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갔다. 한때는 조선사람은 모두 민생단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노간부들과 지식인들은 거의 다 숙청되었다.[93]

소강상태에 있던 반민투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일제가 조작한

---

[91]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서울: 백산자료원, 1999), pp. 537~538.
[92] 위의 책, p. 539.
[93]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또 다른 민생단 사건이다. 민생단 숙반위원회 주석 리송일이 어느 밀령에 가있는데 협조회(우리동포중에 친일파로 된 특무조직, 일본 헌병대 외곽조직) 회장 김동한이 리송일 앞으로 보내는 가짜 편지를 산중에 뿌려놓았다. 이 편지 사건으로 해서 리송일은 민생단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1935년 3월 21일 총살직전에 리송일이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된 것을 보니 민생단은 그림자였구나라는 말을 남기었다고 한다.[94]

새로운 민생단 사건을 야기하여 일본은 생각 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이후 반민투는 일종의 마녀사냥식으로 전개되었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민생단이라고 고발하고, 민생단이라고 고발을 당하면 모진 고문을 받고 다른 민생단 혐의자를 고발하고 자기는 처형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500여명이 처형되었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의 참가자 채광춘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반미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당시 동장영, 조아범 등 사람들은 아동단에도 민생단이 있고 어떤 현에는 60%, 70%, 80%의 민생단이 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식사할 때 밥알을 흘려도 민생단의 작용이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방귀를 뀌어도 민생단의 작용이라고 하였다.[95]

김일성도 1933년 9월 동녕현성 전투 무렵에 민생단 혐의를 받았다. 김일성의 민생단혐의에 대하여 사충환이 반대하였다. 일본

---

[94] 1981년 7월 27일 김하윤의 증언. 김하윤 노인은 1935년 당시 '혁명자녀학교'에서 문지기를 하던 노인인데 김일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소문난 사람이다. 중국어 잘하고 그래서, 리송일을 민생단으로 심판할 때 김일성이 통역으로 섰다고 하더라."

[95]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p. 172에서 재인용.

군과 싸운 사람을 민생단이라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국군에서 김일성을 옹호하였다. 싸움잘하고 한어 잘하고 사충환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옹호한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3퇀 정위 자격이 파면되고 유격대를 떠나게 되었고 소학교에서 교사역을 하였다.[96]

남임오 교수는 1981년 7월 27일 김하윤이라는 노인과 유은식 노인을 만나 김일성 관련 인터뷰를 하였다. 김하윤 노인은 그때 '혁명자녀학교'에서 문지기를 하던 노인이며 유은식 노인은 유격대 대원이었으며 김일성의 왕청퇀이 있던 마촌사람이다. 마촌에는 지금도 퇀부 집자리 나무에 '왕청퇀 유적'이라고 씌어 있었는데 이곳을 북한에서 '사령부 유적지'라고 고쳐썼다. 김하윤이 말하기를,

> 1933년도라고 생각되는데 김일성이 작전참모인지 정치위원인지 했는데 그때 김일성이 민생단 혐의로 체포되었다. 얼마동안인지는 모르나,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후에 들어보니 영안의 주보중이 김일성을 풀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 동만에서 싸움 제일 많이 한 것이 김일성인데 김일성마저 의심하면 되느냐. 그래서 김일성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때 내가 혁명자녀학교를 지키는데 김일성이 털이 숭숭하게 난 가방을 메고 글 배워준다고 하면서 학교로 왔다. 알아보니 방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김일성은 또 떠났다. 왜 떠나냐고 물어보니 김일성이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투쟁으로서 보험을 받겠다. 대원 몇명만 달라"고 말하고 몇명을 데리고 일본놈과 싸우러나간 것이 굉장히 싸웠다고 하더라. 후에 말을 들어보니 그때 많은 사람을 민생단으로 죽였는데 김일성만은 못 죽였는데 마촌에 있는 구국군에서 김일성이 너무 소문이 나서 김일성을 죽이면

[96]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 구국군에서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김일성이 몇 명을 데리고 나가 천교령일대에서 일본과 싸우고 돌아올때는 한개 중대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97]

왕청톈부 성립일이 1934년 5월 30일인데 제3톈 4련 지도원 김일성은 제3톈의 소부대를 인솔하여 요영구 밀영에서 싸웠다. 겨우 근신이 풀려 소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는 것이 인정되어 정력적으로 전투를 전개하였다.

김일성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구국군과 주보중의 구명운동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동만특위가 김일성을 의심하고 김일성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길림성장 주보중이 이것을 알고 김일성을 의심하지 말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주보중과 구국군의 반일부대에서 김일성의 위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한다.[98]

그러나 동만특위에서 다시 김일성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다. 이때 김일성이 체포를 면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당시 중공 왕청특위 서기였던 종자운이 직접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35년 종자운(중즈윈, 중청단 만주성위 특파원, 중공 왕청특위 서기)이 라자구에서 특위서기로 있을 때였다. 하루는 김일성을 체포하라는 특위(지시자는 동만특위 책임서기 위증민일 것으로 추정)의 지시서한을 왕윤성(선후로 왕청특위 선전부장, 훈춘특위서기, 독립사단 제4톈 정치위원, 2군 4사 정치위원 등 직을 역임)과 함께 받았다. 왕윤성은 김일성을 체포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왕윤성은 종자운에게 어쩌면 좋을지 태도표시를 하라고 하였다. 종자운은 김일성을 해탈시킬 방법이 있는가고 물었다. 왕윤성은 당신이 동의만 한다면 방법은 나에게 있다고 하였다. 종자운은 김일성을 해탈시키는데

---

[97] 남임오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98] 최홍빈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동의하였다. 이에 왕윤성은 김일성을 북만에가서 주보중을 찾도록 하였다. 그더러 돌아오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특위에 김일성은 이미 떠났으니 주보중더러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북만으로 떠났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북만원정'이다. 종자운 그들은 정말 오류를 범했지만 조선족을 보호한 일도 있는 셈이다.[99]

이렇게 하여 종자운과 왕윤성이 김일성을 구하기 위하여 멀리 북만의 영안에 있는 주보중의 5군으로 김일성을 보냈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소위 제1차 북만원정이다.

김일성이 북만 5군 주보중부대에 있을 때 길동 순시원 오평을 만나서 동만의 반민생단투쟁에 관하여 담화를 하였다.[100] 오평은 연안에서 신화일보 주필을 지낸 사람으로서 양송이라고도 불렸다. 1935년 1월경 오평이 김일성을 불러놓고 반민생단투쟁의 실태에 대하여 상황을 자세히 보고 받고 반민투가 좌경이며 통일전선이 틀렸다는 의견을 말한 바가 있으며 1935년 2월 10일 동만특위에 편지를 보내어 '반민투' 착오를 비판하면서 조선민족의 자치와 한국독립을 중심구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평의 입장을 충분히 접한 김일성은 중공당에서 반민생단투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곧 종결될 것임을 득문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동만에 돌아와 35년 3월 21일 요영구회의에서 이러한 논지로 반민생단투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였으며 중공당 지도부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오평이 북만 영안에서 김일성과 담화이후 동만의 반민생단투

[99] 권립 교수 인터뷰, (2006년 7월).
[100] 『김일성회고록』 3권, p. 378에서 오평을 10일가량 담화한 적인 있다고 밝히고 있다.

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내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01]

> 첫째, 일본제국주의가 동만에서 한국인을 사주하여 중국인을 반대하고 중한민족의 연합을 파괴하려고 민생단을 조직하였다. 둘째, 민생단 가입자 수가 당과 단 내의 6할 내지 7할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첫째, 간도한국인민족자치를 실시해야 하며, 둘째, 중공중앙과 국제공산당은 한국인민족독립에 관한 구호가 가장 중요한 구호로 인정해야 하며, 셋째, 한국인내부에서도 반일민족혁명통일전선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평의 이 보고는 연변에서 한국인 민족자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며 이것이 발단이 되어 1952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설치되었고, 가깝게는 반민생단투쟁을 금지하게 하고 동북항일연군의 창설과 조국광복회를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102] 또한 오평의 민생단사건과 한인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조금씩 새롭게 싹트고 있던 인식이 전면화된 혁신적인 구호였다. 1935년 오평의 지시가 새로운 사고의 계기가 되었다면, 공산국제의 신방침은 재만한인의 장래를 확정시킨 계기였다.[103] 오평(양송)의 서한[104]에 나타난 한인문제에 대한 신방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01] 동만특위에 보내는 중공만주성위 길동순시원 오평의 서한: “동만항일유격운동, 통일전선, 반민생단투쟁의 책략, 당사업, 군중사업 등 문제에 관하여,” (1935년 2월 10일); 김우종 주필, 『동북지역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 제7권, p. 167~175; “중공만주성위 길동순시원(오평)의 보고(요지): 영안의 일반정황, 일만비도군의 토벌과 유격운동의 발전, 지방공작 및 1월분 사업포치 등,” (1935년 2월), 김우종 주필, 『동북지역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 p. 207.

[102] 김성호,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 『역사비평』, 여름호(2000), p. 128.

[103]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433~434.

[104] “중공 길동성위에서 요하중심현위 및 4군 4환에 보내는 서한” (모스크바 주재 중공당 대표단의 파견원인 양송 (오평)이 길동성위원회의 이름으로 주보중을 통해 전달. 김우종 주필, 『동북지역 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 제8권』, p. 278.

동북의 한국민족에 대한 우리 당의 주장: (1) 중·한민족은 련합하여 공동으로 항일을 하여 중한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동만의 간도에 대한 우리당의 주장은 "중한민족은 련합하여 일제와 만주국의 통치를 뒤엎고 간도한인민족자치구를 창립하는 것"이다. (2) 지금의 동만인민혁명군은 중한항일연군으로 재편성하며 아울러 동만에서 독자적인 '한국민족혁명군'을 세우고 한국내부에 들어가 유격활동을 벌림으로써 한국민족의 독립을 전취하도록 한다. (3) 한인들 가운데서 일제의 망국노가 되는 것을 원치않는 모든 사람들을 련합하여 한인내부의 반일련합전선을 결성한다. 믿음직한 한국의 로동자와 농민들을 중국공산당에 가입시키는 외에 또 '한국민족혁명당'을 조직한다. (4) 당내의 동지들을 훈련시키는데 편리하게 하고 비밀공작을 잘하기 위하여 한국동지들로 독자적으로 당소조 및 당지부를 세우도록 한다. 그러나 공동구위 혹은 공동현위 안에 있게 해야 한다. 현위 혹은 특위 산하에 한인사업부를 내오고 그 부장이 현위와 특위에 참가하도록 한다.

민생단사건에서 김일성의 입장

당시 김일성은 민생단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공당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항련제1로군약사』에서 반민생단투쟁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집행 가운데서 범한 착오도 적지 않다"[105] 고 주장하였다. 반민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의 역사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항일유격대 출신 김명화의 회상기에 따르면, '민생단'들이 중요 당기관들과 유격대 지휘부내에까지 끼어들기 시작하였으며, '혁명대오를 와해하고 파괴하며 군사적 모해책동을 시도하여 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하였다'고 썼다.[106]

---

[105] 김일성, 『항련제1로군약사』, p. 633;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121에서 재인용.

최현은 '민생단 적발'이라는 소제목까지 붙이고 있다. 임춘추는 "혁명에서 변절한 협애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로 구성된 일제의 주구단체 민생단은 혁명대열에 잠입하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고 한다.[107] 『김일성동지략전』에서는 반민생단투쟁이란 혁명대열에 끼어든 적의 간첩 주구단체인 민생단을 숙청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108]

이러한 시각에서 당시 김일성은 리송일과 같은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고 처벌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리송일에 대한 민생단 혐의를 심판할 때 김일성이 중국어 통역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 그 사람이 소문난 사람이다. 중국어 잘하고 그래서 리송일을 민생단으로 심판할 때 김일성이 통역으로 섰다고 하더라. 리송일은 동만숙반위원회 주석이다. 그 리송일 마저 총살되었다.[109]

(5) 동만으로의 복귀와 민생단 혐의에서 해제

김일성은 1935년 2월 북만에서 동만으로 돌아왔다. 김일성의 동만 복귀는 북만 영안 5군에 있는 동안 5군장 주보중과 길동순시원 오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보인다. 일제 토벌군의 유격구 궤멸과 민생단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

[106] 혁명전통연구자료, 『혁명의 길에서』(항일유격대원 회상기 (1), 1960), p. 90 참조.
[107] 임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며』, p. 93.
[108]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46.
[109] 남임오 연변대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위하여 대황외회의와 요영구회의가 계획되어 있는 등 중요한 정책적 조정을 앞두고 김일성이 동만에 복귀한 것이다.

대황외 회의

1935년 1월 동만당내 반민투의 엄중성을 우려한 만주성위는 위증민을 만주성위의 전권대표로 위임하여 동만에 파견하였다. 위증민의 임무는 민생단 안건을 심사, 요해하는 것이었는데 민생단 문제 처리에서 증거가 확실하고 성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자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동만특위에 사형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만주성위는 2월 1일 동만당·단특위에 편지를 보내어 한국민족과의 통일전선을 강조하고 처리방법으로서 교육개조를 강조하였다. 이 지시편지에 의거하여 대황외회의가 1935년 2월 24일에서 3월 3일간에 열렸다. 동만당·단특위 제1차 연석확대회의로서 당·단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이다. 중국인 13인, 조선인 13인 참석하였는데 김일성이 참석할 자격이 없어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종자운은 보고를 통하여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의 70%, 조선혁명가의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500여명 검거에 대한 실적을 강조하고, 착오에 대한 비판으로서 통일전선을 파괴하는 부작용도 지적하였다. 엄격하게 민생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숙반위원회 설치도 결정하였는데 3인의 숙반위원회와 주석에 리송일이 임명되었다.[110]

이 회의에서 동만특위를 재건하고 위증민이 책임서기로 결정되었으며, 조직 결정도 있었는데 1935년 2월에 제2독립사가 성립

[110]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119.

되어 제3퇀의 퇀장에 방진성, 정치위원에 김일성이 임명되었다.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복권된 것이다.[111]

요영구회의

1935년 3월 21일 개최된 회의로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정치위원 연석회의였다. 즉 군사간부회의로서 당·단회의였던 대황외회의 결정사항을 군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회의였다. 대황외회의에서 제3단 정치위원으로 선출된 김일성도 참석하였다. 위증민이 주재한 회의로서 김일성을 포함하여 조선인 3인만 참석하였다. 김일성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명예회복을 의미하며, 제3퇀 정치위원으로서의 정식 승인을 의미한다.[112]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주보중[113]과 오평이 협의하여 김일성을 동만에 돌려보내어 요영구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반민생단투쟁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는데 민생단 투쟁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리송일과 같은 진짜 민생단의 적발은 확고하게 하지만 많은 성실한 유격대전사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114] 이는 김일성이 오평으로부터 중공의 좌적, 교조주의가 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영안 5군에서 중공당 길동 순시원 오평을 만났는데[115] 오

---

[111]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관한 연구』, p. 169~170.
[112]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121.
[113] 주보중은 소련에서 유학하고 1932년 2월에 만주성위 군위서기로 부임하였는데 주은래에 의하여 만주로 파견된 인물이다. 만주성위에서 최고위직 인물이며 동북항일연군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다.
[114]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121.
[115]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오평을 만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주보

평에게서 반민생단투쟁 사건에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득문하게 되고 곧 중단될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동만에 돌아와서 요영구회의(1935년 3월 21일)에서 이런 내용의 주장을 강하게 하여 중공당 지도부의 관심권에 들었으며 1936년 3월 2군 3사사장에 임명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500명이나 처형당하였기 때문에 동만에는 조선인 간부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이다.

요영구회의에서 항일전략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은 동만의 유격구를 해체하고 투쟁지역을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동만의 유격구가 일제의 토벌을 받아 거의 다 궤멸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적들의 일체 포위를 돌파하여 새로운 구역에 진출하여 새로운 유격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2군을 남만과 북만으로 분리하여 진출한다.

셋째, 민생단문제에 대한 중공당의 한 대책으로서 동만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여 중국인을 되도록 많이 등용하여 민족성분을 개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민생단문제이후 동만지역 조선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리도 일정한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116] 이 결정에 따라 김일성이 소속된 제2군은 북만으로 제2차 원정을 떠나게 되었다.

(6) 2차 북만원정과 공산국제 7차대회 신방침의 접수

요영구회의 결정에 따라 1935년 5.30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중 산막에 가있을 때 거기에는 국제공산당 만주특파원인 오평도 와 있었다. … 우리는 10일가량 오평과 마주 앉아 폭넓은 담론을 하였다." (김일성회고록 3권, pp. 378~379.)

[116]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 사건 연구』, pp. 197~199.

군부의 정식 성립을 선언하였다. 군장 왕덕태, 정치위원 위증민 정치부 주임 이학충, 참모장에 유한흥, 제1퇀(団)퇀장 조선인 안봉학, 제3퇀장 방진성, 제3퇀 정치위원 김일성이 임명되었다. 새로 조직된 군부와 사부의 1급영도에는 조선인이 단 한명도 없다. 산하 4개 단의 단장과 정치위원 8명중 조선인은 제1단장 안봉학과 제3단 정치위원 김일성 두사람 뿐이다. 조선사람이 배제된 탓이기도 하지만 반민생단투쟁으로 조선인은 대부분 처형되고 없었다.[117]

왕덕태와 이학충은 1단, 2단을 이끌고 남쪽인 안도 방면에서 활동하고, 참모장 유한흥은 3단과 4단을 이끌고 북쪽인 대전자 방면으로 향하였다. 김일성은 3단 소속으로서 북만원정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은 1935년 6월 하순 제2차 북만원정길에 오른다.

북만원정과 남만원정을 계기로 반민투는 약화될 수 밖에 없어졌다. 그 원인의 하나는 조선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만을 떠나 광범위한 다른 민족 거주지역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이며, 반민투 주도자들이 확신하여 오던 조직내부 민생단의 동만 일본특무조직과의 연계조직이 단절되고 그 조직기초도 크게 약화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118]

김일성의 제2차 북만원정은 제1차 북만원정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에게 큰 기회로 작용하였다. 김일성이 소속된 왕청3단과 훈춘 4단은 7월에 영안에서 5군과 만났다. 김일성은 약 7개월만에 다시 주보중과 만난 것이다.[119]

---

[117] 위의 책, p. 169.
[118] 위의 책, p. 199.
[119]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제4권, p. 178.

5군의 일부와 함께 서부파견대를 구성하여 반년가까이 액목, 돈화일대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김일성은 이 시기에 제5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보중과 친교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120]

이때 모스크바에 갔던 위증민이 1936년 2월에 만주로 돌아오면서 5군의 주보중을 먼저 찾아왔다. 북호두에서 주보중과 만나서 공산국 제7차대회 지시사항 전달하였다. 이것이 소위 북호두회의이다. 위증민이 가져온 공산국 제7차대회의 지시사항은 소위 신방침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민족간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서 조선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신방침의 내용의 핵심은 공산국제와 중국공산당이 민생단사건의 진상을 우려하여 이를 민족간 통일전선의 차원에서 중단하고 조선민족에게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35년 제7차 대표대회에서 일본제국주의, 독일파시즘 투쟁에 힘을 결집하기 위하여 해야하는데 민족간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고 여기서 나온 지시가 "조선자치 실시하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중한 연합군 건립하라, 조선사람 단독으로 근거지 세워라" 라는 내용이다.

당시까지 우리동포를 민생단으로 잡을 때, 공산국제의 신방침은 "만주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은 조선독립 위해 싸워라, 만주에서의 민족 자치를 위하여 싸워라, 한반도의 독립을 위하여 싸워라, 한반도의 독립을 위하여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은 따로 군대 세워라, 조선민족 혁명당을 세워라"는 새로운 방침은 중공당의 조선인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였다.

위증민이 이 큰 지시를 가지고 오다가 2월 7일 경박호에서 주

[120]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127.

보중을 만나서 이 사실을 전달하였다. 우리 동포들이 제일 많은 곳이 요하지방에서 최용건이 직접 세운 제7군인데 주보중이 직접 7군에 편지를 하였다. 그 다음에 위증민을 시켜서 연변문제니 동만에 가서 잘 토론하라는 지시에 따라 위증민은 2월 9일에 경박호를 떠났다. 위증민이 미혼진으로 내려오는 길에 제2군부 왕덕태와 김일성을 남호두에서 만났고 그들은 위증민의 지시에 의거 위증민을 뒤따라서 미혼진으로 왔다. 김일성은 1차 북만원정에서는 오평을 만났고, 2차 북만원정에서는 위증민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김일성이 중공당간부와 교류하게 되고 정세와 동향을 파악하게 되면서 3사사장(師長)으로 임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역사서에 남호두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남호두 회의가 열린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위증민을 남호두에서 만나서 신방침의 내용을 득문하게 된 것을 김일성이 남호두에서 군사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21]

1936년 2월 9일 위증민이 북만을 떠나서 안도현 미혼진으로 와서 3월 8일경 미혼진 회의를 주재하였다. 민족간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하고, 제2군을 민족별로 분리하는 대신에 제3사를 신설하고 한국민족혁명당 대신 조국광복회 건립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토론을 거듭한 끝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세우라는 공산국제의 신방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조선민족당을 세우는 대신 조국광복회를 세우기로 하였다. 조국광복회란 중국공산당의 극비밀적인 민족통일전선조직이라고

[121] 남임오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되어 있다. 평양에서는 김일성이 조직한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조국광복회 발기자에 김일성은 없다. 오성륜과 이동광이 발기자이다. 독립적 군대를 세우라는 공산국제의 신방침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조선민족이 따로 군대를 못세우는 이유는 1사의 경우 절반도 넘는 것이 조선족인데 진한장 2사는 핵심탄이 최현탄인데 빠지면 중국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3사를 하나 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서 3사를 신설하고 그 장에 김일성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122]

나. 2군 6사장 시기 (1936년~1940년 10월): 백두산 및 남만시절

(1) 2군 3사의 설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군 3사의 형성은 민생단사건과 관련이 있다. 민생단사건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공산국제의 대응의 일환으로서 3사가 설립된 것이다. 민생단사건을 종결짓는 방안의 하나로서 2군 3사가 설치되고 3사사장으로 김일성이 임명됨으로써 사실상 김일성은 민생단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반민생단 투쟁시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적 식견이 있는 한인지도자들이 대부분 처형되었다. 예를 들어 김명균, 김성도, 김일환, 마준, 박길, 박동근, 박두남, 이승일, 양성룡, 이상묵, 이용국, 주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말기에 사회주의운동에 눈을 뜬 새로운 청년들이 동만특별위원회와 유격대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공당의 좌경노선을 실천하면서

[122] 남임오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사회주의운동에 입문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반민생단 투쟁에서 500여명의 많은 조선족 항일지도자들이 숙청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사람 치고 글줄이나 쓰고 연설가락이나 하던 사람들은 다 잡아 없애버렸다."[123] 실제로 연변에서 높은 사람이 다 죽었고, 김일성 정도의 중하위급 사람만 살아남았다. 지휘자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 김일성은 1936년에 3사사장이 되었다.

이로써 신방침에 제시되었던 한국민족혁명군도 창설되지 않았다. 중공당 내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별 무장부대의 편성에 반대한 주보중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1) 객관적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 유격구의 확대 발전에서 투쟁이 대단히 긴박하여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2) 주관상에서 말하면 군대는 이미 민족 간격을 타파하였다. 일단 재차 군대를 구분하면 적이 이간 도발하고 (민생단사건 처럼) 민족분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용이하다. 이 두 내외 원인이 상호영향을 주었다. (3) 조선인은 동북에서 소수이고 또한 분산되어 있고 다수가 한족이어서 조선 군대가 단독 행동하면 고립되기 쉬웠다. (4) 당내에서는 또한 사상투쟁이 있었다. 당시 북만은 적극 반대하여 그들의 정책은 허무주의적인 것이고 조선족에 대하여 조선어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동만에 가는 사람 역시 직접 조선어로 말할 수 없게 하였으며 조선족의 풍속 습관 또한 한족과 동일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신방침) 결정이 만주에서는 확실히 정치선전 구호에 머물렀고 조식상의 독립을 실현할 수 없었다. (5) 이에 더하여 동만의 군대는 활동구역을 유지할 수 없었고 조직은 파괴당했기 때문에 다시 분리할 수 없었다.[124]

---

[12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4권, p. 10.

[124] 주보중의 증언;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441에서 재인용.

북만지방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격대를 민족별로 구분하려는 신방침은 실천될 수 없었다. 달리보면 제2군의 제3사 설치는 동만지방 유격대 지도자들 사이에 잠정적인 합의의 결과이지 만주 전체차원, 곧 북만지방 지도자들의 의견까지 반영된 민족별 무장부대를 편성하라는 방침의 결론은 아니었다. 이것으로 보아 제2군 3사 등이 한국민족혁명군의 일부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인만의 무장부대를 편성한다는 신방침의 결론 내지는 결과가 제3사의 결성 그 자체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한인만의 군대를 결성하는 문제는 동북항일연군의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되지 못한 채 이후에도 북만지방과 길동지구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다.[125]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독자적인 조직과 부대를 지휘했다는 북한 역사서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26]

(2) 2군 6사장 김일성 부대의 활동

미혼진회의의 방침은 1936년 5월 제2군 군사급 간부회의, 즉 동강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회의에서는 무송, 장백, 임강 등 조선과 접경한 백두산 지역에 김일성의 제3사가 진출하여 새로운 유격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제2군의 향후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6월에는 동강에서 7, 8, 9, 10단까지 조직했으며, 7월에 통화 하리에 들어가서 양정우와 만나서 남만의 1군과 동만

---

[125] 위의 책, p. 440.
[126]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의 2군이 합쳐서 제1로군을 만든 다음에 동만의 1, 2, 3사가 4, 5, 6사가 되었다. 김일성의 3사는 7월부터 6사로 개편되었다. 7단, 8단은 우리민족이며, 9단, 10단은 모두 한족이었다. 김일성은 7단, 8단만 데리고 다니고 9단, 10단은 딴곳으로 보냈다. 김일성은 조선족만 데리고 다녔고 중국인 조아범은 2군 6사의 정치위원이었는데 9단, 10단을 영솔함으로써 김일성과 부대를 나누어 각기 활동하였다. 민생단 문제로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127]

회의에서는 조광문제도 논의되었다. 재만한인 민족운동에 대한 중공 중앙의 신방침은 동강회의때부터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128]

이에 따라 조국광복회가 건립되었는데 항일민족통일전선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다 있었다. 김책은 북만에서 조국광복회를, 김일성은 남만 장백현에서 조국광복회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이 2군 6사사장으로서 본격 활동한 장백현 백두산은 밀령이 위주였다. 즉, 지하활동을 위주로 하였다. 행정조직을 일본이 통치하였기 때문에 낮에는 일본, 밤에는 조국광복회라는 특수조직으로 운영되었다.

보천보 전투

1937년 6월 4일의 보천보 전투는 신방침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 6사를 포함하여 2사, 4사 등 3개사가 전투에 참가하여 보천보를 공격하였다. 보천보는 가옥 308호, 일본경찰 5명이 상주하는 산중 마을로서 이웃에 인

---

[127] 김성호,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 p. 142.
[128]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관한 연구』, p. 175.

구 1만 3,000명인 혜산진이 있어서 보천보 공격은 이곳을 통해 바로 전국에 알려졌다. 김일성 부대는 관공서와 그 밖의 건물을 불태우고 물러났다. 5명의 경관은 도망갔기 때문에 한명도 죽지 않았고 업혀있던 경찰의 아이가 유탄에 맞아 죽고 일본인 요리집 주인이 살해되는 등 2명의 희생자가 났다. 김일성부대는 추격부대와 교전하면서 무사히 물러났다. 보천보전투 그 자체는 국내에 처음 진공하였다는 상징적 의미외에는 일본 경찰의 사상자도 없는 등 별 전과는 없는 전투였는데, 그 이후 일본 경찰의 추격전으로서 간삼봉전투까지 이어져서 일본측의 피해가 커졌다. 이 전투를 계기로 김일성의 이름은 신문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129]

혜산사건

혜산사건은 보천보 전투의 후과이다. 보천보 전투를 계기로 동북항일연군은 궤멸의 길로 들어갔다. 김일성에게는 국내에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부대는 일군의 총반격을 자극시켜 궤멸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혜산사건으로 불러지는 조국광복회원 일망타진 사건이다. 장백현 근거지 739명이 체포되어 조국광복회가 해체되었으며, 장백현 근거지가 붕괴되었다. 1938년이후 투쟁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 보천보전투를 전후한 김일성의 지도는 정치적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준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130]

---

[129]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p. 49~50.
[130]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p. 180.

고난의 행군 (1938년 12월~1939년 3월까지, 100일간)

일본군은 1938년부터 3성 연합토벌을 전개하였다. 길림성, 간도성, 통화성에 관동군, 경찰 7만여명을 동원하여 1로군을 토벌한 결과 장백현 일대에 1로군이 소멸되었다. 제1로군 제1사사장 정빈이 1938년 6월 29일 투항함으로써 군사조직의 비밀이 탄로났기 때문에 위증민은 1938년 7월에 제2차 노령회의를 열고 긴급히 제1로군의 조직과 활동을 개편하여 1로군을 3방면군으로 개편하였다. 김일성은 이 사실을 11월 28일 하리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던 양정우를 만나서 남패자에서 제2차노령회의의 결과를 통보받고 제2방면군장으로 임명받았다. 제2방면군을 편성하였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제2방면군 군장으로 활동하였다.

1사사장 정빈이 일본에 투항한 이후 1로군은 위기에 처하였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1940년 2월 20일 제2방면군 참모장 임수산의 투항하여 임수산공격대를 조직하여 김일성 토벌에 종사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은 40년까지 포위되어 있다가 빠져나왔다. 즉, 장백현 근거지에서 안도, 화룡, 돈화 등 연변으로 이동하였다. 연변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부대는 마에다 부대 토벌대에 쫓겨 막다른 골목까지 후퇴하다가 전략을 바꾸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추격군을 습격하여 마에다 부대를 거의 전멸시켰다. 이것이 1940년 3월의 화룡현 홍기하전투이다. 이 전투로 김일성이 곤란하게 되었다. 마에다 부대 전멸이후 토벌군의 추격이 더욱 거세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대부분의 전투는 식량과 군수품을 얻기 위한 전투였다. 일제는 유격대에게로 군수품이나 식량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가에서도 신발을 두켤레이상 구입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통제가 심하였다.

(3) 동북항일연군의 궤멸과 소련으로의 월경

1940년에 들어와 동북항일연군 각 부대는 일본과 위만군의 대토벌 투쟁에서 아주 큰 손실을 입었고 좌절을 경험하였다.[131] 일군의 토벌에 대부분의 대원들이 사망하였고 일부는 일군에 투항하였다. 1로군은 사분오열되었다. 1940년 초 동북항일연군은 거의 완패했다.[132] 대부분의 동북항일연군 지도자들은 전사하였다. 주보중 등 수명만 살아남았다. 김일성의 직속상관인 제2군사령관 왕덕태는 1939년 5월에 몽강현에서 전사하였다. 동북항일연군 총사령관 양정우는 1940년 2월 20일 전사하였다. 양정우가 희생되자 위증민이 후임으로 되었으나 위증민은 1940년 3월에 전사하였다. 제3로군 사령관 조상지도 1942년 2월 전사하였다. 김일성은 백두산 밀영에서 유격전을 했던 것이 죽지않고 생존할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였다. 항일연군의 다른 부대들은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기에 쉽게 노출되어 전사하기 쉬웠고, 실제로 많이 전사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안도현과 무송현에 120명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인 진한장은 돈화지구에 70여명을, 전광은 화전현에 약 20명, 조아범, 최현, 한인화는 왕청, 화룡, 연길 등의 여러 현에 산재하는 약 160여명정도의 병사들이 있었다.[133] 위증민이 죽은 후 이들 제세력들은 모두 주보중이 지휘하고 있는 제3로군에 가담하기 위하여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하였다가 1940년말에 하바로브스크로 철수하였다.

1940년 2월 23일 제1로군 총사령 양정우가 사망하자 위증민은

---

[131] 최성춘, 『연변인민항일투쟁사』(연변: 민족출판사, 1999), p. 361.
[132]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 p. 265.
[133] 위의 책, pp. 264~265.

3월 중순경 화전현 두도류하에서 제2차 두도류하회의를 열고 소부대 형식의 활동 및 무장부대의 중·소 국경지대로의 이동을 결정하였다.[134]

김일성은 이 방침을 7월초에 알았다. 김일성이 직접 작성한 1941년 9월 30일자 문헌에 의하면 1940년 7월 김일성은 동화현 한총구에서 위증민과 만난 일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소할바령회의에서 이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증민의 두도류하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김일성은 1940년 8월에 강위룡 등 16명과 함께 소련으로 들어갔다. 가는 도중에 훈춘의 어느 산꼭대기에서 김일성은 김정숙과 결혼하였다. 최근까지 생존해있는 사람 중에 여영준, 서순옥 등이 증언하였다.[135] 주보중 일기 1940년 12월 11일자에 따르면 김일성이 16명을 거느리고 10월(음력 9월23일) 훈춘을 경유하다"고 씌어 있다. 결국 김일성은 1940년 10월 22일 또는 23일경에 월경했다.[136]

(4) 소련에서의 야영생활

40년에 소련 연해주에 들어간 이후 동북항일연군이 1941년에 항일연군 교도려 또는 88여단 지대를 편성할 때 김일성은 제1지대 지대장이 되었고 후에는 제1영 영장으로 되었다.[137] 당시 88여단은 4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단장은 주보중, 1대대 대대장 김일성, 참모장 안길, 2대대 대대장 시세영(5군장), 참모장에 강건

---

[134] 『영변당사: 사건과 인물』(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88), pp. 229~230;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관한 연구』, p. 183에서 재인용.
[135] 남임오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136]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관한 연구』, p. 184.
[137] 남임오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강신태), 3대대 대대장에 000, 참모장에 김책, 4대대 대대장에 강건이 임명되었다. 최용건은 중국공산당 동북당위원회 서기로 조선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총 인원은 1천명이었다.

남야영에 1로군 (2, 3방면군), 북야영에 2로군, 3로군이 배치되었다. 김일성은 남야영에 속하였다. 조선사람이 170여명있었다. 김일성은 단 한번 만주에 소부대활동을 나왔었는데 1941년 4월(음력)에 위증민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위증민을 혼자 두고 소련으로 월경한 것에 대하여 주보중이 김일성을 크게 문책하였으며, 위증민이 적절한 처벌을 내리라는 주보중의 편지를 휴대하고 나왔었다. 그러나 위증민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138]

연해주에서 1942년 김정일이 출생하였다. 출생지가 소련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주보중의 맞딸과 동갑이며 같이 자랐다고 한다.

연변에는 진짜 구호나무가 3개 있는데 연변 박물관에 3개를 보관하다가 1956년에 조선에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김일성대학에서 구호나무 사진을 가져왔는데 200여개나 되었으며 그 중에 김정일 동지 만세, 김정숙 동지 만세의 것은 모두 거짓말이이라고 한다.[139]

(5) 귀국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자 1945년 7월에 조선공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일성, 최용건, 김책 3인 핵심소조로 구성되었으며 공작위원회 단장에 김일성이 임명되고

---

[138]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139]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당책임에 최용건, 행정책임에 김책이 임명되었다. 조선공작위원회는 김일성의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동북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소련의 지휘를 받았다. 즉,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 중국공산당 동북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당시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못하는 상황이었다. 직접지시는 소련공산당의 지휘를 받았다. 중국공산당 동북당위원회 결정으로 김일성이 조선공작위원회 단장으로 선임되었다.

1945년 소련 홍군이 선전포고할 때 김일성이 같이 나오려 했으나 소련이 국제관계 때문에 주저하였다. 즉, 장개석 국민당정권이 중국공산당 군대가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소련과 중국국민당과의 조약때문이다. 김일성은 일본이 패망하고 퇴각한 뒤인 1945년 9월 19일에 소련함대를 타고 원산항으로 입국하였다.

제4장

1930년~1940년대 화북지역 조선의용군의 항일운동

1. 조선의용군의 의의

조선의용대는 김약산(김원봉)이 주도하여 1938년 10월 창설한 우리민족의 항일부대이다. 김약산의 국민당 계열과 최창익의 공산당 계열의 두 분파가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였는데 결국 숫적으로 다수였던 최창익 계열이 이탈하여 공산당 팔로군 지역으로 이탈하여 조선의용으로 개편되었고 김약산은 중경 임시정부의 광복군 1지대로 배속되었다.

조선의용군은 만주의 동북항일연군이 패망하여 소련으로 월경하는 시점에서 관내에서 형성되어 일본패망 시점까지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우리민족의 항일역사이다.

조선의용대의 정통성은 숫적으로 많은 공산당계열의 조선의용군이 맥을 잇게 되었으며, 일본이 패망한 뒤, 간부의 일부는 북한에 입국하여 연안파가 되었고, 나머지 병력은 만주로 진출하여 동북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 동포청년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수만명으로 확대하여 국공내전에서 공산당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중국의 국공내전이 공산당 군대의 승리로 끝난 다음, 조선족으로 조직된 동북 조선의용군 부대들은 김일성의 요청으로 6·25전쟁 직전까지 3개사단과 여러개의 독립연대·대대로 밀입북하여 조선인민군으로 개편되어 6·25남침에 참가하였다.

이처럼 조선의용군은 항일전쟁, 중국의 국공내전,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3대 전쟁에 참전하였던 매우 중요한 무장집단이다. 그런데, 전쟁이후 북한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조선의용군의 대명사인 연안파가 모두 숙청되고 난 다음 북한에서는 조선의용군의 역

사적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 만주의 김일성이 참여하였던 항일연군만 일본과 무장투쟁을 한 유일한 부대로 왜곡되었고, 동북항일연군도 역사상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불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해방전 조선의용군이라는 해외독립운동 무장집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광복직전, 해외에서 활동한 무장집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의용군의 인원이 가장 많았고, 조직단결이 제일 잘 되었고, 부대의 정신교양사업을 제일 잘 하였으며, 반일활동을 제일 활발히 했다는 것이 사회적 공론으로 평가되고 있다.[140]

鐸木昌之는 독립동맹·조선의용군은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활동이 좌절된 후 중국에 살아남아 있던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자의 정치조직이었고 무장조직인 조선의용군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해방후 북한에서 조선신민당으로 재편된 독립동맹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북조선 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의 유력한 모태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독립동맹 운동이 한국민족해방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141]

2. 조선의용군의 형성

1937년 7월 일본이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전 중국에 대한 침략

---

[140]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p. 36.
[141] 鐸木昌之, "잊혀진 공산주의자들-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이정식·한홍구, 『항전별곡』(서울: 돌베개, 1986), p. 55.

과 함께 만주항일연군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여 동북항일연군도 존재하기 어려워지자 잔존 병력이 소련땅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만주땅에서는 조선족 유격대를 포함하여 일본을 반대하는 총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국외의 반일독립운동기지 중에서 제일 광범위하고 중요한, 만주의 반일운동이 소멸되고 난 다음, 살아남은 반일투사들은 일부가 소련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은 만주 땅에서 순민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적지 않은 애국투사들이 산해관 관내로 항일무장투쟁의 활로를 찾아 들어갔다.

관내로 모여든 애국투사들의 사상과 정치 신념은 각기 다른데 우선 10여년 동안 상해임시정부가 명맥을 이뤄왔기 때문에 임정과 합류하는 인사들도 있었고, 또 사상과 이념에서는 민족주의를 신봉하지만 투쟁방식이 달라 독자노선을 주장하고, 여러 독립단체를 조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열단 계열에 많은 청년지사들이 모였다.[142]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약산(김원봉)이다. 김약산은 중국 동북 길림에서 1919년 의열단을 창립하여 암살 파괴를 하면서 일본의 침략행위에 저항운동을 시작하였던 인물이다. 일제가 김약산에 대한 지명수배령을 내려 활동이 어려워지자 1925년 의열단의 투쟁방식을 바꾸어 군사간부를 훈련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1926년 많은 단원들을 데리고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항일투쟁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1931년 9·18사변이 나자, 한국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1932년 11

[142]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 37.

월 10일 김약산은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여 총서기를 담당하게 되었다. 관내에 모여든 많은 애국투사들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여러 계파가 혼합되었고, 중국의 국공합작이라는 대세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반일통일전선의 형태로 1937년 11월 조선민족전선련맹을 결성하고, 김원봉을 수반으로 추대하고, 국민당정부 장개석의 비준을 얻어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무한시에서 조선의용대가 창건되었다.[143]

그러나 처음부터 모순과 분열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조선의용대 창건 후 불과 몇 달만이 그해 12월 최창익을 필두로 하는 공산계열이 중경을 떠나서 태행산 공산당 항일근거지로 들어가서 조선독립동맹과 화북조선의용군을 설립하였다.

이 당시 조선인 민족운동가들은 중·일간의 전면전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이 전쟁은 민족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가령, 김원봉은 조선 국내혁명동지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중국이 승리하는 날에는 조선의 독립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144]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설립된 다음 진동남(晋東南) 지구 태항산을 중신으로 진찰기 지역, 만주와 인접한 기동 지역, 산서성 서북부의 진 서북 지역, 강소성과 안휘성의 중원지역, 산동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의 항일근거지에서도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지대가 창설되었고, 현지 공산당의 직접지도와 현지 팔로군 부내와 신사군 부대의 지휘를 받으면서 활발한 항일활동을 전개하는

---

143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32.

144 金若山, <告朝鮮國內革命同志書> <조선민족전선> 제2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제2집, 1988), p. 167;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서울: 나남출판, 2001), p. 4에서 재인용.

동시에 자기 세력을 부단히 확대하게 된다.

1940년 11월 4일 조선의용대는 중경의 총대본부에서 각 지대 분대장급까지 참가한 제1차 간부 확대회의를 열고 지난 2년간의 항일투쟁경험을 검토·평가한 후 조선인 동포 다수 거주지역이며 중국 공산당 팔로군 지구인 화북으로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민당 장개석 정부의 소극적 항일과 적극적 반공 노선에 비하여 모택동 공산당 팔로군의 적극적 항일노선 때문이며, 중국공산당의 조선의용대에 대한 관심과 인도도 화북으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화북지구에는 조선족이 약 20만명이나 거주하고 있는데 비하여 화남지구에는 1만 5,000명밖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화북에로 투쟁의 근거지를 옮긴 것이다.[145] 이 결정에 따라 조선의용대의 대다수 대원들은 1941년 4월부터 6월까지 화북 적후에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팔로군 활동지역으로 옮겨갔다.

1942년 7월 11일~14일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화북 적후지구,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팔로군 활동지구, 산서성 태행산 모 지역에서 제4차대표대회를 열고 중국 팔로군 부총사령 팽덕회가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의 대표로 축사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조선독립동맹으로 고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석은 김두봉, 부주석에 최창익, 한무, 집행위원에 무정, 허정숙, 이유민, 박효삼, 박일우, 김창만, 양민산, 주춘길, 우만용, 하앙천, 이춘암, 장진광, 김호 등이다. 조선의용군 사령은 무정이고, 부사령은 박효삼, 박일우이다. 이들이 해방후에 북한에 입국하여 연

[145]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p. 150~155.

안파가 된 사람들이다.[146]

화북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와 여러지구에 분맹을 설치하였다. 1942년 11월에 진서북분맹, 1943년 9월에 기열료분맹, 그해 여름에 평서분맹, 1944년 1월에 악예, 회북, 회남, 소중, 절동 등 분회가 합쳐 화중분맹이 세워졌으며, 1945년 5월까지 화북, 화중 각지에 9개의 분맹이 세워졌고, 1945년 6월에는 동강(화남)분맹이 세워졌다. 각 분맹은 산하에 각각 의용군지대르 두었고 분맹 맹원은 거의다 의용대원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의용군은 관내 조선민족반일무장투쟁의 골간적 기본적 역량으로, 중국 항일전쟁에서의 한개의 강력한 반일무장대오로 성장되었다.[147]

인재양성을 위하여 군정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처음에는 학교명칭을 화북조선간부 훈련반으로, 다음에는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로 불렀으며 교장 김두봉, 부교장 박일우, 교무주임 장지민이 담당하였으며 1944년에는 학교명칭을 화북조선혁명군사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무정이 직접 교장직을 맡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역임하였다. 그 결과 수십명으로 시작한 청년연합회는 광복직전 독립동맹 가입자가 2,000명으로 불어나고, 100명으로 시작된 조선의용군도 800명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이 패망할 시점,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반일투쟁을 하고 있던 집단중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고, 조직이 제일 건실하며, 구성원들의 문화수준이 제일 높고, 항일무장투쟁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무장집단이 조선의용군이다.[148]

---

[146] 楊昭全·李輔溫, 『조선의용군 항일전사』, p. 196.
[147]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59~160.

3. 조선의용군의 활동

국민당 지구 시기의 2년과 그 이후 팔로군 지구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지만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적군 반일선전사업

대원들의 지식수준과 군사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미국 유학생, 일본유학생, 상해 프랑스학교 졸업생이 있어서 외국어에 능했으며 특히 일본어를 능숙히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대일선전전에서 그 어떤 중국 군대들도 비길 수가 없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용대의 활동중에서 성과가 가장 크고 제일 특색있는 반일투쟁은 적군에 대한 정치선전공세였다. 조선의용군은 표어를 붙이고 빠라를 뿌리며 소책자를 만들고 적에게 방송을 하며 특히 전선진지 가까이에서 적들에게 정치선전을 하였다.

선전방식은 주로 적진과 100여미터, 심지어는 20여미터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여 양철로 만든 나발통이나 확성기가 달린 메카폰을 들고 함화, 연설, 설전,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재담을 하는 방식, 적진이나 적후에 침투하여 삐라, 소책자, 통행증을 살포하고 표어, 만화, 인형을 붙이기도 하고, 계림과 중경에서는 일본말 방송을 하는 등 매우 다양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조선의용대는 창건된지 2년여 간에 일본문, 중문, 조선문으로 된 팜플렛 5만여권, 삐라 50여만장, 통행증 1만여장을 인쇄하여 살포하

[148]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 45.

였고, 표어 40여만장을 붙였다.[149]

그들은 이러한 선전을 통하여 일본 재벌, 군벌들이 조선침략을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중국과 조선에서의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였다. 동시에 그자들의 일본 인민에 대한 죄행도 폭로하고 많은 일본 병사들로 하여금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비정의성을 인식하게 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과 일본 재벌, 군벌들의 이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비참한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하였다. 이로써 일본군을 동요시키고 그들의 투지를 상실케하여 적지 않은 일본군들의 시체에서 조선의용군이 뿌린 '통행증'(투항의향서)를 간직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일본군들은 일기중에서도 조선의용군의 선전이 그들의 투지를 상실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많은 일본군 포로들이 조선의용군의 교육을 받고 전향하여 항일투사가 되었으며 한·중 군대와 함께 일본침략자들에게 대항하였다.[150]

(2) 항일군민에 대한 선전사업

조선의용대는 항일군중과 우군의 반일의식, 애국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조·중 민족의 우호관계와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일군민에 대한 선전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주로 출판물과 방송 매체를 이용하였다. 출판물로는 잡지, 신문, 소책자가 있는데 중국어, 조선어로

---

[149] 『중·조친선 100년 사화』(연변: 연변인민출판사, p. 126);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37~138에서 재인용.

[150] 楊昭全·李輔溫, 『조선의용군 항일전사』, p. 217.

되어 있다. 의용대 본부에서 <전고(戰鼓)>, 제1지대에서 <전강(戰崗)>, 1지대 3분대에서 <화중통신>, 제2지대 1분대에서 <조선의용대 한수판>, 2분대에서 <조선의용대 황수판>, 3분대에서 <조선의용대 화북판>, 제3지대에서 <강남통신>을 각각 내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매일 2회씩 조선 국내와 중국 및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장, 단파로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선전은 중국, 조선 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에 있는 조선인 동포들에게도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 결과 1939년 4월에 뉴욕에서 맨먼저, 그 뒤 9월에는 로스엔젤리스에서, 10월에는 시카고에서 가각 조선의용대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 이듬해 4월에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연합회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참가인원은 로스엔젤레스에서 71명, 뉴욕에서 45명, 시카고에서 40명 도합 156명이었다. 그들은 또 기관지로 <의용보>를 창간하고 뉴욕, 하와이, 그리고 쿠바 등지에 지국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에서 반일선전과 반일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대를 위해서 후원금을 거두는 등 물심량면으로 조선의용대를 적극 원조하였다.

중국군민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선의용대는 중국어로 된 신문, 잡지를 출판·배포하기도 하였으며, 강연회, 오락회, 공연, 소학교 설립, 그리고 노래와 항전가요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항전가요의 예로 우리조국 지켜가세, 고향을 지키세, 중화민족은 망하지 않으리, 의용군 행진곡, 돌아가자 동북으로, 아리랑, 유격군 등을 배워주었다. [151]

[151]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44.

(3) 국제 선전사업

조선의용군은 조선민족독립운동을 당시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일부분으로 되게 하여 국제성을 가지도록 하여 중국, 미국, 영국, 소련 등 세계 주요 반파시즘 인민과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받도록 하였다.[152]

가령, 조선의용대는 1939년 2월 8일 대만독립혁명당과 게림에서 공동으로 기자초대회를 가졌는데 미국, 프랑스, 소련 기자, 일본 작가, 국민당 서남행영정치부, 5로군정치부 대표 등 3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선의용대 정치조 조장이며 대회 사회자인 김규광이 일제에게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민족의 참상과 중국 항전에 참가하고 있는 조선의용대의 실상을 알렸다.[153]

(4) 조선의용군의 대일 전투

조선의용군은 순수한 전투부대가 아니었으므로 참전회수가 그리 빈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팔로군, 신사군과 배합하여 유격습격전, 매복습격전을 벌리고 무장선전과정에서나 근거지 내의 반소탕 투쟁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 또한 수시로 유격공작대나 정보원, 지하공작원을 적군에 잠입시켜 일제의 정치,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적군의 군사시설, 병력배치 정황을 정찰하고 적군의 군심, 민심동태 조사 등의 활동도 많이 하였다.

---

[152] 楊昭全·李輔溫, 『조선의용군 항일전사』, p. 217.
[153]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47.

(5) 적구(敵區)조직활동

적구 조직활동은 일본군이 점령한 도시와 농촌에 잠입하여 독립동맹과 의용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적구 조직활동은 팔로군의 활동이 강화된 194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무정은 태항산에서 적구 공작반을 조직하고 화북의 도시와 농촌 그리고 만주와 조선 국내에 다수의 공작반을 파견하였다. 그 결과 북경, 천진 등 여러도시에 독립동맹 분맹이나 소조를 결성하였으며 화북농촌지역의 조선인 사이에서도 독립동맹, 의용군의 존재가 점차 크게 확대되었다. 적구조직공작의 결과 일제 패망후 화북농촌의 조선인들 다수가 의용군에 가담했으며 농촌의 물자는 의용군에 많이 공급되었다. 특히 북만주에서는 이같은 적구공작을 바탕으로 하여 일제 패망 직후 독립동맹이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154]

(6) 간부양성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간부 육성을 활발히 하여 조직확대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1년 8월에 태행산(太行山)에서 임시기구로 간부훈련반을 개설하였고 1942년 7월부터는 상설학교를 개설하여 신입대원들에게 군사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4년 이후부터 독립동맹·의용군은 연안, 태항산, 산동, 화중 등 각지에서 조선군정학교를 설립하여 수준 높은 정치·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1945년에 들어와서는 각지에서 활동하던 의용군 대

[154]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p. 344.

원들을 이 군정학교에 집결시켜 교육하였는데 각지 군정학교에 소속되었던 의용군 대원수는 850명 내외로 추정된다.·[155]

4. 일본 패방이후 조선의용군의 활동과 입북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일본의 항복소식을 듣고 당면한 과제는 하루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의문점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이 당장 귀국하는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조선의용군이 화북지대로 편성된 다음부터 중국공산당의 완전한 통제와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군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실하였고, 둘째, 독자적 행동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북 각지에 분산된 몇백명의 조선의용군이 만주나 연해 항구로 이동하는데는 상당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공산당 중앙의 최고지도자들이 앞으로의 국공내전과 특히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요충지였던 만주 선점 전략을 염두에 두고 조선의용군의 만주 집결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전 조선의용군은 만주 봉천에 집결하였다. 조선의용군의 만주 집결 병력은 850명에서 860명정도이다. 만주 봉천에 집결한 동북조선의용군의 금후 행동방침으로 중공중앙 동북국의 결정에 의해서 세 가지 지침이 하달되었다.[156]

첫째, 조선독립동맹 지도부와 조선의용군 일부 간부들은 즉시

---

[155] 위의 책, p. 346.
[156]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 80.

북한으로 귀국한다.

둘째, 조선의용군 나머지 간부와 대원들은 중국에 남아서 지역을 분할하여 부대를 확대하고 우리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셋째, 남만, 북만, 동만으로 구분하여 각 지대를 편성하고 주요 책임자를 임명한다.

이 방침에 따라 독립동맹 전체 중앙집행위원과 입북한 간부들은 귀국을 서두르고 각 지대는 임명된 간부들의 지휘로 각 지대별 행동이 시작되어 동북조선의용군의 통일적인 지휘 기구는 소멸되었다.

첫째 방침에 따라 조선의용군의 주요 간부가 그해 연말에 북한에 1차로 입북하였다. 북한에서 연안파로 불리게 되는 이들의 명단은 김두봉, 최창익, 한빈, 방우용, 고봉기, 김민산, 진반수, 박무, 혼순관, 하앙천, 장진광, 허정숙, 김영숙, 장수련, 무정, 박효삼, 김창만, 이춘암, 주춘길, 유신, 김세광, 손달, 양계, 이림, 김한중, 이지강, 이철중, 장중광, 장중진, 장지민, 장지복, 주혁, 진국화, 최봉록, 최영, 하진동, 완련, 김철원, 풍중천 등이다.

1946년 개별자격으로 입북한 2차 입북자 명단은 박일우, 이익성, 이권무, 조렬광, 김응, 주연, 이상조, 김연, 이근산, 공호, 박훈일, 최명, 한경, 김택, 장평산, 이덕무, 이대성, 김신, 김흥, 이명선, 최계원, 이동호, 윤치평, 구재수, 김오진, 김수만, 유원천, 김종원, 김병권, 김병헌, 이원영, 조병룡, 채국반, 이명, 이유민, 왕자인 등이다.

입북하지 않고 중국에 남은 나머지 간부와 대원들은 국공내전에 참전하기 위하여 부대가 재편성되었다. 부대가 재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병을 확대하여 국공내전에 참여한 조선의용군은

총 122,000명이다. 연변지구 43,000명, 남만지구와 길림남부 지구를 포함하여 40,000명, 길림북부지구 14,000명, 원송강성지구 18,000명, 흑룡강성 등 기타지구 7,000명이다. 당시 만주 교포의 인구가 110만~120만으로 볼 때 10%가 국공내전에 참군하였다. 해방직후 만주 인구가 3,600만으로 중국사람이 참군한 수가 3%인 100만명과 비교한다면 우리 동포의 참군 수는 놀라울 정도이다.[157]

중국에 남은 조선의용군의 대부분은 국공내전에 참군하였으나 일부 부대는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조기에 북한에 입국하였다. 최초로 밀입북한 부대가 훈춘보안단 2,000여명이다. 그리고 조양천 교도대대 조선족 졸업생 500명이 1946년 6월 입북하였다. 이들은 북한에서 조선인민군의 중·하위 장교의 골간이 되었다.

중국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끝난 다음 1949년 7월부터는 조선족 부대 전원이 입북을 하게 된다. 1950년 6·25전쟁 직전가지 입북이 계속되고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조선족 무장부대의 밀입북은 계속되었다. 국공내전이 끝난 다음 공산당 군대는 국민당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병력수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김일성에게 남침 전쟁의 야망을 자극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 김일성과 김일성의 밀사들이 북경과 모스크바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1949년 5월 김일성의 특사 김일이 북경을 비밀 방문해서 중국 조선족부대의 조선인민군 편성을 제기하자 모택동은 즉석에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두개 사단은 지금 당장 입북이 가능하고, 기타 조선족 부대도 중국 내전이 기본적으로 끝나

[157] 위의 책, p. 118.

면 북으로 북으로 귀국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처럼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3자의 양해와 타협으로 중국의 조선족 무장부대 즉 조선의용군의 밀입북이 시작되고, 3개의 사단과 여러개의 연대규모 병력이 입북하여 인민군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병력의 총수는 55,000명에서 60,000명 정도 된다.[158]

[158] 위의 책, p. 142.

제5장

소련군정에 의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神話化)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정권이 소련에 의하여 수립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련이 군사적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하였고 소련에서 500여명의 고려인들을 차출하여 정권수립의 실무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소련군 88여단에서 김일성을 차출하여 최고지도자로 옹립하였다. 김일성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빨치산파를 지배적 집단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육성하였다. 또한 소련은 빨치산파가 지배적 집단으로 안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새정권의 정당성의 논리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소련의 계획과 노력이 오늘날 북한체제의 뿌리가 되었고 골간이 된 것이다. 즉, 소련이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행한 역할은 이처럼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역할에 대한 자료가 많이 공개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소련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소련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가령,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을 소비에트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김일성 자력혁명 발전의 관점으로 북한체제의 형성을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후자는 북한 당국의 공식입장이지만 국내와 일본의 일부의 연구중에는 이를 은연중에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가령 와다 하루끼의 연구가[159] 김일성 자력혁명발전론의 전형적인 예이다. 와다 하루끼는 유격대국가론이라는 개념으로 김일성 일파인 빨치산파들이 자력으로 경쟁세력을 제거하여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들의 논리에 따라 체제를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김일성의 자력혁명발전의 관

[159] 와다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점을 지지하는 관점이다. 김일성의 빨치산파가 자력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체제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와다하루끼의 관점으로는 초기에 김일성이 어떻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최고지도자가 된 뒤 어떻게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체제의 형성에 관한 소비에트화 관점은 북한에서의 인민정권 수립과정은 소련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른 정치과정으로 이해한다. 김일성의 권력장악에 대해서도 소비에트화 관점은 소련이 김일성을 옹립하여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키웠다는 관점이다.

그에 반해서 김일성 자력혁명발전론은 김일성이 조직 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이 "첫 민족해방전쟁, 혁명전쟁으로서 조국해방의 최후 승리를 이룩한 역사적 대사변"이며 나아가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이 정권수립의 역사적 뿌리였다고 설명한다.[160] 즉, 김일성의 자력혁명발전의 관점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토대로 그 세력이 북한을 해방하여 북한정권을 수립하였다는 관점이다.

김일성 혁명발전론에 입각한 북한의 주장은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여 소련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대거 동원하여 친소정권을 수립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역사왜곡이지만, 1948년 소련군 철수이후 김일성이 북한체제의 형성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비에트화의 관점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소련이 북한의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기에 김일성이 정권초기부터 정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

---

[160]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I : 건당·건국·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pp. 18~21.

고 소련 군정 철수이후에도 김일성이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

소비에트화의 관점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최고지도자로 육성되고 빨치산파가 지배적 세력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이 어떻게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고 실천하였는지를 논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장은 소련이 김일성을 최고지도자로 옹립하고 그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빨치산파들을 지배집단으로 육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련의 북한 점령과 친소정권의 형성

일제 패망과 더불어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대가 북한지역을 소비에트화하여 친소정권을 수립하였다는 것은 소련에서 공개한 공식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다.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배권 확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동북아에 대한 지배권 확장, 부동항의 확보, 미국에 대한 견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이 북한에 친소정권을 수립하였다는 것은 당시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한 소련파 고려인들의 증언, 당시 소련 담당자들의 증언, 최근 공개된 소련의 공식 문헌에서 잘 드러나 있다.

소련이 북한에서 친소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기구를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

들을 소련을 지지하는 인물로 채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현지 공산주의자들에 의지하여 공산화를 추진할 수 없었던 북한 상황은 소련의 전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운동이 아주 미약했기 때문이다. 1925년 창당된 조선공산당은 자체내의 파벌싸움으로 인해 코민테른의 특별결정에 의해 1928년 해산되었다. 또한 철저한 일본 경찰의 통제와 극심한 탄압 때문에 비합법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주로 서울과 한반도에서 보다 발전된 지역인 남부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그 결과 소련 군정당국은 북한점령 초기부터 심각한 간부요원 문제에 직면하였다. 즉 북한에는 책임있는 직책을 맡길 만한 현지 공산주의자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161]

초기단계에서 소련 군당국은 당시 평양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가였던 조만식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가을 소련군 장교들은 조만식이라는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를 여러차례 만나서 구성중인 행정기구의 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섭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소련 군정당국은 현지 민족주의자들과의 제휴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만식을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162]

그래서 소련은 북한 정권의 간부들을 대거 소련에서 데리고 왔

---

[161]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오름, 1995), p. 104~105.

[162] 위의 책, pp. 68~70.

다. 소련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 차출해 온 것이다. 소련의 고려인들이 북한에 오게 된 것은 3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해방직후 소련 군인의 신분으로 소련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이며, 두 번째 그룹은 1945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징병업무를 관할하던 특수기관인 군사동원부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허가이를 포함하여 모두 12명으로서 군인처럼 징집되어 1945년 10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를 출발하였으며 북한으로 파견, 제25군 참모부 관할하에 두었다. 세번째 그룹은 1947년이후 기술전문가 혹은 정부기구내 각 분야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들이다.[163] 소련파중에서 가장 거물급은 허가이이다. 그는 1945년 11월에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지도적 역할을 맡았으며, 1945년말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북조선 공산당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는 소련파 한인들 중에서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국가기관 창설 작업에 직접 참여한 최초의 인물이다.

소련파가 숙청되던 1955년 10월 당시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을 지냈던 정상진의 증언[164]에 의하면 소련에서 북한으로 나갔던 고려인 간부는 428명이며 1955년~1956년 숙청당할 때 까지 이들 소련계가 북한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의 각 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는데 각 부처의 차관직을 차지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즉, 각 부처의 실세는 소련파 고려인들이었다. 정상진의 증언에 의하면 각성의 부상으로서 북한 정국의

---

[163] 소련파 형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정상진 (1955년 10월까지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 북한에서의 이름은 정율) 2004년 5월 3일~5월 10일 면접; 2006년 10월 13~14일 재차 면접.

[164] 정상진 인터뷰, (2004년 5월 3일~5월 10일).

실무자 실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20명이었다고 한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가이를 비롯하여, 문화성 부상 태성수, 육군대 부총장 기석복, 선전성 부상 정상진, 최고재판소 부소장 김봉철, 임업부 부상 이용석, 내무 부상 방학세, 외무 부상 박동추, 법무 부상 김택영, 러시아담당 서기 문예리(문일), 교통 부상 박의왕, 고급당학교 교장 김승완 등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허가이는 1953년에 김일성에 의하여 자살을 위장한 방식으로 살해되었다. 허가이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김일성은 허가이를 가장 먼저 제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군부대에도 소련 고문이 있었다. 책임자 자리에는 전부 김일성 계열을 앉혔지만 실세는 소련파들이었다. 당시 군부의 인사들로서는 최용건, 최현, 김책 등인데 오랫동안 빨치산활동을 하던 사람들로서 대개는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정상진의 증언에 의하면 최현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165]

대체적으로 소련파 한인들은 각종 기관의 장으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소련의 지배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제2인자'로 있었으나 실권자였기 때문에 제반 조직 활동을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일이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1950년 북한 정부의 각료중 3명의 부장만을 소련파가 차지하였으나 부부장급은 6명이나 되었다.[166]

소련파가 결국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창설한 실무자들이다. 정

---

[165] 박창욱 (한국전쟁 당시 조선족으로서 북한군에 지원하여 참전) 인터뷰, (2004년 2월).

[166] 정상진 증언;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p. 150.

추[167]의 증언에 의하면 소련 독재체제를 북한에 옮긴 사람이 소련의 고려인들이라고 한다. 소련의 사상체계 등 소련체제의 산물을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특히 소련에서 스탈린 독재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간 사람들이 북한에서 독재를 그대로 구축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북한 국가를 만든 것은 의미있지만 독재를 만든 것은 죄악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소련에서 파견된 간부들은 원동의 고려인 혁명가들이 스탈린에 의해 탄압, 총살, 유형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에 갔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탈린의 탄압정책을 실제로 체험하여기 때문에 말로 표현은 못하였지만 스탈린 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는 있었다. 가령 정상진의 경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1937년 이전까지는 공산주의가 이상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부친이 1937년 스탈린체제에 의해 처형된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스탈린체제가 자기 부친을 총살한 것은 곧 자신에게 있는 공산주의 이념을 총살한 것이었다고 한다.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은 소련을 지지할 수 없다. 3일 동안 기한을 주고 손에 들수 있는 것만 들고 차에 타게 하였으며, 한 달동안 중앙아시아로 이동해 갔으며 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중에서 지도자급 고려인들은 안전기관에서 붙잡아갔으며 모두 처형되었다고 한다.[168] 스탈린 체제에서 그러한 참혹한 경험을 한 고려인들이 북한으로 차출되어 스탈린 체제를 이식하는데 복무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들은 스탈린 체제에 의하여 또한번의 '강제이주'를 당한 셈이다.

---

[167] 정추 (북한 러시아대 학생, 문예총 작곡가 동맹 맹원, 모스크바 유학중 1956년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사건으로 귀국 포기) 증언.

[168]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2. 소련의 김일성 옹립과정

소련의 북한 점령의 의도가 친소정권 수립이라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소련이 친소정권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발하여 육성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김일성의 선발과 옹립과정 및 최고지도자로서의 육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가. 김일성의 옹립과정

서대숙은 소련점령당국이 북한을 소비에트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김일성의 권력장악이 소련의 결정과 후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169] 이는 중앙일보특별취재반이 취재한 당시 소련군 관련자의 증언과 일치한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도 소련이 북한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김일성은 그 당시 어느 지도자보다 외국의 "괴뢰"(a puppet of a foreign power)라고 주장한다. 소련의 북한통치기구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에 점령군 사령부로부터 소련대사관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170] 이러한 이전의 연구들이 새로운 자료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소련군 사령부로서는 처음에는 당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만식 및 기타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

[169] 서대숙,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70] Robert Scalapino·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317~318, pp. 381~382.

그 권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그들과 협조를 시도했던 것이다. 조만식과의 제휴노력과는 별도로 소련은 일찍부터 소련의 하수인 역할을 할 친소 지도자를 찾고 있었으며 김일성이 최종 선발되었다. 김일성으로 결정하는 데는 박헌영과 경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북한 통치에 두체계가 있었는데 25군단과 안전기관 KGB계통이다. 25군단은 김일성을 추대하였고, 안전기관은 박헌영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스탈린은 김일성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소련이 장악하고 있으니 남한을 잘 장악한 사람을 박헌영으로 보고 박헌영에게는 남한을 맡기고 북한은 김일성에게 맡기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171]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소련이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파벌싸움을 목격했기 때문에 고참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후보로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반면 김일성은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의 파벌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일투쟁의 경험이 있고 소련에서 4년여 기간동안 정치교육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큰 플러스가 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지도층은 4년간 소련에서 지도와 훈련을 받은 김일성이 지도력도 있고 신임할 만하다고 평가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김일성이 누구보다도 소련의 통제에 쉽게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 소련의 최종 결정을 좌우했을 것이라고 추리하였다.[172]

사실은 김일성에 대한 낙점은 일찍부터 내려져 있었다. 김일성

---

[171]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172] Scalapino·Lee, Communist in Korea, part 1, p. 325.

은 88여단에서 북한으로 입북하기 직전에 이미 소련 당국에 의하여 북한의 새 지도자로 선발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김일성이 88여단에서 소련당국에 의하여 직접 북한의 새 지도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이 스탈린에 의하여 직접 선발되었고 권력 장악과정과 체제 형성 과정에 스탈린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면 김일성과 북한 체제의 형성은 소련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스탈린에 의하여 지명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당시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당시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의 부관이었던 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이반 이바노비치 코바넨코 (1993년 인터뷰 당시 72세, 모스크바 거주)가 처음으로 김일성의 선발과정을 증언하였다. 그에 의하면 1945년 8월 24일 대일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북한 소비에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자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하던 중 1945년 9월 초순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리에프 원수가 극동군에서 추천한 88정찰여단의 김일성 대위를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스탈린의 긴급지시를 받고 하바로브스크에서 소련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냈었다고 한다.[173]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발실레프스키 사령관은 하바로브스크 인근에 있는 군용 비행장에 수송기를 대기시켜 놓고 88정찰여단의 김일성 대위를 불러온 후

[173]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3), p. 202.

KGB 극동본부 요원 2명에게 모스크바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한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면담은 식사를 겸해서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면담 후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 정국의 최고지도자 후보로 내정하고, 소련군으로 하여금 그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74]

당시 소련 관련자의 증언뿐 아니라 소련의 문서도 스탈린이 김일성을 면접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소련군이 평양에 사령부를 개설한 무렵이었던 1945년 8월 하순과 9월 초순 사이에 스탈린이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알렉산데르 바실리예프스키 원수에게 "북조선을 소련의 뜻에 맞게 이끌 조선인 지도자를 추천해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소련 극동군이 김일성을 심사하였으며 러시아 국방부에는 지금도 그 심사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심사기록에 나와 있는 소련 극동군 관계자와 김일성의 대화록의 일부이다.

> "당신은 붉은 군대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가?"
> "예, 그렇습니다."
> "만약 당신에게 북조선으로 일하러 가라고 제안한다면?"
> "세계혁명과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아주 훌륭한 대답이요."

심사 결과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는 스탈린에게 김일성을 추천했다. 추천서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음.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음"이라는 평가가 붙어

---

[174] 위의 책, pp. 202~204.

있다. 추천서를 받은 베리야는 "좋다"고 평가한 뒤 다시 스탈린에게 보고했다.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의 정보 및 정치공작 담당 과장이던 그리고리 메클레르 예비역 대령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베리야의 보고서를 읽은 직후 김일성을 비공개리에 모스크바로 불러 직접 면접을 했다. 이에 김일성이 황공하다는 표정으로 "예, 예"를 연발하자 스탈린은 흡족해했다는 것이다.[175]

당시 스탈린과 김일성 면담은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전제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막연히 북한의 최고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으로 선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상정하지 않는 사람을 직접 면접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김일성이 북한에 입북한 9월 19일 이후 불과 25일 이후인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 및 유명한 빨치산의 지도자로 소개한 것은 이미 최고지도자로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권에서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사실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대일작전을 앞둔 어느날 나는 연합군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항하였습니다. 쏘련군 총참모부가 소집한 회의에 가보니 메레쯔코프와 스띠코프룰 비롯해서 대일적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 전선사령부의 책임일군들도 벌써 다 와있었습니다. 와셀렙스끼 총사령관도 거기에서 다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항공륙전대전법에 기초한 조국해방작전계획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지하였습니다. …

[175] 『동아일보』,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 5: 김일성은 소련군의 심사를 받았다," 2004년 9월 12일.

> 우리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 레닌묘도 참관하고 력사박물관에도 가 보았습니다. 모스크바 방위와 관련되어있는 이름있는 전적지들도 구경하였으며 영화 '챠바예프'도 다시 보았습니다. 며칠후 그들은 우리를 쥬다노브에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당시 쥬다노브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비서의 직제를 맡고 있었습니다. 쥬다노프는 쓰탈린의 위임에 따라 동방에서 온 사절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온 항일무장투쟁을 격찬하였습니다. 그는 스탈린과 스찌꼬브를 통해 조선의 빨치산 김일성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듣던 바보다는 훨씬 젊어보이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스탈린도 우리이 활동에 류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176]

김일성이 1945년 9월 19일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탈린과 면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를 통하여 소련군정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지명한 것이다.

김일성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서 88국제여단 1대대 부하들과 함께 소련 군함인 푸가초프호를 타고 9월 19일 귀국했으며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것은 9월 22일이었다. 소련 극동군 산하 제25군이 평양에 주둔군 사령부를 개설한 1945년 8월 26일로부터 24일이 지난 9월 19일 원산에 도착한 것이다.[177]

코바넨코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이 소련 군정에 의하여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항일투쟁 '김일성장군'으로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도 때문일 것이라

---

[176]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권, pp. 450~451.

[177] 이때 김일성 일행을 원산항에 마중나간 사람이 당시 소련군 해병대 특무상사이며 이후 문화선전부 부상이 된 정상진이다. 김일성과 악수를 청했을 때 그는 "김성주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정상진은 사령부에 돌아와서 일행 중에 김일성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정상진 증언)

고 한다. 박헌영도 당시 김일성의 지명도를 인정하는 발언에 관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소련은 그의 이 같은 '명성'을 최대로 활용해 양손에 당(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비서)과 행정권(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쥐어준 후 '민주개혁'을 추진케 했다고 한다.[178]

김일성의 집권과정에 난관도 있었다. 박헌영과 같은 큰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초기 박헌영과 김일성 두 지도자는 지도노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도권을 다투게 되었다. 소련군정의 지원속에 순탄하게 북조선을 장악한 김일성에 비하여 박헌영은 남한에서 어려운 싸움을 벌였으나 공산당의 흐름은 점차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련 극동군 사령부 부관이었던 코바넨코는 "김일성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박헌영이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1946년 5월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만을 폭발했다"고 밝히면서 "이 편지는 의외의 효력을 발휘해 박헌영이 처음으로 김일성과 함께 스탈린을 면담하는 기회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총사령관 부관이었던 코바넨코의 자세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 1946년 5월 KGB 극동본부에서 박헌영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사령관을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극동권 총사령부가 해체되고 극동군구로 바뀌어 사령관 역시 마리노프스키 원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소련어로 된 장문의 편지는 일제때 지하에서 항일투쟁한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사들만 앞세우는 등 독재가 많았으며, 중앙당을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남한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 등을 일방

[178]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p. 298~299.

적으로 주장하고, 나(박헌영)를 추종하는 당원들을 배제하면서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등 김일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편지는 소련군정 지도부가 당 총책임자인 자신을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김일성에게만 적극 협력하고 있어 당의 권위가 추락해 혁명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등 소련군정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령관은 한참동안 심사숙고 끝에 최종 판단은 스탈린 대원수께서 내릴 수 있도록 모스크바 당중앙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KGB에서 보낸 이 편지를 놓고 중앙당에서도 한 때 고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박헌영의 편지는 스탈린에게 보고되었지요. 스탈린은 이 편지를 읽고 박헌영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근거가 있다고 보이니 평양의 25군과 김일성 진영에 지시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라고 KGB 본부에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스탈린의 지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부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박헌영지도자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박과 김을 내가 직접 만나 볼테니 그들을 모스크바로 부르라"는 의외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어로 쓰인 박헌영의 편지는 당시 서울 주재 쏘련 총영사관 부영사 샤브신(KGB 소속)을 통해 하바로브스크의 KGB 극동본부에 전달되었던 것이다.[179]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이었던 레베제프(1992년 5월 사망)가 중앙일보를 통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1946년 7월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접한 후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최종 선택했다고 한 증언이 나왔다.[180] 스탈린이 두사람을 갑자기 면접한 것은 위의 당시 총사령관 부관이었던 코바넨코의 증언과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의 증언에 의하면 스탈린은 김일성을 두 번 면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인사들의 증언을 통하여 볼 때 김일성은 자력으로

[179] 위의 책, pp. 210~212.
[180] 위의 책, pp. 211~212.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스탈린에 의하여 최고지도자로 선발되어 소련군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련군의 후견하에 스탈린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발되었던 것이다.[181]

나. 소련의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조장

북한은 소련에 의하여 건국되어 지고 한동안은 소련에 의하여 통치되었다. 소련의 정책지시를 한국말로 번역하여 김일성에게 통고하고 그 통고에 따라서 김일성은 정책을 집행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보고문을 러시아로 작성하여 러시아의 승낙을 받아야 했다. 이 시대의 북한의 정치를 '통역에 의한 통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182]

그런데 소련은 친소 정권의 최고책임자로 김일성을 옹립하고 김일성의 권력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하여 김일성에 대하여 스탈린처럼 개인숭배를 추진하였다.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음에도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추진한 것이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부터 소련은 김일성을 '조선인민의 영웅 김일성'으로 부각시켰다. 1948년 9월 정부가 조직되면서부터는 '수령'으로 호칭하였다. 수령은 영도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소련은 전쟁 중이던 1952년 그의 생일 40주년에 '원수' 칭호를 부여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개인숭배는 전쟁중에 원수 칭호를 받으면서

---

[181] 더 자세한 증언 내용은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참조.
[182] 임은, 『북한 김일성 왕조 비사』 (서울: 한국양서, 1982).

부터이다. 고위 간부들이 “김일성 동지에게 원수라는 칭호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서를 올렸고 스탈린의 지지에 의해서 원수칭호가 주어졌다고 한다. 이때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183] 김일성 개인숭배가 전쟁중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한국전쟁 중에 충성심을 동원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김일성이 40세 생일인 1952년 4월 15일이 분기점이었다. 김일성은 당과 국가기관에 의해서 스탈린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되었다. 1952년 4월 15일 「로동신문」에 박정애는 다음과 같이 썼다.

> 김일성 동지는 조선 근로계급의 역사적 과업과 사회의 역사적 발전법칙의 정확한 파악, 혁명의 환경과 조건의 예민한 분석, 혁명적 용감성, 새것에 대한 민감성,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대중과의 불가분리의 연계,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 멀리 내다보는 예견성, 이 모든 고귀한 품성과 특징을 소유했다.[184]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소련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스탈린은 동유럽과 북한을 위성국화 하여 지배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이 지도자를 파견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 지도자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련식 개인숭배를 이식하고 조장했다. 김일성은 바로 그런 위성국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된 것이 소련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듯이 북한의 개인숭배의 관행도 소련에 의하여 이식된 것이었다. 스탈린은 소련에서 자신을 개인숭배 하도록 하였을 뿐만

---

[183]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184] 『로동신문』, 1952년 4월 15일.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최고지도자를 개인숭배 하도록 전파하였다. 소련은 공산권 내에서 모스크바의 통제를 일사불란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권 내에 개인숭배의 사다리를 만들었다. 즉 공산권 내에서 개인숭배의 사다리의 정상에 앉은 스탈린은 낮은 계단에 앉은 위성국의 독재자들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들 위성국 독재자들은 스탈린의 무비의 권력과 신임에 의지하여 자국내 개인숭배 사다리의 정상을 차지하고 인민들을 통치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는 세계의 모든 스탈린주의적 통치체제에서 불치의 풍토병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185]

김일성 개인숭배를 소련이 주도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소련의 북한 언론 장악과 언론의 홍보내용이다.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 25군의 정치사령관을 지냈던 레베제프는 소련군정 당시 북한에 대한 언론정책을 소상히 증언하였다.[186] 그의 증언에 의하면, 소련군 연해주 군관구에는 동방의 정세분석 등을 담당하는 7호정치국에서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장교를 양성했는데 그들이 후에 북한에 들어와서 언론을 담당했다고 한다. 소련군정은 입북하자마자 평양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평양매일신문의 설비 일체와 사무실을 그대로 접수해 소련군 신문사를 조직하여 한글로 신문을 발행했다. 북한 언론은 소련군정이 정해 놓은 한계 내에서만 움직여야 했다고 한다. 그 한계는 바로 소련군정이 내밀하게 정해 놓은 목표로서 '북한의 소비에트화'라는 중장기 목표라고 한다. 소련군정 소속 매체는 직접 통제하고 기타

---

[185] 소련의 개인숭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pp. 247~263 참조.

[186]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권, pp. 48~57.

매체는 검열이라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였다고 한다.

통제의 기준은 두가지였다고 한다. 첫째는 "조선을 해방한 위대한 붉은 군대"에 대한 선전이며 두 번째는 김일성을 정치지도자로 부각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을 항일 민족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소군정의 긴급한 과제였으며, 소군정은 가능한 한 모든 매체들로 하여금 김일성이 소군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자이며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점을 인민들에게 암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국내파라든가 의용군 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송국에서는 방송 시작과 종료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반드시 틀도록 했다고 한다.[187]

김일성 우상화는 소련의 지시로 소련파들이 시작하였다고 한다.[188] 소련군정과 군정이후에는 소련대사관이 소련파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항상 주지시켰다고 한다. 당시 소련파들이 소련대사관에 가면 소련파들은 김일성을 잘 받들어야한다고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김일성을 욕하거나 김일성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김일성한테 충성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당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김일성은 젊은 애와 같아서 수령님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으나 그렇게 불러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1948년~1949년 정도에 김일성의 몸에 살이 쪄서 앉으면 목이 두 개나 될 정도가 되었으며, 목 가운데 왕(王) 자가 새겨져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고 한다.

소련파 장학봉도 같은 증언을 하였다.[189] 장학봉의 증언에 의하

---

[187] 위의 책, pp. 58~63.
[188]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면 소련파가 김일성을 개인숭배해주었다고 한다. 박창옥 선전부장, 박정애 비서, 박영빈 조직부장 등이 상호경쟁적으로 김일성에게 아첨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아첨에 대한 보수를 김일성에게서 받았다고 본다. 소련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북한인과 비교할 수 없는 호화생활을 하였는데 지금 타시켄트의 고려인과 현지 교민의 생활 차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개인숭배의 주요 내용은 빨치산 활동에 관한 것인데 노동신문에 김일성 역사에 관한 것을 계속 연재해서 썼으며 나날이 더 확대하고 더 심화해서 썼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소련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선전부 계통에서 일한 소련파들이 주도 했다고 한다. 소련파들은 사업경험이 있고 선전방향을 잘 알았다고 한다. 장학봉 자신도 정치군관학교 교장으로 3년간 그런 선전을 많이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김일성을 잘 보좌하고 도와주고 명예와 위신을 높여주어 남한을 합쳐서 전 조선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하였다고 한다.

3. 소련의 빨치산파 육성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가. 빨치산파에 대한 육성

김일성의 빨치산파가 1945년 9월 원산항에 도착했을 때 동승했던 88여단출신 인원은 모두 72명이었다.[190] 당시 88여단 출신 빨

[189] 장학봉 (김책군관학교 교장, 1958년에 소련으로 귀환한 소련파, 타쉬켄트 거주) 인터뷰, (2005년 6월 29일).
[190]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치산파는 사실 미미한 존재였다. 또한 김일성은 다른 공산주의자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해외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았다. 또한 북한 정권초기 4대파벌 가운데서 가장 소수집단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다른 파벌들을 제거하고 유일한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소련 군정의 지원하에 지배적 집단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이 빨치산파를 지배집단으로 육성한 것은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정치권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빨치산파가 주류 집단이 되어야 김일성의 권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빨치산파들을 주류 지배집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북한 권부의 고위층 요직들을 주었다. 해방직후 처음부터 최고위층은 빨치산파였다. 각 부처의 부상은 소련파가 맡아서 실무를 장악하고 실세역할을 하였지만 장관급에는 대부분 빨치산파를 앉혔다. 즉 빨치산파가 정권의 상징적 주체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소련의 명분은 진짜 일본과 싸운 사람을 세워라는 원칙이었다. 그래서 최용건, 김책, 오진우, 강건, 최현 등 빨치산파가 권부와 요직을 차지하였다. 군부에서도 대개가 빨치산파였다. 빨치산파는 처음부터 주인노릇을 하였고, 소련파가 실무 지원을 해주었으며, 연안파가 보완해주었다. 적지 않은 연안파도 고위직을 차지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주요 자리는 빨치산파에게 주어졌다. 국내파도 중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내파는 전향하는 자가 많았고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았으며 혁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191]

---

[191]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나.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소련은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하여 정권초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을 김일성의 정당성의 근거로 선전하였다. 소련은 빨치산파의 항일무장투쟁을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김일성은 유명한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으로 부각하였고, 일본과 투쟁한 것이 김일성이 최고지도자로 추대된 명분으로 설명되었다. 북한 정권과 항일투쟁간에는 연결고리가 없던 것을 소련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준 셈이었다. 마치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으로 북한을 해방시킨 것처럼 선전하였다. 소련이 최고지도자로 김일성을 옹립하고 그 명분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아준 것이다. 4대파벌이 각축을 벌이는 연립정권하에서 소련이 김일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전략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활용한 것이다.[192]

스탈린이 지시한 북한정권의 강령도 반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소련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북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비밀지령을 소련점령군사령부에 내려보낸 것은 1945년 9월 20일이다. 스탈린은 북한에 소비에트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그 대신 "반일적이며 민주적인 정당들과 단체들의 광범위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193] 남한지역과의 통일전선전술의 의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지역에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

[192]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193]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119에서 재인용.

북한체제의 반일적 특성을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데도 많이 동원하였다. 가령, 구인테리들에 대하여 평하면서 김일성이 항일투쟁할 때 당신들은 공부만 하면서 천황숭배하였으니 말할 권리도 없다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홍명희가 1948년 월북하여 "남한은 친일분자가 판을 치는데 그것이 보기 싫어서 왔다, 남한에는 아무 공이 없는 사람이 요직에 앉아있다"고 하면서 이승만은 나라 잃은 다음에 미국에서 편히 공부하였으나 김일성은 20성상을 만주에서 싸웠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서 일제 잔재의 숙청은 정권의 정당화 논리였다. 이것이 소련의 지시였으며 이것이 인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

항일무장투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연변에서 집권초기부터 항일무장투쟁관련 자료 발굴이 시작되었다. 1948년부터 빨치산투쟁 업적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의 문화선전성의 체제선전의 주요 주제는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으며, 빨치산 투쟁에서의 위대한 지도력을 부각하는 것이었다.[194]

4. 김일성의 소련파 숙청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소련과 소련파가 이처럼 개인숭배를 통하여 김일성을 확고한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지만 김일성은 소련파에 대한 견제심리가 컸다고 한다.[195] 그래서 김일성은 일찍부터 자신의 권력에

[194]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195]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경쟁자가 되는 소련파 거물을 숙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51년 11월 북한군 후퇴시 미군 점령지역에 남아있던 당원들에 대한 검열문제를 이유로 허가이의 중앙위원회 제1서기의 직책을 박탈하였다. 소련파의 거두인 허가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련파를 제거하기 위한 첫 숙청을 시작한 것이다. 소련이 1945년부터 자신을 키워주었는데 김일성은 6년만에 반격에 나섰던 것이다.

김일성이 소련파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소련파가 힘을 잃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에 소련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이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 원인이며 다른 원인은 1953년 스탈린 사망으로 소련 내부가 권력투쟁에 빠져들면서 외교정책상의 적극성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196] 김일성이 소련파 숙청에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것은 1955년 10월이다. 1955년 10월 23일에 김일성이 자기 사무실에 소련파 5인조였던 박창옥 부수상, 박영빈 조직부장, 기석복 육군대 부총장, 전동혁 외무성 참사, 정율 문화선전부 부상을 불러서 그들의 과오를 비판하였다고 한다. 정율(장상진) 부상에 대해서는 (1) 사대주의, 즉, 자기문화를 거절하고 외국문화를 찬양한 점, (2) 이태준, 김순남, 임하룡 등 반동작가들을 비호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낸 점, (3) 사생활이 어지럽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정율 부상은 이 세가지 조건에 의하여 당시의 현직에서 철직되고 과학원 도서관 관장으로 좌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박창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김일성은 소련파를 먼저 제거하고자 하였지만 예기치

[196]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p. 157.

않은 사건이 생겼던 것이다. 연안파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일으켜 김일성이 실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안파의 기도는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연안파가 소련의 개인숭배 비판 정책에 기대를 걸고 소련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소련대사관이 오히려 김일성에게 기도를 밀고해주었다. 김일성 빨치산파는 8월 전원회의에서 연안파를 역습하여 그들을 숙청하는데 성공하였다.[197] 이렇게 하여 김일성은 연안파를 먼저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연안파가 먼저 숙청된후 소련파만 남게 되었으며 소련파의 숙청은 더욱 쉬워진 셈이다.[198]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련파 1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 여기 있으면 죽게될 것이 뻔하므로 소련으로 가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소련으로 귀국하겠다는 청원을 내었고 김일성이 비준함에 따라 무사히 소련으로 복귀하였다. 정상진은 1957년 10월에 소련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소련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다 잡혀 죽었다고 한다. 정상진은 48명의 총살당한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련 사람 48명이 총살되었는데 소련이 한번도 반응한 적이 없다고 한다. 소련 정부의 고려가 한번도 없었다.[199]

소련파의 숙청과정에 소련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관자적이었다. 1953년 7월에 허가이가 살해당해도 소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련이 자기 공민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후르시초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렇지 않

---

[197]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198]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199]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았을텐데 후르시초프는 중국을 의식하여 남의 나라 불간섭을 선언하였다. 북한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재북한 소련국민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00]

연안파와 소련파가 숙청된 이후 김일성 빨치산파가 유일 권력으로 남게되었다. 이제 북한은 빨치산파들의 헤게모니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체제로 50여년간 지속되었고, 항일무장투쟁이 본격적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상진에 의하면 자신들이 소련으로 돌아가고 난 직후인 1959년부터 "생산도 항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증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신화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200] 김문욱 (북한 김책공대졸업후 북한 남포제련소 기술연기실 기사 역임, 1964년 1월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탈북, 타시켄트 국립동방학대학교 극동학부 학부장, 2004년 12월 퇴임) 증언.

제6장

북한의 시대별 역사서에 나타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과정

1. 역사서별 출간 배경 및 특징

이 절에서는 북한의 최초의 역사서였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출간된 「항일무장투쟁사」까지를 분석한다. 각 역사서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개인숭배의 소재로 활용하되, 각 시대별 통치이념이었던 맑스-레닌주의로 역사를 해석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 만든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위하여, 또는 김정일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재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가.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49년)

해방직후 북한은 1947년 2월 7일 북조선임시위원회안에 25명으로 구성된 조선역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48년 10월 2일에는 내각 제4차회의의 결정을 통해 1949년까지 최근세사와 「조선통사」를 편찬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일제시대 민족운동사에 대한 체계화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계열이 당과 군, 그리고 정부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반면, 역사학계는 최창익, 이청원, 백남운 등 김일성 계열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연안파 엘리트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해방투쟁사를 인식하는 양측의 입장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1949년 10월 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최창익 주도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를 발간했으나, 이 책은 1950년대 후반 이후 최창익

이 이른바 8월종파사건의 영수로 지목되면서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0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부분을 연안파 최창익이 집필하였음에도 '김일성 수령' 만들기와 개인숭배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에 의하여 정권 초기에 항일무장투쟁을 국가이데올로기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우상화에 장애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많이 왜곡하였다. 이때 이미 북한은 김일성을 조선민족의 영웅으로 칭하였는데 "조선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의 영도하에 만주에 있어서 영용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개를 보게되었다"[202] 고 기술하였다.

관내의 연안파의 항일무장투쟁은 만주의 김일성부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개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연안파인 최창익이 자기를 낮추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역사왜곡을 하였는데 중국 관내의 연안파의 업적도 김일성의 업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만주에 있어서의 김일성장군 빨치산부대의 혁혁한 항일무장투쟁의 성과에 고무되어 중국 관내의 조선청년들도 강력한 항일투쟁에 궐기하게 되었다"[203]고 기술하였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북한의 항일무장투쟁과이 주체사상

---

[201] 이 책은 백남운, 박시형, 유문화, 김두용, 김광진, 김경연, 김승화, 최창익, 사브시니에 의해 집필되었다. 최창익은 제5장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과 제6장 일본의 대륙침략과정에서의 반일무장투쟁에서 각각 일제시대 민족운동사 부분을 집필하였다.

[202] 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역사편찬위원회, 1949), p. 409.

[203] 위의 책, p. 402.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왜곡되기 이전의 역사기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9년판에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나오며, '김일성장군 빨치산부대' 또는 '김일성장군의 무장유격부대'로 호칭하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표현은 전무하지만 중공당의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이라는 언급도 없다. 무장유격부대를 1931년에 창설된 것으로 주장한 것이 이색적이다. 이후의 역사책은 1932년 4월에 최초의 무장부대가 창설된 것으로 기술하기 때문이다.

만주의 김일성부대와 화북의 조선의용대를 동렬로 평가한 것이 주목할만하다. 즉, "김일성장군의 무장유격부대는 화북에 있어서의 조선의용군과 함께 조선인민이 낳은 유일한 항일무장대오로써 일본제국주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후 조국보위의 성새인 조선인민군대의 골간으로 되었다"고 기술하였다.[204] 최창익 등 연안파들이 역사기술에 참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역사가 대체적으로 왜곡되기 전의 역사이다.

이후의 다른 역사서와는 달리 1949년판은 김일성부대에 관해 15페이지를 할애하였는데 중국 관내지방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약상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분량이 7페이지나 할애한 것은 매우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역사서에는 조선의용군에 대한 역사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군정연합의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정치공작과 군사공작을 병행하였으며, 주요 인물로는 조선

[204] 위의 책, p. 394.

독립동맹에 김두봉, 최창익, 한무, 조선의용군에 있어서 무정, 박효삼, 박일우 등이 지도적 책임을 담당하였다고 소개하는 등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조직, 강령, 활동, 업적, 인물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조선의용군의 실상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최창익에 의해서다. 최창익은 「독립신보」에서 조선독립동맹의 유래, 창립대회 이후의 활동과 발전, 1944년말 현재의 조선독립동맹의 성질, 혁명임무, 전도 투쟁약사 등을 밝혔다.

그 후에 북한에서 최창익에 의해 통사의 일부로 다시 정리되었다. 최창익은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49)에서 1938년 국민당 지구 무한에서 조선의용대가 건립된 점, 팔로군 지구로 이동한 점, 팔로군 지구에서 새로운 정치 중심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1941년 1월 건립된 점 등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그런데 최창익은 "만주에 있어서 김일성 장군 빨치산 부대의 혁혁한 항일무장투쟁의 성과에 고무되어 중국 관내 조선청년들도 강력한 항일무장투쟁에 궐기하게 되었다"고 왜곡 설명하였고, 실제 의용군·독립동맹 활동을 "김일성 장군의 항일무장투쟁" 절에 넣어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최창익 등 연안파가 숙청된 이후 조선의용군의 역사는 북한 역사서에서 사라졌다. 북한의 역사학자 이나영은[205] 1958년에 발간한 그이 저서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 "최창익을 비롯한 일부 반당분파분자들이 추잡스런 분파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를 많이 왜곡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즉 최창익 등은 "해방전 조선노동운동에 끼친 분파의 해독성을

[205] 신상옥·최은희의 책에 이나영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쓰고 있다.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조선인민의 혁명적 전통인 것처럼 분석"했으며 반면 "김일성을 선두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왜곡하고 과소 평가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나영은 같은 저서에서 조선의용군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206]

또한 조선해방을 김일성이 직접했다는 언급 없고, "소련의 결정적 역할"로 해방 설명한 것이 이후 발간된 역사서와의 차이점이다.

> 소련과 그의 영웅적 군대만이 일본제국주의의 패전으로부터 조선민중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급박한 신정세에 조응하여 세계민주역량과의 국제적 연결을 한층 강화하는데 전력하였다 (88여단을 의식한 표현으로 추정). 김일성 장군의 이같은 냉철한 활동은 마침내 위대한 소련군대의 결정적 역할로 말미암아 가져온 제2차세계대전의 종언과 함께 역사적인 8·15 조선해방으로 현실화되었다.[207]

조선의 해방을 소련의 역할로 기술하였다. 즉, "소련군대는 8월 13일에 조선 웅기항을 점령하고 이어 청진전쟁에서 일본군을 잔멸하고 함흥, 원산 등지에 진주하게 되어 8월 14일 일본은 소·미·영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5년 9월 2일 동경만에서 일본의 무조건항복에 관한 조인이 실시되었다. 조선인민의 불구대천 원수인 일본제국주의는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하여 조선으로부터 구축되었으며 최후의 패망을 고하고 말았다"[208]고 기술하였다.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사실에 관한 언

---

[206]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pp. 30~31.
[207] 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p. 400~401.
[208] 위의 책, p. 435.

급은 없으나 연합국의 일원으로 소련과 함께 미국이 거명된 것은 북한역사서에 유일무이하다.

나. 『김일성장군의 략전』(1952년 4월 15일, 노동신문)

「김일성장군의 략전」은 6·25전쟁중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위한 글로써 노동신문 4개면에 게재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김일성의 업적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김일성 40세 생일을 기하여 발표[209]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이라는 호칭에서 보듯이 김일성을 수령이라고 호칭하면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행적을 우상화하고 있다. 수령이라는 호칭이 최초 사용된 것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식에서 조선인민군 총사령 최용건은 연설 속에서 "우리 인민군은 자기의 인민과 민주주의 또는 조선인민의 수령이며 영도자이신 김일성 장군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성은 더욱 강대합니다"라고 주장한 이후 간헐적으로 수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210]

그러나 전쟁을 계기로 수령 호칭이 당내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211] 전쟁직후부터 "경애하는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1952년 김일성 40회생일을 계기로 개인숭배가 시작되었다. 노동신문에 중앙위원회 비서 박정애의 글, "김일성 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라는 글에서 소련 스탈린급 수령으로 김일성을 위치시키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

[209] 『로동신문』, 1952년 4월 15일.
[210]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p. 146~147.
[211] 정상진 인터뷰.

> 김일성동지는 조선 근로계급의 력사적 과업과 사회의 역사적 발전법칙의 정확한 파악, 혁명의 환경과 조건의 예민한 분석, 혁명적 용감성, 새것에 대한 민감성,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대중과의 불가분의 연계,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 멀리 내다보는 예견성, 이 모든 고귀한 품성과 특징을 소유한 레닌-스탈린형의 조선인민의 수령이다.[212]

김일성을 레닌과 스탈린을 모델로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제시기 무장투쟁, 해방후 민주개혁, 반제국주의 투쟁, 경제발전 등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투쟁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1952년부터 북한에서는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알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민주독립국가 건설을 구호로 사용하였고, 민주개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미제국주의자에 대한 적대감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직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김일성을 국제주의자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국제주의에 충실한 김일성장군은 … 우리 인민을 해방자인 위대한 소련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고 있다."

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58년) 및 『조선통사』(1958년)

북한은 1953년 3월 27일 내각결정 제57호에 따라 역사편찬위원회를 해체하고 시대별로 전문연구실을 갖춘 조선역사연구소를

---

[212] 『로동신문』, 1952년 4월 15일.

설치하여 전문적인 역사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 조선역사연구소는 이후,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요구되는 역사적 정통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213]

1956년 5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과거 조선로동운동사, 민족해방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망각 또는 무시되고 있는데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그이 연구, 편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나영은 조선로동당 3차대회 결정정신에 따라서 초고를 1956년도에 민주조선지에 연재한 바 있다. 이나영은 최창익의 주도로 발간된 책과 동일한 제목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를 1958년 3월에 발간하였다. 이나영에 따르면 자신의 저서는 1956년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12월 확대총회와 제1회 대표자회의에서 강조되었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필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나영은 지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 확대전원회의와 제1차당대표자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당원과 간부들을 정확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로 교양하며 근로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책의 서론을 통해서 보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시 북한학계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나영은 “최창익의 연구가 해방전 노동운동에 해악을 입혔던 분파주의의 해독을 숨겼으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수립한 혁명전통을 왜곡 말살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의 이와같은 언급은 반

---

[213] 황민호,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서울: 신서원, 2005), p. 213.

종파투쟁이 김일성의 승리로 끝났으며, 그에 따라 북한학계의 혁명전통에 대한 서술이 김일성과 그 계열의 활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확립되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950년대말부터 이나영, 황장엽, 최웅철 등이 최창익, 이청원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 출간된 「조선통사(하)」및 1949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같은 이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 그리고 1961년에 발행된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 반영되었다.

이 역사서들은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연안파를 숙청하고 만주파 중심의 항일무장투쟁 역사로 역사를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역사서와 구별된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 및 「조선통사(하)」 두책은 항일무장투쟁을 맑스-레닌주의 이론 및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전의 역사서와의 차이점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역량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이론과 그 전략전술을 투쟁의 지침으로 삼았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214]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무엇보다도 연안파를 역사에서 삭제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서문에서 지난 기간 최창익 등 기타 일부 반동 종파분자들은 자기들의 추악한 종파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부분 역사연구사업에 많은 왜곡과 해독을 끼쳐놓았으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왜곡, 과소평가, 말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은 6·25전쟁이후 생활난에 대한 불만과

---

[214] 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역사편찬위원회, 1949), p. 439.

민심의 동요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장학봉과 김문욱의 증언에 의하면, 6·25전쟁이후 주민들의 사상동요를 막기 위하여 사회주의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이전의 역사를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3·1운동도 사회주의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즉, 조선로동계급이 민족적 해방을 위한 정치적 투쟁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고 기술하였다.[215] 조선공산당의 창건이 1925년 4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1919년 3·1운동이 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1925년 4월에 조선공산당 창건시 파벌투쟁이 심하여 지도부만 결성하고 당강령, 규약도 채택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데[216] 3·1운동이 어떻게 사회주의노선에 의거하여 일시에 전국에서 분출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 책은 3·1운동에 대하여 조선로동계급이 민족해방을 위한 정치적 투쟁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17]

1958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부터 북한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조작의 내용은 11개군(우리의 군단편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동북인민혁명군의 역사를 김일성 개인의 역사로 도용하는 것이다. 1934년 3월에 창설된 중공당의 항일부대가 동북인민혁명군이었는데 이 명칭을 변형하여 김일성은 자기의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조작하고 있다. “1934년 3월 동만 반일인민유격

---

[215]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평양: 조선역사연구소, 1958), p. 242.
[216] 위의 책, p. 278.
[217] 위의 책, p. 242.

대를 핵심으로 동북 각지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를 통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였다"[218]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은 동북인민혁명군 2군이 1934년 3월에 창설되었는데 4개현의 유격대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로 통일하고 사장에 주진, 정위에 왕덕태가 취임하였는데 이때 김일성은 제3퇀(団) 퇀장 밑의 직책인 정위에 임명되었다.[219] 그런데 3퇀 정위에 불과하였던 김일성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군장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였다.

박헌영 등 남로당파를 숙청한데 대한 명분으로 조선공산당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주목된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58)는 조선공산당의 분파주의와 그 해독성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제1차조선공산당 검거사건 이후 1928년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나중에는 당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1928년에 조선공산당은 조직적 력량으로서의 그 존재를 끝마치었다"[220] 고 기술하였다. 이전의 조선공산당에 대해서는 분파주의가 많았다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김일성 자신은 조선혁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에 근거하여 정확히 분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내공산주의자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221]

초기 북한역사서는 사실 자체에 대한 오류가 많다. 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급조하여 집필한 흔적이 많다. 가령, 김일성은 1924년에 중국으로 망명간 부친을 따라 동북(만주지방)으로 건너가서 무송 제1우급소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1926년에 길림 육

---

[218] 위의 책, p. 354.
[219]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209.
[220]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206.
[221] 위의 책, p. 338.

문중학교에 입학하였다고 기술하였다. 1929년 반동군벌에 체포되어 길림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1930년 출옥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안도지방으로 가서 직접 흥륭청년회를 조직·지도하면서 한편 공청 동만특별구 비서로 활동하였다고 기술하였다.[222] 의도적인 왜곡이라기 보다는 자료부족에 의한 허위 사실이 많다.「조선통사」도 마찬가지이다. 무송 제1우급소학교 입학, 졸업후 1926년 길림중학교 입학하였다고 기술하면서 화성의숙 다닌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223]

라.「조선근대혁명운동사」(1961년)

이 책은 아직도 1956년 8월 종파사건에 관한 정당화가 시급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부르조아 인텔리들이 조선공산당을 주도하여 파벌투쟁이 심했다고 지적하고,[224] 조선공산당의 공산주의자들을 분파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김일성이 참여하기 이전의 조선공산당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공산당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를 반대파를 공격하는 파벌주의의 도구로서 이용하였다고 보고, 조공의 분파를 ML파, 화요파, 서울파, 상해파 등으로 분류하였다. 종파분자들이 그러한 파벌투쟁은 당을 조직적 사상적으로 혼란시키고 당규율을 약화시켜 당에 대한 적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225]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이 해산된 다음 김

---

[222] 위의 책, p. 337.
[223] 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통사』(평양: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p. 202.
[224]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조선근대혁명운동사』(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61), p. 204.

일성 주도의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왜곡하였다. 김일성의 길림시절의 시작을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의 시발점으로 규정하며 1931년 10월에 공산당에 입당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226]김일성이 입당한 공산당이 중국공산당이라는 사실은 은폐하였다.

이 책은 서문에서 역사학계가 조선로동당 3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축적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편집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김석형, 김석담, 송지영 등 11명이 집필하였고 1930년대 만주항일투쟁 관련 부분은 송지영과 김을천이 집필하였다.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58년)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가 과거 조선로동운동사, 민족해방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망각 또는 무시되고 있는데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그에 관한 연구, 편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나영은 조선로동당 3차대회 결정정신에 따라서 출간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상당히 유사한 목차와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앞의 이나영의 책과 마찬가지로 서문에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책이 출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깃발 아래서 민족해방투쟁을 기술하였고, 사회주의시각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앞의 1958년의 두 책과 동일하다.

이 책은 민족주의계열의 항일운동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술하

---

[225] 위의 책, p. 205.
[226] 위의 책, p. 233.

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의 북한 역사서가 완전히 삭제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이다. 1920년대의 봉오동 전투, 1922년 8월 남만에서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통의부, 통의부에서 분리되어 1924년 8월에 조직된 참의부, 남만에서 1925년 1월에 통의부를 비롯한 10여개 군사단체가 통합하여 조직된 정의부, 그리고 1925년 3월 북만에서 수개의 민족주의 군사단체가 통합하여 조직된 신민부를 소개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 북만일대의 신민부, 압록강 연안 일대에 참의부, 남만일대에 정의부가 활동하였으며, 광범위한 기반을 지닌 것은 정의부라고 기술하였다.[227]

192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독립군에 대하여 소박한 민족주의적 군대이며 지주와 자산계급의이익을 수호하는 군대이며, 애국적이긴 하지만 과거지향적이고 좁은 시야의 민족주의 사상에 의해서 지도된 독립군 운동은 인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한 탓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228]

이후에 발간된 역사서에 비하여 김일성이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는 논조가 훨씬 약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민생단 사건에 대한 기술 등에서 김일성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기가 어렵게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많은 역사왜곡이 이루어졌다. 가령, 소련 피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부대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책의 장 제목으로까지 올려놓고 있으며, 소련에 많은 간부를 파견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소련으로의 피난사실을 왜곡된 형태로 역사에 반영하고 있다.[229]

---

[227]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근대혁명운동사』, pp. 202~203.
[228] 위의 책, p. 203.

마. 『김일성동지 략전』(1972년)

이 역사서는 1967년 갑산파를 숙청하고 유일체제 확립을 독려하던 시기에 나온 새로운 역사서이다. 이 당시 북한은 유일사상을 주체사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북한의 통치이념은 유일사상=항일무장투쟁전통=주체사상이라는 도식으로 정리된다. 86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김일성 역사이다. 출생부터 1972년까지의 김일성과 역사를 기술하였는데 주체사상으로 북한의 역사를 재해석하였다. 1958년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가 맑스-레닌주의로 북한역사를 해석한 것이라면 약전은 처음으로 북한의 역사를 주체사상으로 재해석하였다.

당시 주체사상은 반사대주의와 동일시 되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종파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종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 나타난다.[230] 주체사상=반사대주의=반종파주의이다.

1958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조선통사」가 소비에트 군대가 조선을 해방하였다고 기술하였다면, 약전은 이 사실을 완전히 삭제하였다. 주체사상의 시각에서 볼 때 조선의 해방이 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였다.

이 책은 김일성의 전기적 년도들은 비교적 소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역사서와의 차이점이다. 각 사건 연도들의 내용은 왜곡되어 있지만 연도는 정확하다. 가령 안도에서 별동대에

---

[229]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근대혁명운동사』, p. 331.
[230]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51.

참여한 연도가 1932년 4월 25일이라든가, 김일성이 구국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전전하다가 소왕청유격근거지로 돌아온 연도를 1933년 1월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기술이다.

「세기와 더불어」가 항일무장투쟁의 경력만을 다루었는데, 이 책은 1972년까지의 역사를 다룬 것은 흥미롭다. 「세기와 더불어」가 김일성의 회고록이라면, 왜 항일무장투쟁 부분만 다루고 이후 부분의 김일성의 경력은 다루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바. 「조선전사」 (1979년~1992년)

「조선전사」는 1972년 주체사상의 통치이념화 이후 주체사상으로 북한의 전 역사를 주체사상으로 재해석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1972년 「김일성동지의 략전」이 김일성의 일대기를 주체사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책이라면, 「조선전사」는 북한의 전 역사를 주체사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주체사상에 의거한 역사 재해석의 시작은 김일성의 61세 생일을 맞는 1973년 4월호 「근로자」에 실린 주체사상에 대한 특집논문이다. 「근로자」 4월호에 실린 8편의 논문 모두가 주체사상 관련 논문이다. 이 때 실린 논문은 모두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최초로 담은 1972년 9월의 논문을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역사와 정책을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첫 논문은 주체사상에 대한 총론이다. 1972년 9월의 김일성 명의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면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글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위대한 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주고 혁명의 원리를 새롭게 조명해준 천재적인 사상"이라고 평가하였다.[231]

무기명의 두 번째 논문은[23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가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김일성의 증조부 김웅우, 조부 김보현, 조모 리보익, 부친 김형직, 삼촌 김형권, 첫동생 김철주, 김일성의 외가 외조부 강돈욱, 외삼촌 강진석 등[233]의 항일투쟁의 업적을 내세우며 그 일가가 모두 혁명적 가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의 논지는 "이러한 가정만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해가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수 있으며 영원히 변함없이 혁명에 충실할 수 있다"고[234] 주장하였다.

오진우의 논문[235]은 항일무장투쟁을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새롭게 해설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적인 노선이라는 것과 항일투쟁기간 중에 김일성이 혁명투쟁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존중하고 인민의 충복이 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서관히의 논문[236]은 토지개혁 등 소위 민주개혁들을 주체사상

---

[231] 위의 책, p. 3.

[23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가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가장," 『근로자』, 1973년 4호.

[233] 여기에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이름은 빠져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은 한국전쟁때의 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며, 김정일의 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234] 위의 글, p. 14.

[235] 오진우,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쟁," 『근로자』, 1973년 4호.

으로 해석하였고, 강석숭의 논문[237]은 1958년의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국유화를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해설하였으며, 김주영의 논문[238]은 통일문제를 이룩하는 것을 주체사상으로 해석하였으며, 김재봉의 논문[239]은 공산주의 세계혁명의 의미를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혁명한다는 주체사상의 논리로 해설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과거의 모든 역사와 정책을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의 논리로 새롭게 해석하였고 하나의 사상으로 색칠하게 된 것이며 향후의 정책과제까지 제시한 것이다.

주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도 1955년 10월 23일 소련 5인방을 숙청할 때 숙청의 명분으로 처음 사용한 것이다.[240] 그런데도 북한은 마치 주체사상이 북한 역사의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33권의 「조선전사」에서 항일무장투쟁 부분이 7권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김일성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을 중요시하고 있다. 「조선전사」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소련 붉은 군대의 웅기상륙을 김일성 부대가 한 것처럼 왜곡하였다. 당시 전투에 참전하였던 오백룡의 회상(1968년판 회상기)의 형식을 빌어서 마치 김일성부대가 한 것처럼 왜곡하였다.[241] 주체사상의 정립을 위해

---

[236] 서관히, "민주주의혁명 수행에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 『근로자』 1973년 4호.

[237] 강석숭, "주체사상이 기치밑에 승리한 우리나라 사회주의혁명," 『근로자』 1973년 4호.

[238] 김주영,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인민의 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73년 4호.

[239] 김재봉,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 『근로자』 1973년 4호.

[240]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서울: 박영사, 2006), p. 131 참조.

[24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제22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9),

서 소련의 흔적을 지우려하였다. 역사왜곡의 가장 중대한 사례중의 하나이다.

북한학계에서는 1956년에 발생한 8월종파사건이 김일성 계열의 승리로 끝나는 시기를 전후하여 1920년대 국내공산주의운동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세력의 항일무장투쟁을 북한의 진정한 혁명전통으로 확립하였다. 이후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어「조선전사」에 이르면 당, 인민, 김일성수령을 삼위일체로 파악하는 주체사관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현대조선역사』(1978년 1판, 1983년 수정판)

조선전사(1979~1992) 33권 완성직후「현대조선역사」의 수정·증보판을 1983년에 발행하였다. 역시 1972년 주체사상의 통치이념화 이후 주체사상으로 북한의 현대사를 재해석한 것이다. 가령,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였는데 "주체형의 혁명군대"라고 기술하였다.[242]

「현대조선역사」는 김정일 후계준비를 위한 역사학적 접근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곁가지 치기 운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1930년대에 김일성이 반종파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사실 왜곡하여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이전의 어떤 역사서보다도 반종파투쟁을 매우 길고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김정일 승계를 위한 국내정치적 정비를 위하

---

pp. 119, 124~126,

[242]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현대조선역사』~(평양: 사회과학원연구소, 1978), pp. 61~62.

여 당시의 시대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허구적 내용을 삽입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 중공당의 반민생단 투쟁의 말을 바꾸어 마치 김일성을 반종파투쟁을 주도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였다. 중공당에서 반민생단투쟁을 위하여 추진한 것을 김일성이 반종파투쟁을 한 것으로 왜곡 기술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이 민생단 문서 보따리를 불살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기서는 자신이 반종파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종파주의에 대한 비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주체형의 새세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기술하였다. 가령, 1933년 3월 27일 왕청에서 소집한 공청일군대회에서 한 연설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조직과 공청조직들을 통하여 조직사상적으로 실천적으로 단련된 노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 주체형의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빨리 자라났으며 당의 조직적 골간들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었다"고 주장하고 "당조직들과 공청조직들을 확대강화하고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는 과정은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동반하였다"고 기술하였다.[243]

또한 공산주의운동 내의 종파주의도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내에 종파주의가 발생하게 된 근원을 분석한 다음 종파분자들이 저지른 죄행을 역사적으로 전면적으로 폭로하였다.[244]

북한은 1967년 갑산파숙청사건 이후, 김일성의 권력이 확고부동해지고 주체사상이 북한사회내의 유일지배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자 북한학계에서는 일제시대 민족운동사에서 김형직과 김일성

[243] 위의 책, p. 74.
[244] 위의 책, p. 74.

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도체계를 확립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나 역사적 평가에서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한 면이 많다는 점이다.[245]

1949년 북한 역사서에서는 김형직에 대하 언급이 전혀 없다. 1958년에 출간된 「조선통사」에서는 김형직이 "열렬한 애국자였다"고만 하고 있으며, 1961년에 출간된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서는 "정의부 내의 열렬한 반일투사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68년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을 발간한 이후 김형직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미화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전사」와 「현대조선역사」에 이르면 그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246]

1970년대 이후 북한의 연구서에 따르면 김형직은 1917년 평양회의를 통하여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였으며, 1918년 청수동회의와 1919년의 관전회의를 통해 선진사상의 보급과 무장적 혁명조직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김형직의 사상을 지원(志遠)사상이라 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 운동에서 사회주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47]

---

[245] 황민호,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p. 234.
[246] 위의 책, p. 222.
[247] 김한길, 『현대조선역사』~(1983, 서울: 일송정, 1988), pp. 32~35.

아. 「세기와 더불어」(1992년~1998년)

「세기와 더불어」 8권의 출간은 김정일의 총지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248] 김정일 세습을 위한 역사 작업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기와 더불어」 각 장마다 결론부분에 생뚱맞게 김정일을 언급하고 있다. 각 장의 마무리부분에 김정일을 언급하여 김정일을 항일무장투쟁과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세기와 더불어」는 또한 백두산 밀영 신화를 제시한 최초의 역사서이다.[249] 백두산 동남쪽에 밀영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80년 중반까지의 북한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다. 김정일의 출생지를 백두산 밀영으로 한 탁진 등의 「위대한지도자 김정일」이 출판된 것은 1984년이다. 소백산 서쪽에 있는 백두산 밀영의 사적 건조물이 완성되어 그 배후의 산이 정일봉으로 명명되고 콘크리트 글자를 집어넣은 것은 1988년 8월의 일이었다.[250]

「세기와 더불어」가 자서전의 형식으로 글을 써다 보니 당시 주위의 사람들을 망라하여 집필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세기와 더불어」 출간이후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사」는 다시 써야 할 형편으로 되었다. 이전의 역사서에 비하여 비교적 사실에 근접하도록 수정한 부분이 많아졌다. 소련으로의 피난 사실, 소련 88여단에서의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온 역사서가 2002년 개정판 「항일무장투쟁사」 10권이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생의 종반에 나온

---

[248]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27.
[249]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275.
[250] 위의 책, p. 275.

자서전인데 항일무장투쟁 시절만 다루었다. 항일무장투쟁이후에도 김일성은 북한정권의 최고지도자로 50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김일성의 정권수립이후의 업적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항일무장투쟁의 신화가 정권 홍보용이라는 증거가 바로 김일성 회고록이 항일무장투쟁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김일성의 역할 중에서 북한역사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 것은 해방이후 최고지도자가 된 다음의 일인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부분만 회고록에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자서전의 구성면에서 논리적이지 않다. 그 까닭은 해방이후의 김일성의 행적이 내세울 것이 없고 실패한 역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차. 「항일무장투쟁사」 10권 (1983, 2002~2005년 개정판)

1972년 「김일성동지 략전」과 더불어 항일무장투쟁을 전문으로 다룬 전집이며,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출간된 이듬해 발간된 역사서이다. 카륜회의를 40여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아무런 문헌적 고증도 없이 40페이지에 걸려 카륜회의 소집, 회의에서 천명된 주체사상의 원리, 회의에서 제시된 주체의 혁명로선, 카륜회의의 력사적 의의, 특히 카륜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16페이지에 걸쳐 장황하게 논의하였다.

김일성 사망이후 「세기와 더불어」 출간 이후 새로운 자료로 수정하여 보완한 역사서로서 김일성의 회고록의 내용이 많이 첨가되었다. 가령, 공산국제가 1928년 제6차대회에서 1국 1당 원칙을 규정하였고, 국제공산당 동양선전부가 1930년 5월 조선공산당 조

직문제에 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재만조선인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당원으로서 활동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기술하는 등[251] 사실에 가까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역사를 많이 왜곡하였다. 단행본으로 출간되던 항일문장투쟁에 관한 역사를 10권으로 확대하여 편집하sruf과 너무 많은 허구와 분식이 포함되었다. 가령, 앞의 근대조선혁명운동사에서는 김일성이 1931년 10월에 '공산당'에 가입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이전의 기술과는 다르게 이 책에서는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주도로 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를 결성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항일무장투쟁사」는 조국해방의 과정에 대해서도 역시 김일성 부대가 소련군과의 연합작전으로 조국을 무력으로 해방시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소련군이 조선반도에 진출할 때 단 한명의 조선인 군대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당시 웅기, 청진 점령 전투에 참가하였던 소련군 특무상사 출신 정상진 전 북한 선전선동부 부상이 증언하였다.[252]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사」는 역사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우상화를 위하여 가상적 역사의 목차를 짜고 이 목차에 의거하여 소설을 쓰듯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재 각색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5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사』 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252] 정상진 인터뷰, (2006년 10월 13일).

2. 역사적 사실의 왜곡내용과 각 역사서별 왜곡 추이

이 절에서는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왜곡의 실태를 사건별로 살펴본다. 역사서별로 사건에 대한 기술이 비슷한 것과 차이가 나타난 것을 구별하여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만 특별히 지적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 청년기 및 국민부 참여시기 (1926~1931)

(1) 화성의숙에서 길림중학교로 전학한 배경 왜곡

화성의숙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의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정의부에서 설립한 2년제 군사정치학교로서 학생들은 주로 독립군들이다. 그런데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의 동료들이 김형직이 죽자 1926년 6월에 김일성을 화성의숙에 입합시켰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적응하지 못하자 불과 6개월만인 1927년 1월부터 길림의 육문중학교로 옮겨주었다. 그런데 북한이 역사서들은 화성의숙이 왕조사본위의 조선력사와 부르조아 혁명사 기본의 세계혁명사를 통하여 고취하는 민족주의사상과 구 한국냄새가 나는 낡은 군사교련뿐이었기 때문에 육문중학교로 전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53] 또한 「김일성동지 약전」은 김일성이 화성의숙에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를 해설하고 선전하였다는[254] 것은 말이 안된다. 김일성의 나이는 당시 화성의숙 학생들보다 10살정도 어렸다. 그리고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처

[253] 『항일혁명투쟁사』, p. 113.
[254]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20.

음 접한 것은 길림 육문중학교에서이다.

(2) ㅌ·ㄷ 동맹 결성 사실 왜곡

북한은 김일성이 1926년 10월 17일에 ㅌ·ㄷ 동맹(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모순이 많다. 김일성이 화성의숙에 입학한 것이 1926년 6월인데 불과 4개월만에 자기보다 10여살이나 많은 선배들을 대상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연변대 박창욱 교수와 남임오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ㅌ·ㄷ 동맹은 이종락이 1929년~1930년경에 정의부를 탈퇴하여 결성한 정의부좌파의 단체인데 김일성이 이를 결성하였다는 주장은 남의 업적을 자기 업적으로 가로챈 왜곡이다. 그 단체에 김일성이 참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김일성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255]

와다 하루키도 북한의 주장을 부정하고 ㅌ·ㄷ 동맹이 1926년에 결성된 것이 아니라 1929년에 결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주백도 북한역사학계의 입장을 부인하고 있다. 신주백은 북한역사학계가 최형우의 「海外朝鮮革命運動小事 (제1집)」(동방문화사, 1946)에 만 의존하여 1926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그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주의운동의 동향 (예: 재건설파와 반제동맹, 재건설파와 국민부내 동조자), 1926년 시기에 민족주의운동의 동향을 염두에 둘 때 '타도제국주의'라는 명칭이 도출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국

[255]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2006년 6월).

민부내에서 좌경화된 청년 가운데 일부, 예를 들어 이종락, 최창걸, 김원근 등과 김일성은 1929년 2월에 결성된 남만한인청년동맹에서 함께 활동하며 점차 좌경화하면서 국민부를 비판하고 ML파를 반대하며 재건설파와 친숙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종락 등은 1930년 중반경부터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는 문제를 놓고 재건설파와도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결별했을 뿐만 아니라 1930년 8월부터는 국민부를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1930년 8월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국민부는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었다. 국민부 좌파는 조선혁명군길강성지휘부(1930.9)를 결성하였고, 1931년 봄에는 동방혁명군으로 개칭하였다.[256] 이때 ㅌ·ㄷ 동맹은 좌경화하고 있던 이종락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부 내 청년층의 일부가 1929년 하반기 또는 1930년초에 국민부를 비판하고 ML파를 반대하면서도 재건설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결성된 조직이었다. 실제 당시 중국공산당만주성위원회의 문헌에[257] 이종락이 지도자로 있던 '타도제국주의동맹'은 1929년말 또는 1930년초에 결성된 것으로 나온다.

「조선전사」는 여전히 1926년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동맹(일명 ㅌ·ㄷ 동맹)의 결성으로 새로운 민족해방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결성되고 조선혁명에 새로운 방침이 채택되었다고 주장한다.[258]

---

[256]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2권, pp. 390~391.
[257]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302 각주 48에서 재인용.
[2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16, pp. 54~70.

(3)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 창시 사실 왜곡

북한은 김일성이 1930년 6월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을 하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방침을 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고 주장한다.[259] 「항일무장투쟁사」(2002)는 김일성이 카륜회의를 소집하여 주체사상 창시, 항일무장투쟁의 노선 제시, 당창건 방침 제시 등 역사적 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52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기술하였으나, 중국학자들은 아무런 문헌도 증거도 없다고 증언하였다.[260] 1972년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통치이념으로 결정한 이후, 북한의 전 역사를 주체사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노선은 조선인민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노선이었다”[261]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역사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1930년 6월 당시는 김일성이 길림 감옥에서 출옥하여 육문중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오갈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화성의숙 다니던 시절 알고 지내던 형뻘인 이종락을 찾아가서 이종락의 국민부 좌파 그룹에 합류하여 있던 시기이다. 당시 김일성은 사상적으로 육문중학교에 1929년에 부임하여 온 상월선생한테서 맑스-레닌주의를 새로 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손정도 목사가 주관하는 여길학우회에서 맑스-레

---

259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53~54.
260 박창욱·남임오·최빈홍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261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56.

닌주의를 초보적으로 배우고 있던 시기였다. 맑스-레닌주의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시기에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창시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1930년에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1945년 10월이후 1955년까지 주체 또는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이 김일성의 입으로 말해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주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소련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1955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소련파 5인조 (박창옥 부수상, 박영빈 당중앙위 조직부장, 기석복 육군대학부총장, 정상진 문화선전부 부상, 전동혁 외무성 참사)를 숙청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던 1955년 10월 23일 아침, 내각사무실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왜 당신들은 주체가 없느냐고 비판하면서 직위해제하였다. 그 자리에 노동신문 기자도 취재를 하였는데 다음날부터 주체라는 말이 노동신문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주체사상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그 자리 소련파 5인조의 한 사람이었던 문화선전부 부상 정상진이 증언하였다.[262]

(4) 조선혁명군 창건 사실 왜곡

북한 역사서들, 가령, 「항일혁명투쟁사」와 「세기와 더불어」는 '조선혁명군'을 김일성이 주도하여 창설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 당조직을 결성한 다음에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조선혁명을 창설하였다는 것이다. 조선혁명군이란 남만에서

[262] 전상진 전 북한 문화선전부 부상 인터뷰, (2004년 5월 및 2006년 10월).

민족주의계열 국민부에서 창설하여 운영하던 독립군 부대이며, 양세봉이 총사령으로 있던 부대이다. 국민부는 정의부 출신이 1929년 4월 1일 조직한 민족주의 계열 단체이며, 국민부가 1929년 5월 자신의 무장대인 조선혁명군을 창설하였다. 1개중대에 30여명씩 10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전후해서 4개 중대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국민부 좌파가 이탈해나갔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창설하였다는 조선혁명군은 이종락이 국민부에서 탈퇴하면서 창설한 조선혁명군길강지휘부이며 이종락을 추종하던 김일성이 이곳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있다.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창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다. 북한역사서는 김일성이 당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민족주의계열의 국민부 산하 독립군 출신인 이종락, 김원우 등을 끌어들여서 대원을 확보하고 무장투쟁 경험도 전수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차광수는 통화, 휘남, 관서 일대에서 독립군의 사업을 한 사람이고, 이종락은 고유수에서 정의부 소속의 독립군 1중대에 있다가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할 때 ㅌ·ㄷ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263] 이것은 사실을 매우 심하게 왜곡한 것이다. 김일성이 길림 감옥에서 1930년 5월에 출옥하여 다니던 육문중학교에서 퇴학당하자 화성의숙 시절에 알고 지내던 선배 이종락을 찾아갔는데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 중대장을 하고 있었다. 이때 김일성은 이종락의 조선혁명군에서 분대장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따라다닌 사이다. 그런데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사실의 주객을 전도시켜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창설하였

[26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제2권, pp. 71~72.

고 이종락을 부하로 데려다 쓴 것으로 왜곡하였다.

그런데 「항일무장투쟁사」는 이 정도의 사실관계도 언급하지 않고 독립군과의 사업을 잘하여 선진사상에 동조하는 똑똑한 군인들을 돌려세워 사람과 무기를 해결하도록 하여 1930년 7월 6일 이통현 고유수 산광학교에서 조선혁명군 결성을 위한 당 및 공청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조선혁명군' 결성을 선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64] 민족주의계열의 역사를 김일성 자신의 것으로 왜곡한 사례이다.

1931년 1월 이종락이 체포되고 이종락이 주도한 조선혁명군길강지휘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체포를 피하여 이곳을 떠났다.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주도하였다면 이곳을 떠나서 동만으로 피신해갈 이유가 없다. 김일성은 1931년 초에 동만으로 이동해간 후, 1931년 10월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조선혁명군을 김일성이 창설하였다면 1931년 초에 어머니가 있는 안도로 돌아가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5) 길림에서 동만으로 이동한 동기·배경에 대한 왜곡

김일성이 길림에서 동만으로 이주해간 것은 김일성의 생애에서 큰 변화였다. 길림에서 중학교 시절 동안 맑스-레닌주의를 접한 시기라면 동만으로 이주하자마자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일본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던 동만의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역사서는 동만으로의 이동이 마치 사전에 계획된

---

[26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사』(제1권, p. 298.

목적에 의하여 옮겨간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길림지역의 분파분자에 의해서 초래된 심각한 사태를 명석하게 파악하여 분파분자의 좌익모험주의적 결과를 극복하고 대중의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이것을 계속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1931년에 동만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65]

그런데 사실은 김일성의 동만 안도로의 이동은 길림지역에서의 공산주의자 사냥을 피하여 어머니가 있는 안도 집로 피신한 것이다.

김일성은 길림에서 1930년 5월 감옥에서 나온 이후 이종락이 이끄는 민족주의계열 국민부의 좌파 그룹에서 반년가량 이종락의 조선혁명군길강지휘부에서 활동하였는데 이종락이 1931년 1월에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가 궤멸되었고, 최창걸이 세화군이라는 이름으로 재건하고, 그후 이를 동방혁명군이라 개칭하여 1931년 5월 3일 이 사실을 각 방면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최창걸도 납치되어 행불되었기 때문에 조선혁명군길강지휘부의 조직은 소멸되었다. 더욱이 길림성에서는 중국관헌과 그와 결탁한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자 사냥을 가혹하게 행하고 있었다.[266] 이 무렵 김일성은 당시 길림에서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어머니가 있는 안도 집으로 피신해간 것이다.

---

[265]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근대혁명운동사』, p. 233.
[266]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p. 64~65.

나. 중국공산당 가입부터 3환정위까지 시기(1931.10~1935)

(1) 중국공산당 가입사실 은폐

북한역사서들은 '중국공산당' 입당을 '공산당' 입당으로 표현함으로써[267]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이 아닌 '김일성장군의 무장유격대' 또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독자적 부대로 활동하였던 것처럼 부각하려하였다.

1958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1958년의 「조선통사」는 1931년 10월에 '공산당'에 입당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사실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는데 이를 은폐하고 마치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보이게 사실을 왜곡하였다.[268]

「항일무장투쟁사」(2002)는 이전의 역사기술도 다시 수정하여 김일성이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최초의 당조직으로서 '건설동지사'를 창설한 것으로 기술하였다.[269]

그러나 1931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김일성이 다른 사조직을 운영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1932년 10월부터 시작된 반민생단투쟁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마녀사냥식으로 체포하여 처벌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당을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의 역사서들은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방침이나 정책에 대하여 은폐하면서 마치 김일성의 주도로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

[267]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88.
[268]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38; 『조선통사』, p. 203.
[26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사』~제1권, p. 267.

(2) 중국공산당 주도의 항일투쟁 사실 은폐

만주에서 전개된 중국의 항일무장투쟁은 중국공산당과 동북항일연군이 주도한 것인데 북한 역사서는 이 사실을 전부 은폐하고 있다. 또한 북한역사서들은 김일성이 활동한 부대가 동북항일연군 소속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 1949년의 역사서는 '김일성장군 무장유격대'라는 부대명으로 표기[270]하였으며, 이후에는 모두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표기하였다. 이나영은 김일성이 1934년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71]

당시의 항일무장투쟁은 중국공산당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으며, 중국공산당은 또한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의 지휘하에 통솔되고 있었다. 가령, 1936년 2월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에게 사업정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갔던 중공동만특위 서기 겸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정위인 위증민이 돌아와서 전달한 지시사항을 보자. 위증민은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의 정신과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사항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를 전달받기 위하여 당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과 제5군의 주요 영도간부연석회의가 북호두에서 열렸다. 이른바 북호두회의이다. 여기에서 위증민은 국제공산당 제7차대표회의에서 지은 반파쇼통일전선에 관한 결의와 중공만주성위를 취소하고 남만, 동만, 길동, 북만 등 4개성위를 건립할 데 관한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동북의 항일투쟁을 놓고 제기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공산당과 중공대표단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도 전달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회의의 정신과 국제

---

[270]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88.
[271] 위의 책, p. 354.

공산당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에 따라 금후 당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책략, 방침을 진일보 관철할 문제와 동북항일련군의 건립 및 항일유격전쟁의 발전 등 문제를 토론하였다. 그리고 제2군과 제5군이 서로 연대하여 작전할 문제, 제2군 주력이 남만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유격구를 개척하고 항일유격전쟁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임무 등 문제도 연구하고 확정하였다.[272]

그런데 북한역사서들은 중국공산당의 존재와 역할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김일성만의 역할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행위의 주체가 김일성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주어가 없는 피동태로 문장을 기술하고 있다. 가령, "좌익모험주의자는 1933년 봄 왕청현에서 소집된 동만 당원회의에서 비판받았다. 회의에서는 활동 중에 나타난 많은 좌익모험주의적인 편향이 비판되고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하는 문제가 토의되었다"[273] 등의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좌익모험주의에 대한 비판이란 중공당의 1933년 1월 26일에 내린 1.26지시편지의 통일전선 전술의 정책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을 주체로 중국공산당을 내세우지도 않고 김일성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였다. 즉, 피동태로 역사를 기술하는 매우 특이한 역사기술이다. 항일운동의 조직과 지휘의 주체에 대하여 매우 모호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1972년의 「김일성동지략전」부터는 마치 김일성 자신이 만주지역의 항일무장투쟁의 총지휘자인 것처럼 역사 왜곡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김일성이 당시에도 현재의 수령으로서의 역할

---

[272] 최성춘, 『연변인민 항일투쟁사』(북경: 민족출판사, 1999), p. 260.
[273]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근대혁명운동사』, p. 242.

을 한 것처럼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중공당의 통치이념인 것처럼 묘사한 곳이 많다. 가령, 동만의 동북인민혁명군 2군에서 개최한 대황외회의 (1935년 2월 24일~3월 3일)와 요영구회의(1935년 3월 21일)는 모두 위증민이 동만 특위 책임서기로 부임해 와서 주재한 회의인데 김일성이 한 것처럼 기술[274]하였다.

또한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주체사상으로 해석한 경우도 많다. "유격대안에 조직된 정치기관, 당조직, 공청단체들은 대원들을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조직·진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75]

(3) 명월구회의 소집 사실 왜곡

중공당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서 1931년 12월의 명월구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의이다. 만주사변에 대항하여 중공당의 지시를 만주성위 차원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결의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중국문헌에 이 회의는 동만특위 서기 동장영이 주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장영은 11월에 특위서기로 임명되어 막 부임한 때였다. [276] 북한 역사서는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277] 중공당의 역사적 회의를 김일성 개인이 조직한 것으로 왜곡하였다. 「현대조선역사」도 김일성이 1931년

---

[274]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70.
[275]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p. 110~111.
[276]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85.
[277]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77.

12월 명월구회의를 소집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 전개할데 대하여”라는 역사적 연설을 했다고 기술하였다.[278]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김일성이 명월구회의를 소집하여 10일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279]

(4) 최초의 항일무장부대 창건시기 왜곡과 북한군 창건일 왜곡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부대 창설 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모두 왜곡된 것이다.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58년)는 김일성이 1931년 겨울 안도현에서 항일유격대의 첫 대오를 결성하였다고 주장한다.[280] 1931년 겨울이면, 김일성이 중공당에 가입한 1931년 10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면 중국공산당 문헌에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문헌적 근거도 없다. 이어서 이나영은 1932년 4월 25일 동만 4현(왕청, 연길, 훈춘, 화룡)의 유격대들을 통합하여 동만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이것을 조선인민의 유구한 역사에 있어서 진실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첫 무장대오였다고 주장하며,[281] 현재 북한은 조선인민군의 창군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1932년 4월에 김일성이 안도에서 최초로 조직한 부대란 ‘안도 유격대’가 아니라 우사령부대의 ‘별동대’이다. 별동대란 정치공작원이다. 구국군이 군기가 문란하

---

[278]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현대조선역사』, p. 59.
[279]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2권, p. 244.
[280]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42.
[281] 위의 책, p. 342.

고 투항이나 변절을 잘 하기 때문에 중공당에서 별동대를 조직하여 구국군에 파견시켜 중공당의 유격대와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다.[282]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 김일성의 부대가 실제로 '별동대'로 활약했다는 사실을 시사하여주는 대목이 있다.

"김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유격투쟁의 첫날부터 중국인민들과의 전투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동북에는 일제의 만주침략을 반대하는 구동북군의 일부 부대들로 조직된 '항일 구국군'과 주로 농민들로서 조직된 '의용군' 등 반일부대들이 있었던 반면 김일성 수령 영도하의 항일유격부대는 이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들의 대오속에서 정치공작원(별동대)를 파견하였다. 그 결과 구동북군 유격부대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그들과의 협동작전이 보장되었던 것이다."[283]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 유격대의 일부에서 구국군에 별동대를 파견한 것인 양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별동대가 김일성부대의 전부였다. 중국의 문헌에 당시 안도에 유격대가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또한 안도유격대라면 남만의 조선인 민족주의계열 부대인 양세봉 부대로 이동해갈 수가 없다. 동만 특위 군사부의 승인이 있어야 부대를 이동할 수 있었다.[284]

별동대는 구국군에 침투하여 사상무장을 시키는 조직이었는데 문전박대 당하기가 일쑤였다. 「김일성동지략전」에 그와 관련되는

---

[282] 박창욱 연변대 교수 및 남임오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2006년 6월).
[283]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45.
[284] 박창욱 연변대 교수 및 남임오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2006년 6월).

언급이 나온다. 가령 1932년 봄, 안도에 있는 반일부대 (구국군) 사령부를 찾아갔던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반일부대사령관은 복잡한 정치정세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시고 명철한 판단을 내리시는 그이의 원숙한 식견과 철저한 반제혁명정신에 탄복하여 마침대 반일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동의하였다.…김일성의 연설에 지휘관과 병사들이 김일성의 항일유격부대에 편입되어 그의의 영도밑에 용감히 싸웠다."[285]

그러나 사실은 중국사람 구국군부대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라고 문전박대 당하였다. 그래서 김일성은 별동대를 데리고 조선사람인 민족주의계열의 조선혁명군 양세봉을 찾아갔다.

안도를 떠나 무송을 거쳐 6월에는 통화에 도착하였다. 통화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조선혁명군 사령 양세봉과 연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김일성은 당시 중국인 구국군이 아니라 조선인 민족주의자 부대에의 합류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민족주의자 양세봉은 김일성 부친 김형직과 같이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써 동료의 아들이 찾아와서 연대 투쟁을 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양세봉은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 연대할 수 없다고 문전박대 하였다. 양세봉은 민족주의는 패당은 있어도 사람은 안죽였다고 하면서 김일성을 거부하였다. 당시 공산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인 김좌진 장군 등을 죽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김일성은 다시 소사하 어머니에게로 왔다가 1933년 1월에 왕청의 중공당의 유격근거지로 이동해갔다.

---

[285]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87, p. 92.

북한의 역사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남만의 통화에 나왔다가 왕청유격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머나먼 행군길에서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아서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다”고 기술하고 있다.[286] 이를 북한은 남만원정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일성의 별동대가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당하면서 돌아다닌 방황기를 반영한 표현이다. 이 기간의 김일성의 행적에 대하여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이 중공당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독자적인 판단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무장집단이라고 보았다.[287] 권립 연변대 교수는 중공당의 조직으로서는 당의 승인없이 민족주의계열의 조선혁명군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안도유격대’라는 부대가 창설된 적이 없다. 동만에 존재했던 유격대는 각 현단위마다 창설되었던 연길현유격대, 화룡현유격대, 왕청현유격대, 후춘현유격대로서 이들 4개 유격대가 통합되어 동만유격대로 재편되었으며, 이것이 동북한일연군 제2군의 전신이다. 결국 북한이 1932년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삼고 있는 것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5) 조선인민혁명군 존재 사실 왜곡

조선인민혁명군이 김일성에 의하여 조직되고 이것이 김일성의 유격대였다는 것이 북한의 항일빨치산 신화의 핵심이다. 북한은 “1934년 3월 동만 반일인민유격대를 핵심으로 동북 각지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를 통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였다”[288]

---

[286] 위의 책, p. 95.
[287]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94.

고 주장한다. 중공당의 동북인민혁명군이 창설된 것과 같은 시기이다.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왜곡한 셈이다. 동북항일연군의 초기의 명칭이 동북인민혁명군이었는데 이 명칭을 변형하여 김일성은 자기의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조작하고 있다.[289] 동북인민혁명군 2군이 1934년 3월에 창설되었는데 4개현의 유격대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로 통일하고 사장에 주진, 정위에 왕덕태가 취임하였다. 김일성은 제3퇀(团) 퇀장 밑의 직책인 정위에 임명되었다.[290] 그런데 3퇀 정위에 불과하였던 김일성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군장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였다. 동북인민혁명군 및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김일성의 역사로 왜곡한 것이다.

만주의 조선인들이 민족자치의식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주지방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은 중국인의 견제 때문에 민족자치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민족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생단을 조직하였다가 중공당의 혹독한 탄압과 억압을 받아 금방 해체되고 말았다. 한번 민생단을 조직한 것이 화근이 되어 민족주의적 의식이 있는 사람을 약 5년동안 민생단으로 몰아서 처형한 것이 바로 민생단 사건 또는 반민생단투쟁 사건이다. 공산국제에서 반민생단투쟁 금지지시가 하달된 1936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무시한 역사왜곡이다.

---

[288] 『김일성장군의 략전』, 로동신문, 1952년 4월 15일자.; 과학원연구소, 『조선통사』ㅜ하권, p. 212.
[289] 앞에서 동북항일연구 11개군 창설과정에 대한 기술을 참조.
[290]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209.

조선인민혁명군이 김일성 자신의 군대라는 이 주장이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의 가장 핵심이며 가장 큰 역사왜곡이다. 즉, 북한과 김일성은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창설하여 연합하여 투쟁한 동북항일연군을 김일성 자신의 혼자만의 업적과 역사로 날조한 셈이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 2군 6사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는 것은 모든 기록과 증언으로 보아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활동을 중국의 동북인민혁명군 또는 동북항일연군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전개된 것으로 주장한다. 1934년 3월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여 그 조직으로 줄곧 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동만항일투쟁 참가자 림춘추도 1960년에 자기의 회고록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동만 조선인민 반일유격대를 기본으로 1934년 3월 편성되었다"고 주장한다.[291] 1992년에 출판된 김일성회고록(3)에 따르면 1934년 3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가 설립될 같은 시기에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이 개편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단독부대를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이없는 주장이다. 김일성이 활동하였다는 동만지방에서는 1932년~1936년 사이에는 민생단사건으로 날을 지새웠다. 500여명의 한인 무장투쟁 참가자들이 민생단 혐의로 처형당하였다. 민생단이란

[291] 림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63~64.

조선사람으로서 조선의 자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당시 동만지역에서 조선민족 단독으로 항일부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연변대 역사교수인 김성호는 자신이 수집한 중공당의 모든 역사문헌자료들에는 1934년에 동북인민혁명군과 별도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창설되었다는 기록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292]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면 '반민생단투쟁'은 누가주도한 사건이란 말인가? 김일성 자신이 주도하여 500여명의 조선인 항일투쟁관군을 처형하였다는 말인가?

1934년 봄에 이르러 중국 동만당조직과 항일유격구 내부에서 반민생단투쟁이 한창 고조를 이루고 조선민족주의=파쟁주의=민생단의 등식이 완전히 동일시 되는 험악한 상황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조선인들의 단독적인 민족부대가 조직될 수 없었다.[293]

반민생단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중공 만주성위에서 파견된 특파원들인 종자운, 위증민, 그리고 중공 동만특위의 동장영 등이다. 반민생단 투쟁은 중공당이 주도하였고 김일성 자신도 민생단의 혐의를 받고 제2군 3사 3탄 정위직에서 정직된 상태로 있다가 종자운과 왕윤성의 도움으로 제5군 주보중 부대로 피신해갔다. 이것을 북한의 역사에서는 '제1차 북만원정'으로 왜곡되어 있다. 마치 김일성이 북만까지 부대를 파견하여 주보중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의 회고록(4)에 기록된 다른 내용과도 서로 모순된다. 회

---

[292]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서울: 백산자료원, 1999), p. 531.
[293] 위의 책, p. 532.

고록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국제 제7차대회에 참가하고 1936년 2월에 돌아온 중공당 위증민과 만난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국제당에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정신적 지지, 노선상의 지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조선혁명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대책적인 안까지 주어 행동상 지지도 표시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던 반일유격부대(동북항일연군)를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로 갈라 재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 조선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부터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편성하고 반만항일의 기치밑에 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국경지대에 진출하여 조선혁명에 주력한다고 하여 중국인민의 항일무장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294]

김일성 회고록의 첫 번째 단락 부분은 정확한 사실 기술이다. 동만지방의 조선인들은 중국인과 공동으로 항일연합군을 결성하여 투쟁하였고 김일성은 바로 동북항일연군의 2군 6사 사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동북항일연군 2군 6사 소속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에서 자신의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독립된 부대로서 중국인 부대와 공동투쟁을 한 것처럼 보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34년에 이미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조직되었다면 여기서 왜 중공대표가 지금까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던 반일유격부대들을 민족별 부대로 재편성하라는 공산국제의 지시가

---

[294]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4권, pp. 246~248.

나왔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와다 하루키는 "제2군6사의 조선인 전사들이 조선의 독립과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운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동북항일연군의 부대였지만, 주관적·내용적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295]

(6) 민생단 관련 사실 은폐·조작

당시 동만지역에서 민생단 문제는 조선인 항일투사 사회에서 마녀사냥과 같은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560여명에 가까운 조선인 항일투사들이 민생단으로 혐의를 받고 처형당하였다. 이 민생단 문제에 김일성도 여러 가지로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북한은 세가지 측면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 김일성은 1933년 9월경에 민생단 혐의를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고 1935년 두 번째 체포령이 내렸을 때 종자운(중즈윈, 중청단 만주성위 특파원, 중공 왕청특위 서기)과 왕윤성(선후로 왕청특위 선전부장, 훈춘특위서기, 독립사단 제4퇀 정치위원, 2군 4사 정치위원 등 직을 역임)이 북만 5군의 주보중 부대로 피신시켜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만큼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서는 일체 어디에서도 김일성이 민생단 혐의를 받고 고생하였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

[295]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141.

김일성이 체포령이 내리자 종자운과 왕윤성이 김일성을 북한의 주보중 부대로 보낸 것을 북한에서 제1차 북만원정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통사」는 왜 북만원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없이 북만원정을 갔다가 일본군의 반격을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격퇴했다는 식으로 기술하였다.

> "1934년 10월 인민혁명군부대는 노야령을 넘어 북만지역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정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유격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있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첫 시련이기도 하였다. … 영안지방에 진출한 혁명군부대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1935년 1월경 일부 부대를 남겨두고 동만지방으로 개선하였다."[296]

둘째, 당시 김일성은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민투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역사서는 김일성이 주체노선의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반민투의 좌적 오류를 비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북한역사서는 김일성이 대황외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족배타주의자들(중국인 간부를 칭함)과 종파사대주의자(조선인 간부를 칭함)들을 상대로 그들이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유린하고 배신적이며 파괴적인 책동을 감행한 죄상을 전면적으로 폭로비판하시였다"[297]고 기술하였다. 1935년 2월의 대황외회의는 동만에서 민생단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공당·단 고위 간부회의였는데 김일성은 간부가 아니어서 참석할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이 회의를 김

---

[296] 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통사』下권, p. 217.
[297]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51.

일성이 소집한 것으로 기술하고 김일성의 확고한 주체노선에 따라 진행된 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98] 대황외회의는 민생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고 민생단 문제란 조선사람이 조선사람 자치를 주장함으로써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일본인 첩자로 기소하는 문제였는데 김일성 자신이 민생단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주체노선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북한의 「김일성동지략전」 필자들이 이러한 당시 상황을 알고나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민생단사건의 큰 원인의 하나는 당시 조선인 유격대원과 중공당 간부와의 갈등때문이었는데 북한역사서는 이 원인구조를 은폐하고 조선인투사의 사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일성 부대가 중공당 부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역사기술 방식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반민생단투쟁에 가담하였던 조선인 항일투사를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가령, 숙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조선인 리송일과 같은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고 처벌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당의 간부자리에 침입하여 있던 김성도(ML파), 리송일(화요파) 등의 파벌주의자는 많은 건실한 혁명투사를 민생단으로 낙인찍어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고 지적하였다.[299] 중공당을 비난하여야 할 상황인데 이를 책임없는 것으로 밝혀진 조선인 유격대 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당시의 조선사람들에 대하여 "권세와 지위욕에 눈이 어두운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일제의 교활한 민족이간정책과 파괴암해활

[298]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50, p. 154.
[29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근대혁명운동사』, p. 265.

동을 분간하지 못하고 놈들의 간계에 넘어가서 반민생단투쟁을 좌경적으로 진행했다"고 기술하고 있다.[300]

넷째, 북한의 역사서가 김일성이 반민생단투쟁을 비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김일성은 반민생단투쟁에서 중국측 간부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반민투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가령, 1935년 3월 김일성은 민생단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동만지방의 숙반위원회 책임자 이송일에 대한 군중심판대회에서 중공당 정위 위증민의 연설을 통역하였다는 당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의 증언이 있다. 남임오 교수가 수행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1981년 7월 27일에 김하윤이 증언을 하였다. 이 두 노인은 왕청톈이 있던 마촌사람으로서 김일성의 왕청톈이 있던 마을이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톈부 집자리 나무에 '왕청톈 유적'이라는 비석이 있었는데 이곳을 북에서 '사령부 유적지'라고 고쳐썼다고 증언하였다. 김하윤 노인은 그때 '혁명자녀학교'에서 문지기를 하던 노인인데 김일성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문난 사람이다. 중국어 잘하고 그래서 리송일을 민생단으로 심판할 때 김일성이 통역으로 섰다"고 증언하였다. 리송일은 당시 동만숙반위원회 주석이었는데 민생단으로 몰려 심판을 받고 총살되었다.

(7) 대황외회의와 요영구회의 소집자 사실 왜곡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은 대황외회의를 김일성이 소집하고 연설도 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그 후속회의로서 대황외회

---

[300]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47.

의 결과를 군대에서 집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요영구회의(1935년 3월 21일)였다. 요영구회의도 동만특위 서기 위증민이 소집한 회의로서 대황외회의 결과를 집행하고 토벌이 격심하여 위기에 빠진 동만 유격근거지를 유지해야할지 폐지하고 작전지역을 옮겨야할 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김일성이 이런 회의를 소집하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2군 3사 3퇀(团) 정위로 겨우 임명되었다. 이런 회의를 김일성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요영구회의에서는 김일성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민생단사건 관련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반민생단투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민생단혐의로 체포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피하여 북만에 가있을 때 만난 길동순시원 오평과 담화한 내용이다. 즉, 김일성은 오평으로부터 반민생단투쟁 문제의 본질이 중공당의 좌경적 오류에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오평의 시각을 알게 되었고 오평의 시각에서 김일성은 반민생단투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중공당이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사연을 두고 북한의 김일성동지략전은 김일성이 "주체노선을 주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301]

요영구회의에서 당시 일제의 토벌로 거의 궤멸된 유격구를 해산해고 동만의 2군이 북만과 남만으로 나누어 분산이동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일성 3탄은 다시 북만 5군의 구역으로 진출하였다. 북한은 역사서는 이러한 결정을 김일성이 영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302]

---

[301] 위의 책, p. 154.
[302] 위의 책, p. 156.

(8) 남호두회의 존재 사실 왜곡

재만조선인의 항일투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계기가 1935년 7월에 열린 공산국제 제7차회의이다. 각 민족을 연합하여 무장을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민족 간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민생단문제를 종결하는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 해법의 내용은 '신방침'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간도 조선인에 대한 자치를 허용하고, 한국독립당을 창설하며, 한국독립군을 창설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민생단문제가 중국인과 조선인 간의 갈등을 일제가 이간질을 조장하여 생긴 문제인 만큼 조선인의 자치를 허용하면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반일투쟁의 공동전선을 강화하게 되어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법이 공산국제 7차회의에서 나오게 된데는 오평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평(본명은 양송)은 1934년 9월경 길동지구에서 순시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5년 5월 길동특위를 조직하고 서기를 담임한바 있는데 그해 9월 공산국제 주재 중공대표단으로 부임하였다. 오평은 민생단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다음부터 줄곧 간도한인의 민족자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출 해왔으며, 공산국제 주재 중공당대표단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그는 중공당의 항일민족통일전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관철집행하고 동북의 항일혁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303] 오평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가깝게는 재만조선민족에 대한 1935년의 신방침이 결정되게 되었고, 해방후

[303] 黑龍江黨史資料, (제7집, 1986), pp. 161~166;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 사건 연구』, p. 183에서 재인용.

1952년 9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공산국제의 이 방침을 동만에 전달한 사람은 위증민이다. 위증민은 동만특위 서기로서 대황외회의와 요영구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공산국제에 참가하고 공산국제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북만의 주보중 5군에 도착한 것이 1936년 2월이었다. 이곳에서 위증민은 1936년 2월 5일~6일에 주보중과 만나 신방침을 전달하고 동만지방의 상황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북호두회의이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서는 김일성이 1936년 2월 27일경부터 일주일간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인 남호두회의[304]를 소집하여 새로운 방침을 지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05]

초기의 북한저작은 김일성이 공산국제 제7차대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언급[306]하였으나, 이후의 역사서는 밑도 끝도 없이 김일성이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해석의 전환점이 바로 북호두회의를 남호두회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북호두회의는 공산국제의 결정을 위증민이 동만에 전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일투쟁의 주체가 공산국제와 중국공산당이며 동북항일연군인데 반하여,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왜곡된 역사는 김일성이 느닷없이 남호두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투쟁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304 위증민, 왕덕태, 주보중에 의하여 작성되어 현재 남아있는 중국문헌 가운데 남호두회의가 언급된 것은 없다.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446 참조.

305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64.

306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근대혁명운동사』, p. 279.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이 위증민을 2월 중순에 남호두에서 만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307]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1936년 2월 9일 영안현 북호두를 떠난 위증민은 자신보다 10여일 앞서 떠난 2군장 왕덕태와 정치주임 이학충을 액목에서 만났으며 그 직후에 그들은 이곳에서 제2군, 5군의 서부파견대로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서부파견대의 일원이었던 김일성도 위증민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남호두회의라고 볼 수는 없다.[308]

사실은 위증민과 주보중 및 왕덕태 등의 2군 지휘부가 참석하는 북호두회의가 열리고 그 결정사항으로서 2군은 북만에서 철수하여 동만 미혼진으로 집결하라는 지시사항을 남호두에 주둔하고 있던 김일성에게 전령이 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이 그 사실을 전달받고 2군 3퇀 대원들에게 전달하고 북호두회의의 지시사항인 미혼진 집결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혼진으로 부대를 이동하였다.

위증민이 공산국제 7차대회의 지시에 의거하여 동만에서 각 민족을 연합하여 무장을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2군을 데리고 동만 미혼진으로 나왔으며 김일성도 미혼진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 역사서는 "남호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군사정치적 투쟁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은 1935년 말~1936년 봄에 북만원정으로부터 액목으로부터 무송을 거쳐 압록강안 장백지구로 진출하였다"[309]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36년 8월에 진출한 부대는 3월 초에 미혼진에서 개최

---

[30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제4권, p. 238.
[308] 崔燎原, 王德泰與抗聯2軍, 吉林教育出版社, 1994, p. 98;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 447에서 재인용.
[309]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81.

된 미혼진회의에서 결성된 부대이며 백두산으로의 진출을 결정한 것도 미혼진회의이다.

김일성동지략전은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김일성동지의 전략적 방침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이 밝혀주는 불멸의 횃불이었다"[310]고 주장하고 있다. 위증민의 1935년 7월 공산국제 제7차 대회에서 결정된 것을 전달해준 것을 마치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방침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항일무장투쟁에서 주체사상의 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 미혼진 회의와 동강회의 소집자 사실 왜곡

미혼진회의는 1936년 3월 8일 이전에 열린 회의로서 공산국제 7차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동만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동만의 당과 군 간부들이 모인 회의로서 동만특위 서기 위증민이 주재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사항은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항일연군으로 재편하며, 2군에 3사를 설치하고, 사장에 김일성을 임명하며, 새로 편성될 제3사는 조·중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반민생단투쟁을 종결하며, 조국광복회를 건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혼진회의의 결과가 1936년 3월 8일자 문서[311]로 남아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회의를 김일성이 주재한 회의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312] 남호두회의후, 전국적 규모에서 혁명운동의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거느리

---

[310]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70.

[311] "위민생, 왕덕태가 공작위원회 및 윤성동지에게 보내는 서한: 2군의 조직편제 및 당의 조직문제에 관하여," (1936년 3월 8일), 김우종 편, 『동북지역조선인항일역사사료집』, 제8권, p. 269.

[312]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71.

고 백두산으로 진군하는 길에 1936년 초봄에 민혼진에 이르러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재편성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13]

동강회의는 1936년 5월 1일 개최된 회의로서 2군 군장 왕덕태가 주재한 제2군 師급간부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미혼진회의 결정사항 중 제2군의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는데 백두산 일대에 제1, 3사를 진출시켜 새로운 유격구를 건설하며, 재만조선인광복회 건설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런데 북한역사서는 김일성이 동강회의를 주재하여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선포(1936년 5월 5일)하고, 3·1월간 발간을 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14] 사실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6월에 남만 하리에서 열린 하리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조국광복회는 계급, 성별, 직위, 연령, 종교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치단결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정책이다. 조선인들에게 조국광복회는 사실상 공산주의계열과 남만의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 3·1월간은 모두 남만성위 서기 이동광이 주도한 것이다.

다. 2군 6사 사장 시기 (1936년 3월~1940년 10월)

(1) 2군 6사 사장 임명 과정에 관한 사실 은폐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에서 제2군 독립사 제3퇀 정위로 활동하다가 1936년 3월초 미혼진회의에서 2군 3사가 신설되면서 2군

---

[313] 위의 책, pp. 171~172.
[31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현대조선역사』, p. 103.

3사(6월부터 2군 6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동만지역 제2군의 민생단사건의 참화 속에서 대부분의 조선인 간부들이 처형되는 와중에서 김일성은 살아남아 고급지휘관으로 발탁되었다. 김일성이 2군 3사 사장이 되는 과정은 김일성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전환기인데도 북한의 전기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은폐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김일성이 1931년 만주사변 직후 처음부터 항일유격대의 대장이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김일성이 혼자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여 지금까지 혼자서 지휘와 사령관을 맡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세기와 더불어」 제4권에 새 사단인 2군3사의 창설에 관한 기술이 있다.[315] 20여명의 부대에 민생단을 대원으로 편입시켜 새 사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김일성 부대인 셈이다. 이전의 1932년 4월 25일에 창설한 부대, 1934년 3월에 창설한 조선인민혁명군이 김일성 자신이 창설한 부대라면 그들을 놔두고 백두산 지역에서 활동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할 이유가 없다. 새 사단 즉 2군 3사가 첫 자기 부대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모순적인 역사기술이다.

(2) 동북항일연군 2군 6사라는 사실 및 부대명칭 관련 왜곡

김일성이 만주에서 활동할 때 소속된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2군 6사로서 중국공산당의 부대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 중국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군대와 당조직을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왜곡하여 모든 역사서를 기술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설명에서 맥

[31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4권, p. 321.

락이 맞지 않고, 인과적 연결이 되지 않는 역사서술이 매우 많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북한 역사서를 읽는데 매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가령, 북한은 조중인민혁명군, 조중연합부대, 조선인민혁명군 명칭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동북항일연군으로 활동한 김일성 부대가 독자적 부대인 것처럼 기술하려다보니 저지른 모순이다.

초기 역사서인 1958년 「조선통사」에서 만주의 항일투쟁을 김일성부대의 단독 업적으로 주장하였는데 마지막 마무리 부분, 즉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 부분에서 국제혁명세력 즉 소련 및 중국과의 항일연합전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하다.

>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는 이 투쟁이 국제혁명세력과의 공고한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일제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보장한 데 있으며 또한 이 투쟁이 국제혁명운동과 기타 식민지 및 반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써 전개된 거기에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한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날부터 국제세력과의 긴밀한 연계하에서 소련의 성과에 고무되었고 중국공산당과 밀접한 연계하에 진행되었다. 동시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무장투쟁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소련을 옹호하였으며 공동의 적 일체를 반대하여 중국인민들과 항일연합전선을 공고히 형성하였다.[316]

중국과의 연합전선 및 소련과의 연합전선을 인정한 것이 후의 주체사상이 확립되었을 때와 다른 점이다.

동북항일연군을 언급하면서도 동북항일연군 전체를 김일성이 총사령으로서 지휘를 한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도 있다. 가령, 동북항일연군 1로군(1군과 2군이 통합된 부대)은 제2군 1사 사장

---

[316]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 p. 274.

정빈의 투항이후 부대편제를 3개 방면군 편제로 개편하였는데 1군은 1방면군, 2군 6사는 생존자가 가장 많아 2군 6사는 그대로 2방면군으로 개편되었고, 2군의 나머지 부대는 3방면군으로 개편되었다. 김일성은 당연히 2방면군장을 맡았다. 그런데 마치 김일성의 부대가 3개 방면군체제인 것처럼 역사를 허위로 기술하고 있으며 김일성은 2방면군과 3방면군을 지휘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317] "당시 김일성 원수는 제2, 3방면군을 지휘하였으며 1940년 초부터는 동, 남만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체부대들을 총지휘하였다"고 기술하였다.[318] 이것은 사실에 가깝다. 왜냐하면 동북항일연군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1로군의 양정우, 왕덕태 등의 다른 지휘관이 거의 다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김일성이 처음부터 동북항일연군 전체를 지휘한 것처럼 왜곡하였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부대명칭과 규모를 정확히 기재한 부분이 있다. 즉 김일성회고록 7권, 고난의 행군 부분에서 "나는 2방면군을 몇 개의 방향으로 갈라서 활동하게 하고 나 자신은 7련대와 함께 움직일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 참가한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내가 7련대와 같이 다니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 결국 우리는 방면군을 세 개의 방향으로 분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사령부는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를 데리고 청봉밀영을 거쳐 가재수 방향으로 나가고, 오중흡이네 7련대는 장백현 상강구일대에 진출하여 활동하며, 8련대와 독립대

[317]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 p. 258.
[318] 위의 책, p. 258.

대는 무송현 동강일대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319] 김일성 부대의 명칭, 규모, 편제를 정확히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김일성이 제2방면군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전부대 중에서 제2방면군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3) 조국광복회 관련 사실 왜곡

조국광복회는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1935년 7월 공산국제 제7차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회의에 참가한 위증민이 동만에 전달한 것이 1936년 3월의 미혼진회의이다. 공산국제에서는 민족 간의 통일전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에게 조선인만의 당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는데 동만에서는 동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광복회라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조선광복회를 조직한 것은 1936년 6월 하리회의에서였다. 하리회의는 위증민이 공산국제 7차회의의 신방침을 남만에 전달하기 위하여 위증민이 주재한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위증민은 남만의 제1군장 양정우와 처음 만났다. 회의 결과 남만특별위원회와 동만특별위원회가 남만성위원회로 통합되었다.

하리회의에서 "한인공작의 부활문제"라는 제목의 결의를 통하여 처음으로 '조국광복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처음으로 '조국광복회'라는 조직명칭이 결정되었다. 이 결의는 위증민의 이름으로 된 것이지만 회의의 토론을 근거로 한 결의라고 판단된다.[320]

---

[319]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7권(계승본), p. 159.
[320]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143.

1936년 6월 10일자로 된 두개의 문서 '재만한인 조국광복회 선언'과 '재만한일조국광복회 목전 10대 강령(초안)'은 하리회의에서 작성된 것이다. 선언에는 발기인으로 오성륜, 엄수명, 이상준 3명의 서명이 있다. 오성륜은 전광의 본명이며, 이상준은 이동광의 본명이다. 엄수명은 제1군의 군수처장으로서 제1군의 최고위직 조선인이었던 엄필순이라고 추정된다. 이 3인은 남만 사람이며 기초자는 전광이다.[321] 동만에서는 민생단사건때 지식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조국광복회는 동만의 공산주의계열과 남만의 민족주의계열을 합하여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만지역에서 남만에 의하여 전개하게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동강회의에서 조선광복회가 조직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김일성이 하리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김일성이 참석한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가 조직된 것으로 왜곡한 것이다. 동강회의는 2군고급간부회의로서 조선인을 공작대상으로 하는 조국광복회의 결성 문제는 중공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조국광복회 강령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광복회가 공산국제 7차대회 결정사항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1935년 봄, 요영구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22] 장백지역에서 정치공작원을 파견하여 조국광복회를 조직한 것은 김일성인 것은 사실이다. 최초로 파견된 사람은 6사 조직과장 권영벽 이었고, 이어서 6사

[321] 위의 책, p. 145.
[322] 위의 책, p. 378.

청년과장 장증열, 농민 이제순 등을 파견하여 공작하도록 하였다.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을 마치 김일성이 발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323] 실제 발행인은 이동광이다. 특히 북한은 "조국광복회 강령은 맑스-레닌주의 전략전술을 1930년대 우리나라 현실과 조선혁명의 발전에 가장 부합되게 적용하여 작성한 혁명적 강령이며,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여 혁명단체들을 련결시켜 당창건을 위한 진정한 공산주의적 핵심을 확대강화케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24] 조국광복회는 남만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일전선 조직체인데 공산주의 결집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3·1월간 창간호에 2군 3사의 반일전사는 90여명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북한역사서는 기술하고 있다.[325] 2군 3사의 당시 부대규모를 고증하는 자료이다.

(4) 보천보 전투 전과 과장, 정책실패 사실 은폐

보천보전투는 북한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적 사례로 간주될 만큼 중요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동북항일연군 신방침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2사, 4사, 6사가 연합하여 조선 국내에 처음 진공한 사건으로서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대대적인 보도 때문에 김일성의 이름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보천보전투 그 자체는 국내에 처음 진공하였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일본 경찰의 사상자도 없는 등 별 전과는 없는 전투였는

---

[323]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89.
[324] 위의 책, p. 377.
[325]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197.

데, 그 이후 일본 경찰의 추격전으로서 간삼봉전투까지 이어져서 일본 측의 피해가 커졌다.

북한이 중시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보천보전투에 대한 과장과 왜곡이 그만큼 많다. 먼저, 1군 2사, 4사와 2군 6사(김일성 부대)의 연합부대의 작전이었는데 김일성 부대 단독 작전인 것처럼 조작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인양 왜곡하였다.[326]

북한의 역사서들은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이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동포 형제 자매들은 일제 경찰들의 눈을 피하여 가면서 서로 끌어안고 감격과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하고 "환호하는 인민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였다"고 기술[327]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전투 중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보천보전투는 불과 1시간만에 보천보마을을 습격하여 주재소와 주요 관공소에 불을 지르고 식량과 구군품을 노획하여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동아일보 1936년 6월 5일자에 의하면 주민들이 공포에 질렸다고 보도하였다. "백여호 천여주민이 사는 보전촌락 전소 상태, 천여명 주민이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라고 보도하였다.[328]

---

[326] 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통사』, p. 247.

[327] 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89;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213.

[328] "장백현 20도구의 밀림지대를 중심으로 하야 작년부터 동서로 신출귀몰하며 약탈, 방화, 협박, 폭행을 감행하여 오던 공비 김일성 1파와 또 평북 대안의 밀림지대를 무대로 하야 수십년간 활약하여 오던 공비의 두목 최현 1파와 합류하여 3백명의 정예부대중 약 100명은 4일밤 11시반경 심야를 틈타서 간산군 선혜면 보전리로 침입하여 2파로 나누어 1대는 보천보주재소를 습격하는 동시 다른 1파는 각지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우편소 면사무소 삼림보호구 사무소 등에 방화하는 1면 약 100여명호의 촌락을 포위하고 약탈을 마음대로 하다가 한시간만에 대안으로 도주한 사건이 돌발하여 보천보촌락의 천여명

김일성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증언한 사람이 김일성부대의 기관총반 반장 강위룡이다. 강위룡은 항일무장투쟁 당시 김일성과 야, 자 하는 사이였으며 만주에서 연해주로 갈 때 김일성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1962년까지 연변에서 사법부장을 지냈다가 북한으로 갔는데 보천보 기념관에서 보천보전투가가 굉장한 전투였던 것처럼 과장하고 김일성이 연설한 것처럼 해놓은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가 해주에 노동개조 처분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1년에 한번쯤 빨치산 하던 사람들 모이는 행사에서 김일성이 곰(강위룡 별명)이 어디있느냐고 묻자 해주에 노동교화 보낸 사실을 알고 곧바로 강위룡을 불러올려 평양위수사령관으로 보임했다는 사실이 있다.[329]

김일성이 연설을 하지 않았지만 대원들이 전단을 뿌린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보천보전투에서 뿌린 전단에 "조선인민혁명군 북조선원정대 사령 김일성"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동북항일연군 북조선원정대 사령 김일성"이라는 중국 문헌이 있다.[330]

또한 북한 역사서는 보천보 전투에 대한 기술에서 대단히 성공적이 전투로 기술하고 있다. 사실은 보천보 전투가 국내진공이라는 선전효과는 거두었지만 전투의 실질적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다. 동북항일연군이 궤멸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천보 전투 이후 일본 관헌측은 필사적으로 토벌을 전개하였다. 장백현의 조국광

주민은 공포에 떨게한 소위 제2동흥사건을 일으키었다". 『동아일보』, 1936년 6월 8일.

329 박창욱 연변대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330 조선로동당, 『김일성동지략전』, p. 212.

복회 조직은 739명이 체포되어 거의 궤멸되었고, 김일성부대는 일본군의 집요한 추격을 당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1사 사장 정빈이 투항하고 1로군 군장 양정우가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내고 결국 1940년 가을에 소련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5)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의미 왜곡

보천보전투는 중일전쟁(1937년 7월 7일)을 일으킨 일본에게 토벌작전의 고삐를 더욱 죄는 계기로 작용하여 이후 동북항일연군은 매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제1로군 총사령 양정우의 오른팔이었던 1사 사장 정빈이 투항하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군의 편제, 전략이 모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보천보전투로 인한 조광 검거사건이후, 장백에서의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고 1938년들어 무송, 임강, 몽강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일성부대는 1938년 말부터 일제 토벌대에 추격당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며 장백현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종락이 김일성의 조모를 앞세워 투항을 권유하는 정도로 포위가 좁혀졌기 때문이다. 1938년 12월~1939년 3월 사이 100일간 일군의 추격을 피해서 몽강현으로부터 압록강 연안 북부 국경일대를 향하여 이동한 사건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컫는다.

북한 역사서들은 '고난의 행군'을 한 것만 강조하였지 보천보전투에서 전략적 실패로 말미암아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북한 역사서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의의로서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김일성의 노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

쳐 싸웠다"[331]고 기술하고,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오직 혁명의 한 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는 공산주의 투사로, 강철의 전사로 민듬직하게 자라났다"[332]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과거의 정책실패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했던 고난의 행군을 마치 위대한 전설인양 지금 시점에서 불러내어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경제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당연시 하도록 하고 있다.

(6) 남패자회의와 소할바령회의 사실 왜곡

1사사장 정빈이 1938년 6월 투항하자 제1로군은 정치위원 위증민과 군장 양정우가 7월에 제2차노령회의를 열고 제1로군을 3개 방면군으로 부대를 재편하였다. 김일성은 제2차노령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938년 11월 25일이 날짜에 김일성은 하리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던 제1로군장 양정우를 남패자에서 만나서 제2차노령회의의 결정을 전달받고 제2방면군을 편성하였다.[333] 북한의 역사서가 주장하는 남패자회의는 노령회의의 결과를 전달받은 김일성이 자기 부대내에서 명령을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 남패자회의를 소집하여 방면군으로의 부대 재편을 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34]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소할바령회의를 소집하여 소부대 활동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33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현대조선역사』, p. 133.
[332] 위의 책, p. 133.
[333] 신주백,『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p. 182.
[334] 위의 책, p. 131.

사실은 위증민이 1940년 3월 중순경 화전현 두도류하에서 제2차 두도류하회의를 열고 소부대 형식의 활동 및 무장부대의 중소 국경지대로의 이동 등을 결정하였다. 김일성은 이 방침을 7월 초에 위증민을 만나서 전달받았다. 그런데 북한 역사서는 이를 마치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내린 결정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는데 대하여,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35]

라. 소련 야영 시기 (1940년 10월~1945년 9월)

(1) 소련 피난 사실 은폐

북한의 역사서들은 김일성의 소련으로의 피난사실과 88여단에서의 활동 사실을 은폐하였고[336] 이에 대한 중국 및 남한 역사학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김일성 사후 발간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에서 처음으로 소련으로의 피난사실을 기술하였다.[337]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58)는 김일성이 만주에 체류하면서 유격활동을 계속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하여 대부대 활동을 중지하고 소부대 활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왜곡하였다. 1940년 8월 소할바령에서 개최된 인민혁명군 당위원회 긴급회의에서는 어려운 정세하에서 역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부대 활동에서 소부대 활동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 결의에 근거

---

[335] 위의 책, p. 331.
[336]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388.
[33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제8권, p. 60.

하여 1941년부터 소부대 활동으로 전환하였다고 기술하면서 김일성부대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기술을 종료하고 있다.[338]

또한 「현대조선역사」는 김일성부대가 만주에서 군정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339] 소련 월경사실을 은폐하고, 소련에서 했던 군정훈련을 만주에서 한 것처럼 기술하였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발간한 김일성회고록 계승본 「세기와 더불어」 8권에서 이 사실을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국제당의 초청을 받고 소련으로 들어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 국제당에서 파견한 연락원 2명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연락원들의 말이 자기네를 파견한 사람은 원동군사령부에 있는 류센코 장령인데 그가 국제당의 명의로 전달하려고 한 사항은 1940년 12월에 하바로브스크에서 국제당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만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항일무장부대들이 대부대 활동으로부터 소부대 활동으로 넘어가며 원동(연해주)에 기지를 정하고 력량을 수습재편할 수 있도록 조속히 들어오라는 국제당의 지령도 동시에 전달하였습니다.[340]

사실은 김일성 부대는 1940년 8월부터 소련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10월 23일 경 월경하였다. 김일성과 소련 월경을 동행하였던 서순옥의 월경 전후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1940년 8월에 김일성, 강위룡 등 우리 16명은 소련으로 향하여 떠났다. 소련 땅에 들어서기 전에 훈춘의 어느 산곡대기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혼례를 하였는데 혁명가를 부르며 오

---

[338]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p. 427.
[339]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현대조선역사』, p. 147.
[34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권, p. 51.

락을 진행하였다. 김일성, 강위룡 등 우리 16명 유격대 전사들은 소련땅에 들어선 다음 김일성 동지가 강위룡과 다른 한 동무를 파견하여 소련 변방 전사들에게 체포당하라고 지시하였다. 체포된 다음에 정황을 소련 당조직에 알리자는 계획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체포되어 땅굴 감옥에 감금되었다."[341]

그런데 김일성 부대의 소련 피난은 상급부대의 지시없이 무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당시 제1로군의 상황보고를 받은 주보중은 김일성, 서철, 김일 등이 위증민의 결정을 어기고 제1로군 사령관 위증민을 남겨두고 부대가 모두 탈출해왔음을 알았다. 주보중은 4월에 위증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김일성 소부대를 만주로 출발시키면서 제3로군의 책임자 김책과의 연명으로 위증민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1941년 3월 12일자)를 김일성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중공당의 지시 없이 김일성이 소련으로 피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설령 아무리 곤란해도, 설령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김일성과 윤준산 동지 부대의 월경은 잘못이다. 이 잘못은 원래 혁명적 입장 전체의 동요는 아니고 전체의 방향을 잃은 것도 아니다. 이 잘못은 제1로군 총부를 아예 이탈하여 유격대 지지투쟁의 가능한 조건을 방기하고 전부의 환경을 인식하지 않고 곤란을 극복할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월경 방법을 취한데 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다. 김일성과 그 이하 간부 동지는 자각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규율상으로는 반드시 김일성, 마덕산(김일), 리복록 동지에게 상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의한다. 당신이 적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61券, 107쪽)[342]

---

[341] 박창욱 교수 및 권립 교수 인터뷰;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p. 183.

(2)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 조작

세기와 더불어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343]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이 1940년 8월에 소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김정일이 태어난 1942년 2월에 김일성과 김정숙이 만주에서 소부대 활동을 했다는 기술은 없다. 김일성이 만주에 소부대 활동을 나온 것은 단 한차례 1941년 4월 9일~8월 29일 사이에 위증민을 찾으로 나온 것이 유일하다. 김정일이 태어난 1942년 2월 16일에 김일성도 김정숙도 백두산에 있지 않고 원동에 있었다.

「세기와 더불어」 제8권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라는 절에서 김정일의 출생을 기술하고 있는데 백두밀영에서 김정일이 태어난 사실에 대한 묘사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고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허구로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3) 만주 소부대 활동 사실 조작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소련으로 피난간 다음에도 만주로 돌아와 소부대 활동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소련으로의 피난 사실을 정당화 하고자 하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은 “소부대 활동의 나날”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큰 규모의 싸움은 물론 피했다. 그대신 대중정치 공작

---

[342] 와다 하루키,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57.
[343]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p. 298.

과 정찰활동에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라고 기술하면서 정찰활동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344] 소련 88여단에서 정찰을 위하여 소부대를 보낸 적은 있지만 김일성이 만주에 소부대 활동을 나온 것은 1941년 4월부터 8월까지 단 한차례로서 88여장 주보중의 지시에 의거 만주에 혼자 남겨진 위증민을 찾아서 소련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임무를 띠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위증민을 찾지 못하고 8월에 연해주로 돌아왔다. 위증민은 이미 그해 3월에 밀령이 함락되어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련이 독일과 일본에 협공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941년 4월 일·소 중립조약이 맺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소련은 만주에서 공산국제계열의 군대가 일본과 충돌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만주에서의 유격대 활동도 중지되었다.

(4) 소련에 의한 조국해방 전투 사실의 은폐

초기 북한 역사서들은 위대한 소비에트 군대에 의한 일제의 패방과 조선의 해방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였다.[345]

> 소련 군대가 대일전쟁에 참가하여 일제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는 전투를 개시하자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 원수의 영솔하에 소련군대와 함께 조선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 대일전쟁은 위대한 소비에트 군대의 영웅적 진격에 의하여 급속히 종결되었다. … 1945년 8월에 강력한 소련군대는 일본관동군을 격멸하고 우리 조선을 해방시켰다.[346]

---

[344]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pp. 179~205.
[345] 위의 책, p. 433.
[346] 위의 책, p. 438.

초기 역사서는 해방의 주체를 소련 군대로 명확히 밝혔다. 이것은 이후의 역사서와 구별되는 점이다. 역사학자 이나영이 숙청된 것은 이 부문이 문제로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김일성이 국제적인 혁명투쟁 노선에 튼튼히 입각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김일성의 투쟁은 항상 위대한 소련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불패의 힘을 얻었다고 기술하였다.[347] 북한 역사서가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김일성에 대하여 중국과의 항일연군을 언급하지 않고 소련과의 연계를 강조한 것도 아이러니이다. 이는 김일성이 소련에 의하여 최고지도자로 옹립된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49년 역사서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는 소련군의 단독 전투로 기술하였으나 1958년 「조선통사」는 소련군대와 함께 조선을 해방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이 부분에서도 새롭게 역사를 조작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소련 군대의 대일작전이 개시되었을 때 소조들을 집결하여 억제할 수 없는 새 힘으로 소련 군대와 함께 국경지대에서 일본관동군을 격파하고 조선을 해방시키는 맹렬한 전투에 참가하였다"[348]고 기술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다. 전투 참가 부대와 전투의 경위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이 없다. 실제로 김일성 부대가 조선해방전투에 참전하였다면 수십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을 분량일텐데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한줄로 처리하고 말았다.

1961년에 발간된 「조선근대혁명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34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p. 269.
[348] 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통사』, p. 438.

> 1945년 8월 9일 역사적인 소련군의 대일작전이 개시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소련군대와 병행하여 전투행동을 개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소련군대와 병행하여 북만, 동만으로부터 국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전투행동을 전개하였다. 동만을 거쳐 함경북도의 남양으로, 장춘지역을 거쳐 신의주, 웅기, 청진 등의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통하여 북조선의 동해안 일대로의 진출을 주요한 공격방향으로 정하여 명렬한 진격전을 전개하였다. 8월 10일에는 웅기와 나진이 해방되고 곧이어 원산이 해방되었다.[349]

이상한 것은 하바로브스크에서 단 하루만에 웅기 나진까지 나와서 일본군을 격퇴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보천보 전투에 관해서는 12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히 작전 개황을 기술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조국해방전쟁에 대해서는 단 1페이지 뿐이다. 내용이 전혀 없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항일무장투쟁사」는 소련군대에 대한 언급은 단 1줄로 그치고 136페이지에 걸친 긴 분량으로 마치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군대를 격퇴하여 조선을 해방시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전선부대들의 맹렬한 진격과 그에 합세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당 및 조국광복회,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봉기 조직들의 적극적인 배후교란전 그리고 전체 인민의 거족적인 반일봉기에 의하여 안팎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최후공격을 개시한지 1주일 밖에 안되는 주체 34(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350]

---

[349] 위의 책, p. 338.

[35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사』, 제10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p. 135~136.

「세기와 더불어」는 다른 역사서들의 얼토당토 않은 왜곡된 기술과는 전혀 다른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해방전에 대한 김일성의 역할이 없었다는 사실에 가깝게 기술하였다. 김일성이 조국해방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실토한 유일한 북한 역사문헌이다.

> 최후결전의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소련의 훈련기지에서 여러해 동안이나 조국해방작전 준비를 해온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력량이 본래의 계획대로 전투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것이다. 아군부대들이 북부 국경지대에서 일본군과의 교전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전선부대들의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항공륙전대를 인솔하고 조선으로 출격할 준비를 최종적으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륙전대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장에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번져진 것은 일본놈들이 너무 급작스레 항복한데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강적이 개전 1주일만에 손을 든 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351]

사실은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북한 역사서의 어느 곳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 은폐되어 있다. 철천지 원수의 나라 미국이 북조선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소련 극동군 25군에 특무상사로 작전에 참전한 정상진의 증언에 의하면 조국해방전에 당시 소련군 외에 조선군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아서 조선인인 자신은 소련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352]

---

[351]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p. 463.

사실, 일본이 패망하고 하바로브스크 88여단이 해체될 때, 김일성을 비롯한 각 간부들은 각기 새로운 임무지를 향하여 이동하였다. 주보중은 동북으로 갔고, 강신태는 만주에서 조선민족 자치를 위하여 연변으로 갔으며, 김광협은 목단강으로 갔고, 김일성은 북한으로 가도록 명령 받았다.[353]

(5) 스탈린 면담 사실 은폐

김일성은 1945년 9월 19일 소련 함대 푸카초프호를 타고 원산항으로 입국하기 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북한 역사서에서는 은폐하여 왔다. 김일성이 88여단에서 북한으로 입북하기 직전에 이미 소련 당국에 의하여 북한의 새 지도자로 선발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당시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의 부관이었던 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이반 이바노비치 코바넨코 (1993년 당시 72세, 모스크바 거주)가 처음으로 김일성의 선발과정을 증언하였다. 그에 의하면 1945년 8월 24일 대일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북한 소비에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자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하던 중 1945년 9월 초순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리에프 원수가 극동군에서 추천한 88정찰여단의 김일성 대위를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스탈린의 긴급지시를 받고 하바로브스크에서 소련군 특별수송기편으로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냈었다고 한다.[354]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발실레

---

[352] 정상진 전 북한 문화선전부 부상 인터뷰, (2006년 10월 13일).
[353] 권립 교수 인터뷰, (2006년 6월).
[354]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3), p. 202.

프스키 사령관은 하바로브스크 인근에 있는 군용 비행장에 수송기를 대기시켜 놓고 88정찰여단의 김일성 대위를 불러온 후 KGB 극동본부 요원 2명에게 모스크바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한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면담은 식사를 겸해서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면담 후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 정국의 최고지도자 후보로 내정하고, 소련군으로 하여금 그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355]

당시 소련 관련자의 증언뿐 아니라 소련의 문서도 스탈린이 김일성을 면접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소련군이 평양에 사령부를 개설한 무렵이었던 1945년 8월 하순과 9월 초순 사이에 스탈린이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알렉산데르 바실레프프스키 원수에게 "북조선을 소련의 뜻에 맞게 이끌 조선인 지도자를 추천해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소련 극동군이 김일성을 심사하였으며 러시아 국방부에는 지금도 그 심사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심사 결과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는 스탈린에게 김일성을 추천했다. 추천서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음.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음"이라는 평가가 붙어 있다. 추천서를 받은 베리야는 "좋다"고 평가한 뒤 다시 스탈린에게 보고했다.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의 정보 및 정치공작 담당 과장이던 그리고리 메클레르 예비역 대령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베리야의 보고서를 읽은 직후, 김일성을 비공개리에 모스크바로 불러 직접 면접을 했다. 이에 김일성이 황공하다는 표정으로 "예, 예"를 연발하자 스탈린은 흡족해했다는 것이다.[356]

---

[355] 위의 책, pp. 202~204.

그런데 「세기와 더불어」 8권에서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우 왜곡되어 있지만 1945년 9월 19일 입국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문헌이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어서 매우 주목할만하다.

> 대일작전을 앞둔 어느날 나는 연합군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항하였습니다. 쏘련군 총참모부가 소집한 회의에 가보니 메레쯔코프와 스띠코프룰 비롯해서 대일적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 전선사령부의 책임일군들도 벌써 다 와있었습니다. 와셀렙스끼 총사령관도 거기에서 다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항공륙전대전법에 기초한 조국해방작전계획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지하였습니다. …
> 우리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 레닌묘도 참관하고 력사박물관에도 가보았습니다. 모스크바 방위와 관련되어있는 이름있는 전적지들도 구경하였으며 영화 '챠바예프'도 다시 보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우리를 쥬다노브에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당시 쥬다노브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비서의 직제를 맡고 있었습니다. 쥬다노프는 쓰탈린의 위임에 따라 동방에서 온 사절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온 항일무장투쟁을 격찬하였습니다. 그는 스탈린과 스띠꼬브를 통해 조선의 빨치산 김일성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듣던바보다는 훨씬 젊어보이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스탈린도 우리이 활동에 류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357]

날짜와 내용은 모두 신뢰하기 어렵지만 9월 19일 입국하기 전에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련대사를 지낸 이상조와 김일성의 수석보좌관 이문일의

---

[356] 동아일보,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 5: 김일성은 소련군의 심사를 받았다』, 2004년 9월 12일.

[357]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권, pp. 450~451.

증언에 의하면 당시 소련 지도부는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였는데 스티코프 극동군사령관과 친숙한 관계에 있던 크렘린의 2인자 즈다노프가 김일성을 스탈린에게 추전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358]

3. 역사 왜곡의 유형

가. 남의 업적을 자기 업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북한 역사서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역사왜곡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왜곡의 유형은 중국의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왜곡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김일성의 당조직으로 왜곡하고, 중국공산당과 주요 군사지위자였던 위증민, 주보중, 양정우의 업적을 자기 업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김일성이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을 1931년 처음부터 조국해방까지 총지휘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58] 이기봉 편저, 『증언: 전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서울: 도서출판 원일정보, 1989), p. 58.

<표 Ⅳ-1> 역사적 사건별 주도자에 대한 사실과 북한 역사서 왜곡

역사적 사건	실제 사실	북한 역사서 왜곡
만주항일무장투쟁의 주체	중국공산당,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조선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군장	양정우	김일성
ㅌ· ㄷ 동맹 창설자	이종락, 1929년~1930년	김일성, 1926년
명월구회의 소집자, 1931,12:항일무장투쟁 결의	동만특위 서기 동장영	김일성
조선혁명군 창설 및 지휘	이종락, 양세봉	김일성
대횡외회의 - 민생단문제 토론	동만특위 서기 위증민	김일성
요영구회의 - 북만원정 결정	위증민	김일성
동녕현성 전투 지휘	주보중	김일성
북호두회의 - 통일전선 신방침	공산국제 7차회의 결정사항 위증민	김일성
미혼진 회의 - 동만에서 신방침 결정	위증민	김일성
동강회의 -2군3사의 백두산 진출을 결정	왕덕태 2군 군장	김일성
2군6사 창설	공산국제 7차회의 결정, 미혼진회의	김일성
조국광복회 조직	공산국제 7차회의 결정	김일성
노령회의/남패자회의 - 방면군으로 개편	위증민, 양정우	김일성
두도류회의/소할바령회의 - 소련 월경	위증민, 양정우	김일성
88여단 여장	주보중	김일성
조선해방전투	소련극동군 25군	김일성 조선인민혁명군

나. 실재 사실 은폐

북한 역사서들은 김일성의 만주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실재하였던 사실을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김일성이 1931년 10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다. 초기의 역사서들은 '공산당'에 가입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최근의 역사서들은 이것 마저도 은폐하고 새로운 당을 설립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주체사상의 차원에서 김일성이 조선이 아닌 중국의 공산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역사서들은 김일성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은폐한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 2군 6사는 중공당의 지휘를 받았는데 이를 언급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김일성이 독자적인 군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여 독자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반민생단투쟁에 가담한 사실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당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 김하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김일성은 반민생단투쟁 사건에서 위증민의 민생단 재판을 통역하면서 중국 측 지도자들을 도와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서는 김일성이 주도하여 반민생단투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것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북한 역사서는 또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중에 작전 실패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가령, 보천보 전투이후 일본군의 가혹한 토벌에 많은 대원들이 희생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김일성 부대는 한때는 200여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소련으로 피난 갈 때는 불과 18명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김일성의 위대성이 훼손된다는 판단에서인지 일체 실패한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다.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소련으로 피난한 사실을 은폐하였다. 소련으로 피난한 사실을 은폐하고 대신 만주에서 소부대 활동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왜곡하였다. 김일성 사후 발간된 회고록 계승본 「세기와 더불어」 8권에서는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라는 장에서 국제당이 김일성 부대를 소련으로 초청하였기 때문에 소련으로 들어갔다고 기술하고 있다.[359]

북한 역사서는 또한 김일성이 청년시절 민족주의 계열 국민부에서 활동한 사실을 은폐하였다. 김일성이 다닌 학교인 화성의숙은 민족주의계열 정의부(국민부 전신)에서 설립한 학교이며, 김일성이 다닌 길림 육문중학교는 국민부에서 지원한 장학금으로 다녔다. 길림감옥에서 출옥한 이후는 국민부의 청년들인 이종락 등과 같이 활동하였다.

북한 역사서는 사회주의계열 외에 만주에서 활동한 민족주의계열의 광복군, 조선혁명군 등에 의한 항일투쟁의 역사는 은폐하였고, 그리고 관내지방에서 1945년까지 활동한 조선의용군의 역사도 은폐하였다.

요약컨대 북한 역사서들은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주체사상 확립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들은 모두 은폐하거나 삭제하였다.

---

[359]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권, p. 49.

다. 실재하지 않은 사실의 허구적 조작

북한 역사서의 또 하나의 역사왜곡의 유형은 실재하지 않은 사실을 실재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여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고, 1945년 8월에 일군을 격퇴하고 조선을 해방하였다고 왜곡하였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존재한 적이 없는 군대명이다. 북한의 최초의 역사서였던 1949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군대명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1958년에 발간된 역사서에서부터 김일성의 부대가 1932년에 창설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역사서는 또 김일성이 카륜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는 연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것이 주체사상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논지이다.

북한에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왜곡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남호두회의이다. 공산국제에서 민족 간의 항일투쟁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시 현안으로 되어있던 민생단사건을 해결하고 조선민족의 항일투쟁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방침을 전달한 회의가 1936년 2월에 열린 북후두회의였다. 이것이 당시 동만의 동북항일연군의 전투서열과 전략에 미친 영향이 컸는데 이것을 북한의 역사서에 담아넣기 위하여 억지로 김일성이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여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허구는 김일성이 조국해방 전투에 참전한 적이 없

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김일성이 1931년부터 항일무장투쟁을 계속하여 마침내 1945년 8월 7일에 국내로 진격하여 8월 15일에 일제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것처럼 허위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1940년 10월에 소련으로 월경하여 1945년 9월 19일에 귀국할 때까지 소련 국제홍군 88여단의 통제하에 있었다. 1945년 8월 7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북한으로 진격할때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중공당의 동북항일연군이 작전에 참전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일본이 패망하여 중국과 한반도에서 퇴각할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라. 사실의 조작, 미화

북한 역사서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활동에 대한 왜곡을 행한 유형의 하나는 사실 미화 및 조작이다. 가령, 김일성이 화전의숙에 6개월정도 다니다가 길림 육문중학교로 옮긴 것은 순전히 나이가 어린 탓이었다. 화전의숙은 독립군 간부들을 위한 군사전문학교였는데 15살밖에 안된 김일성에게는 맞지 않았다. 육문중학교에서 상월선생을 만나 맑스주의를 접하게 되었는데 마치 맑스레닌주의를 배우기 위하여 일부러 학교를 옮긴 것으로 미화하고 있다.

길림에서 동만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사실을 미화·왜곡하고 있다. 길림에서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 간의 갈등이 심했고 김일성이 견딜수가 없어 어머니가 있던 안도로 피신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동만으로 오자마자 9·18만주사변이

터지고 동만은 삽시간에 일본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됨에 따라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에 처음으로 가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 역사서는 또 이를 마치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동만으로 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1932년 4월에 별동대 15~16명을 데리고 중국 구국군에 들어가 정치공작을 시도하였지만 문전박대당하고 여의치 않자 이전에 활동하던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사령을 찾아갔으나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문전박대 당했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서는 김일성이 구국군에서부터 조선혁명군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고 미화하고 있다.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무장부대를 창건한 시기를 1932년 4월로 잡고 이를 현재의 조선인민군 창군기념일로 삼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김일성이 창건한 부대는 공산국제의 지시를 받아 신설된 동북항일연군 제2군 3사이다. 3사의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어 기존 대원과 민생단에서 해금된 대원들을 합하여 2군 3사를 창설한 것이다. 그 때는 2군 3사 신설을 결정한 미혼진회의가 열린 1936년 3월이다.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이 소련으로 피난가서 소련 극동군의 편재하에서 설치된 88여단을 김일성이 창설한 국제연합군으로 미화하고 있다. 소련군, 중국군, 조선인 동북항일연군이 합쳐진 부대이니 국제연합군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이를 김일성이 창설한 국제연합군이라고 칭한다면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다.

북한 역사서들은 김책(3군 4사 정치부 주임), 최용건 등을 항일무장투쟁의 처음부터 김일성의 부대에서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

람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김일성은 이들을 소련으로 피난와서 재편된 88여단에서 처음 만났다. 김책과 최용건은 모두 북만 3로군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고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최용건은 88여단에 조선인으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인물이었다. 북한에 들언온 뒤 김일성이 최고 지도자로 옹립되면서 최용건이 김일성의 수하로 들어간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최용건이 김일성보다 나이도 많고 직책도 높았다.

제7장

항일무장투쟁의 통치이념화 실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는 왜곡되고 미화되어 신화가 되었다. 그 신화는 북한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사상, 도덕의 기준을 규정하는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막대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 주민에게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교육과 학습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었다. 이 장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신화가 어떻게 통치이념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 통치이념화의 배경과 과정

가. 소련군정에 의한 항일무장투쟁 통치이념화의 시작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이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소련 군정에 의해서이다. 소련 군정이 해방 후, 북한 내의 여러 정파와 정치지도자들 가운데서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으면서부터라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다. 일본군에 대항해서 총들고 싸운 사람이 해방된 조선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소련군정은 김일성을 옹립하였다.

이때 소련 군정의 의도는 국내파 공산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제시한 명분이다. 조만식이나 박헌영 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한 사

람은 김일성외에도 수없이 많았으며 김일성보다 나이와 경륜에서 앞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령, 만주파의 최용건, 김책, 연안파의 무정, 김두봉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정치적 뿌리가 취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국내파보다 견제가 쉬었다.

소련군정은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정당성의 근거로 하여 김일성을 최고지도자로 옹립하고 김일성파인 빨치산파를 주류 세력으로 성장시켰다. 항일무장투쟁의 왜곡된 전설을 권력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한 것이 북한정권 초기 소련 군정이다.

나. 한국전쟁이후, 주민불만 통제를 위한 김일성 개인숭배 시작

항일무장투쟁이 초기에 김일성이 다른 권력엘리트들 중에서 최고지도자로 옹립된 명분으로는 사용되었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 통치이념의 방식으로 강요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6·25전쟁으로 주민생활이 피폐해지고, 정파 간의 권력갈등이 심화되면서 김일성의 권력이 도전에 직면하자 사회통제와 사상교육을 본격 시작하였다.

당시 6·25전쟁 이후 팽배하였던 사회 불만 때문에 통치이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이 사회적 차원에서 동원(hailing)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며 그 업적이 대단하다고 홍보하기 시작하였다.[360]

6·25전쟁이후 전쟁으로 인한 파괴, 경제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 김일성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가 증대하고 있었다. 장학봉은 당시 사회적 불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전쟁이후 주민생활 형편이 점점 악화되었는데 극빈하게 되면서 한민족을 갈라서 종파를 가르고, 연안파니 소련파니 하면서 딴 민족, 적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생활은 점차 구차하게 되고 일반백성들은 정책이 옳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불만을 토로하다가 당시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많다. 1953년 전쟁 끝나고 54~58년 사이에 당시 내가 탈북하기 전 마지막 시기에 인텔리들은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상식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붙잡혀가고 잘못되었다. 인테리들은 거의 다 죽고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백두산, 목재 벌목장에 보냈다. 전쟁까지 준비해서 많은 사람 죽고 또 전쟁은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의 일반적 사상동향이 심난하고 나라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반심을 가지고 이런 반심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색을 나타낼 수 없었다. 심부름, 선전하는 자들이 밀고했다. 그래서 붙잡혀 들어가면 자기 사는 고향에서 떨어져 몇십리 강제수용소에 보냈다.[361]

전쟁때 보다는 전쟁 후에 더 날카롭게 사회를 통제하였다고 한다. 1955년~1956년에 사람들을 숱하게 죽이고 가두고 강제수용소에 보냈으며 1958년에는 더 강화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가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공동조직체와 비슷하였다. 집단의 노동양식, 집단의 거주양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인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거나 나라정책을 반

---

[360] 김문욱 (1964년 탈북, 공학박사, 우즈베키스탄 대학 학장, 타시켄트 거주) 인터뷰, (2005년 6월).

[361] 장학봉 (김책군관학교 교장, 1958년에 소련으로 귀환한 소련파, 타시켄트 거주) 인터뷰, (2005년 6월 29일).

대할 수 없었다. 반대하는 마음을 표출할 수는 없었으나 불만은 증가하고 있었다. 전쟁 3년 동안에 지치고, 생활이 극빈하고, 통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정책에 반대하게 되었다. 사람들 가두기 시작하고 정배보내고 신망이 적어지면서 김일성의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한다. 장학봉은 자신도 전쟁이후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군대에서 제대까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배 보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떨어졌다고 한다. 정책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1957년에 모스크바에 귀환을 요청하여 결국 소련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주요 사상교양의 내용은 맑스-레닌주의, 사회주의, 항일무장투쟁 등이다. 노동자 열성자 대회, 민주청년당원 열성자 대회 등을 통하여 이데올로기 교육, 사상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철학,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이 교육되었고 어용선전가들이 서로 다투어 김일성 찬양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362]

특히 전쟁직후 전쟁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파 등 권력엘리트층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허가이와 같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자살을 위장하여 살해하였다.

당시까지는 아직 시민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시민들은 괴롭힌 것은 8월종파사건 이후이다. 8월종파사건으로 반대파 권력엘리트들을 숙청하고 난뒤 일반주민속에서도 반대파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

[362] 김문욱 인터뷰.

다. 8월 종파사건이후, 항일무장투쟁의 통치이념화 강화기

북한에서 권력투쟁의 광풍이 불었던 것은 1956년 8월종파사건이다. 전쟁이 끝난 다음 김일성 개인숭배를 위하여 소련파, 연안파가 상호 경쟁하기도 하였지만 연안파가 주도하여 김일성을 실각시키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김일성파에 탄로가 나서 모두 숙청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6·25전쟁 때문에 소련보다는 중국의 입김을 강화시켜 연안파에 의한 8월 종파사건을 야기하였고 연안파, 소련파가 제거되자 만주파가 득세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국가이데올로기화 하는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때부터 주체사상과 항일무장투쟁이 사상과 그 사상의 역사로 결합되기 시작하였고 통치이념으로 정립되어 갔다.

8월종파사건이후, 경쟁파벌을 숙청한 김일성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검증과 숙청을 전개하였다. 사상투쟁 강화, 밀고하기, 중앙당집중지도 등을 전개하였다. 장학봉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 대학교도 못나오고 말도 못하는 어중이 떠중이를 시켜서 사상검토한다고 했다. 중앙당 집중지도는 아무 연락도 없이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갑자기 강의 중단시키고 대표적으로 1~2명 선정해서 고발하고, 현지총살시켰다. 공개총살에는 구역 시민들이 모두 참가하여 보게 하였다. 공개총살이 중앙당집중지도의 클라이막스였다. 상호비판을 했는데 지금보면 유치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다. 식사당번이 저녁에 자기밥은 크게 만들고 다른 사람밥은 작게 만들었다고 하고, 식사당번 끝나고 누룽지 훔쳐왔다고 고발하기도 하였다. 고발를 많이 할수록 당과 체제에 충실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김일성 측근들의 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략은 “국민이 김일성을 지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김일성을 지지한다는 열성자회의를 매주 매일 만들었다. 김일성 선집 노작 연구반, 항일혁명투쟁사 등을 써내고 김일성 우상화, 김일성 신격화를 시작하였다. 동시에 비밀정보기관을 강화하였다. 4인중 1명은 밀고자였다. 학교, 인민반, 직장에도 꼭 밀고자 있었다. 이를 종합하는 곳이 사회안전부였다. 1960년초부터 소위 통행증을 만들었다. 그 이후부터는 평양에서 남포 나오기 위해서도 꼭 증명서가 있어야 차표를 살 수 있었다. 인민반 반장은 인민반에 손님이 오면 동사무소나 시안전부 주재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항일빨치산투쟁에 대한 선전으로 하였다. 장학봉은 이에 대하여 “한설야가 첫 시기에 허무맹랑한 글을 많이 썼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한설야의 장편소설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밖에도 조기찬의 서사시 ‘백두산’ 등이 이때 쓰여졌다. 이들이 김일성 체제를 끝까지 받들고 나가는 전위대들이었다.[363]

이전까지는 항일무장투쟁이 김일성이 권력엘리트중에서 최고지도자로 옹립되는 명분으로는 사용되었어도 일반주민들에게까지 항일무장투쟁이 정치교육의 소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항일무장투쟁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경부터이다. 주체사상이 항일무장투쟁과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록 정치도구화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일성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363] 정추 (소련유학중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하고 소련에 망명, 카자흐국립대 교수) 인터뷰, (2004년 5월, 2006년 10월).

있다. 즉, 김일성이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그 업적이 대단하다고 홍보하였다.[364]

김문욱 증언에 의하면 국민을 동원하여 김일성을 지지하는 것처럼 했던 것은 1959년에 대학들어갈 때 없었던 일인데 1961년부터 항일투쟁혁명사, 대학강의 끝난후 매일 2시간씩 혁명사을 학습했다고 한다.[365]

라. 김정일 권력세습을 위한 항일무장투쟁 통치이념화 완성기

1967년 갑산파를 숙청하여 김일성의 빨치산파로만 구성된 권력의 독점을 쟁취하고 1980년 6차당대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식화하는 시기에 항일무장투쟁은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완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를 정립하기 위하여 「조선전사」(1979~1992) 33권이 완성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이 단순히 역사로 남아있지 않고 주체사상의 역사적 뿌리로 사상적 분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체사상 = 김일성사상 = 혁명사상 = 항일무장투쟁사상의 등식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항일무장투쟁이 사상적 이론적 외피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김정일 후계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역사서들은 곁가지 치기 운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30년대에 김일성이 반종파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사실 왜곡하여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의 어

---

[364] 김문욱 (1964년 탈북, 공학박사, 우즈베키스탄 대학 학장) 인터뷰. (2005년 7월 1일).

[365] 김문욱 증언.

떤 역사서보다도 반종파투쟁을 매우 길고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김정일 승계를 위한 국내정치적 정비를 위하여 당시의 시대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허구적 내용을 삽입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

「세기와 더불어」의 출간은 김정일의 총지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366] 김정일 세습을 위한 역사 작업인 것임을 알 수 있다.「세기와 더불어」 각 장마다 결론부분에 생뚱맞게 김정일을 언급하고 있다. 각 장의 마무리부분에 김정일을 언급하여 김정일을 항일무장투쟁과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세기와 더불어」는 또한 백두산 밀영 신화를 제시한 최초의 역사서이며 백두산에서 출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67] 백두산 동남쪽에 밀영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1980년 중반까지의 북한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다.

2. 통치이념화의 내용: 개인숭배의 정당성 근거로서의 항일무장투쟁

북한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위한 이미지 형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내용의 하나는 김일성이 항일무쟁투쟁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는 근거는 김일성이 “마지막까지 무장투쟁을 하여 나라를 일제에서 해방한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366] 와다 하루키,『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p. 27.
[367] 와다 하루키,『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p. 275.

이 많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주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제와 맞서 싸웠으며 그 싸움에서 성공하여 일본을 몰아내고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내용이다.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한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의 상당부문이 과장되었고 또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앞에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왜곡한 상태로 과장하여 김일성의 개인숭배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다양한 제도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의 업적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수령의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었다. 김일성 본인도 자신의 정당성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항일무장투쟁 경험이다.

>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인 동시에 숭고한 공산주의적 리념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새 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대대적으로 키워낼수 있게 되였으며 공산주의 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당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368]

김일성이 연설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거론하는 것이 수없이 많

[368]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4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6.

지만 1949년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개인숭배를 하기 이전의 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기로 한다. 인민군대에 관하여 행한 연설에서 이다.

>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날 일제의 착취와 탄압이 극도에 이르고 조국의 하늘에 비운이 뒤덮였던 암담한 시기에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조국을 광복하려는 일념으로 감옥도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강도 일제와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으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고있습니다..[369]

김일성의 연설에서 어떤 주제든 어떤 사안이든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모든 정책과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항일무장투쟁 경험에서 찾았다. 북한에서 행한 김일성 개인숭배가 항일무장투쟁을 소재로 하여 추진된 것은 김일성의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69] 김일성,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9년 7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06.

3. 통치이념화의 방법: 북한사회 행위의 준거틀로서의 항일무장투쟁

과거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현재에 재현하여 현재를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살게 하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과 북한주민 사이에 공통의 정서영역을 만들어냄으로써 1960년대 중후반부터 강조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사회적 화두로 삼도록 만들었다. 195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2권은 당시 북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학습 교재였다. 이 교재는 각종 직장과 학교 및 정치학습 과정에서 강연, 연구토론회, 감상모임 등의 형식으로 반복학습되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항일유격대는 혁명전통의 담지자로서,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은 회상기를 통하여 나타난 유격대의 공산주의적 풍모를 체득하여 현실에서 구현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즉, 대중은 유일유격대원의 사상과 투쟁의지, 투쟁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요구받은 것이다.[370]

이러한 정치학습의 의도는 '항일무장투쟁기'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항일유격대들이 무장투쟁을 하여 나라를 지켰듯이 현재의 북한 주민들도 같은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실의 어려움은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것이며 이나마 현실을 유지하려면 외부의 적과 싸우고 내부의 준동자들과 싸워야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미화하여 과거와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서

[370]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p. 291~292.

사용되는 수단은 영화와 소설 등의 문화예술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북한의 문화예술의 작품들의 배경이나 소재는 항일무장 투쟁 시대나 일제 시대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개인숭배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의 하나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다. 기독교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듯이 북한에는 김일성의 교시를 학습하고 각종 정치적 집회를 하기 위한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있다.[371]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모든 리, 읍, 도의 지역단위,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군대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모든 단위의 중앙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가장 좋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의 건물은 당에서 규격화한 표준설계에 맞추어 건축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이 비슷한 형태를 띤다. 연구실의 본당에는 김일성의 석고상 또는 초상화가 맨 앞 제단에 놓여있고 제단에 이르는 중앙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다. 북한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그 안에서는 기침도 할 수 없고 행사 외의 잡담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는 김일성의 교시집, 저작, 혁명전통연구자료 등 김일성의 혁명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에서 주로 김일성 사상 집중강의와 학습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학습활동 외의 각종 선서모임이나 충성의 편지 전달 모임 등의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시는 장소임과 동시에 예배하는 장소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는 장소인 셈이다.[372]

---

[371]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김일성혁명사상 연구실이 하도 비슷하여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4. 통치이념화의 결과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을 통치이념으로 활용하여 북한주민들로부터 김일성에 대한 확고한 카리스마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의 항일활동과 집권이후의 행적도 과장되게 홍보하여 수령이라는 호칭과 함께 절대적 무오류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 수령은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한없이 넓은 포용력,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영도자이며 혁명투쟁 행정에서 쌓은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참다운 인민의 영도자이다.[373]

수령이란 하나의 제도로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개인의 능력이자 업적이라고 평가되어야 하는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령이란 제도가 아니라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형성하기 위한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수령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372] 위의 책, pp. 100, 104.
[373]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 9』, p. 35.

>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 임무, 계급적 세력이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며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과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와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 속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 수 없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정치적 령도자이다.[374]

이렇게 정의된 수령에 대해서는 무조건성, 절대성의 원칙으로 복종하고 숭배하도록 계율화하였다. 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이 그것이다. 1974년에 발표한 '유일체제확립 10대원칙'은 북한판 10계명으로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정치적 계율이 되고 있다. 10대원칙의 내용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해야 하며,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하며, 김일성 교시의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0번째 계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10계명은 김정일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 우상화의 또 다른 특징은 김일성 리더십의 유일성을 부각한 것이다. 김일성 외에 다른 대안적 지도자가 없다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김일성의 가계를 몇대 조상

---

[374] 위의 책, p. 324.

에서부터 김일성 가계만이 유일하게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다는 것으로 역사를 허위로 개작하였다. 가령, 김일성 증조할어버지 김응우가 격침시켰다는 셔만호 침몰사건에서부터, 근대 격변기, 3·1운동, 항일빨치산 활동, 건국, 6·25전쟁 승리, 전후복구의 승리, 사회주의 공업화, 사회주의 대건설, 후계구도에 이르기까지의 혁명, 계속혁명까지 모두 김일성의 가계, 김일성, 김정일의 단독의 업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반주민도 모두 배제되고, 중국이나 소련의 역할도 모두 배제된 채 오로지 김일성가계와 김일성만 주도자, 주체가 되었다. 전후복구 건설과정에 중국, 소련, 동구의 원조는 일체 언급이 없으며 모든 것이 김일성의 영도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1970년대 사회주의 대건설을 김일성이 진두지휘하여 북한이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가 되었다고 선전한다. 3·1운동도 당시 국민들의 참여는 언급이 없고, 33인의 선언도 언급이 없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절대자가 되기 위하여 역사의 전 과정에서 모든 역사적 가치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김일성 가계, 본인,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데 공헌한 주도자요 주체였다. 김일성과 김정일 외에는 대안적인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계만이 유일한 지도자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까지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개인숭배의 성공이 북한체제의 성공은 아니다.[375]

---

[37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서재진,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서울: 통일연구원, 1993)

제8장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신화에 대한 비교 평가

1. 평가기준

가. 보편성 vs. 유일성

북한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두가지 신화가 있다. 그 하나는 일제시기 민족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이 가장 중요한 민족독립운동이었다는 신화이고, 둘째는 항일무장투쟁을 김일성이 주도하였고 그 결과 조선을 일제에서 해방하였다는 신화이다.

북한의 신화는 평가기준이 자의적이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강만길에 의하면 일제 강점시대 36년간 꾸준히 민족해방투쟁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3·1운동이 가장 빛나는 민족해방운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참가인원이 많다거나 규모가 전국적이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조선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달게 받는다고 하는 일제의 선전이 허위였음을 전 세계 만방에 폭로한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조소앙 등의 지사들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회담에서 우리의 독립이 결정되도록 노력하였다.[376] 이로 인해 일본제국주의가 2차대전에서 패망해갈 때 연합국들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회담 등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한반도를 그 영토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킬 것을 당연한 사실로 결정했던 것이다.[377]

이러한 시각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김일성이 일본과 무장투쟁을 하여 일제를 한반도에서 몰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

[376] 이현희, "대한민족 임시정부의 광복운동,"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서울: 지식산업사, 1987), p. 538.

[377]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이 한반도에서 퇴각한 것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로 무조건 항복한 때문이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진격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하여 일본군이 패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김일성은 하바르브스크 인근 88여단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소련군에 의하여 발이 묶여있다가 해방된지 한달이 넘은 9월 19일에 소련함대를 타고 원산항으로 귀국하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각이 신주백에 의하여 적절히 제시되었다. 그는 일제시기 항일운동의 큰 특징의 하나는 투쟁지역의 광범위함에 있으며, 둘째는 투쟁의 다양한 방법에 있으며, 셋째는 일제 강점하에 한국인의 저항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이다.[378]

항일운동의 다양한 방법은 선택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조건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국내, 만주, 중국의 관내, 노령, 일본, 미주지역에서 항일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는데 해외지역의 항일운동은 해당지역의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항일운동세력을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달리보면, 항일운동가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활동공간을 지리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에 그치지 않고 어떤 투쟁방법 내지는 어떤 운동론에 입각하여 항일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379]

우리 선조들이 시도하였던 독립운동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였다. 다양한 노선과 노선 간의 갈등은 주객관적인 상황에 기인하

---

[378]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7.
[379] 위의 책, p. 171.

는 것이었으며 시대적인 산물이었다. 투쟁에 대한 소극성과 적극성의 문제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조건에 따른 영향과 적응의 문제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시기와 지역을 고려하여 임시정부 정통론과 항일무장투쟁 정통론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김일성은 총 들고 무장투쟁을 했다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하고 이승만의 외교적 독립활동은 놀고먹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무장투쟁도 중요하지만 외교도 중요하다.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카이로선언에서 강대국들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무장투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 이 두가지 방법의 중요성 때문에 독립전쟁의 방법에 관한 논란도 일제기간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파벌이 갈라지기까지 하였다.

안창호는 1919년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연맹 회의에 주목하여 군사운동, 외교운동, 재정운동, 문화운동, 식산운동, 통일운동을 동시에 병행해야 독립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380]

중국에 사는 우리동포들의 민생(자치, 교육,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야 무장인력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김일성이 다닌 화성의숙도 민족주의계열의 정의부가 설치한 학교이다.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지가 필요하며, 근거지는 자치의 형태로 발전되기 위해서 군자금 모집, 행정, 교육,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항일무장투쟁도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오랜 기간동안 전개되었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계보를 크게

---

[380]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210.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만주지역에서 민족주의계열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있고, 공산주의계열로 동북항일연군 (6사, 김일성)이 있다. 중국의 관내에 조선의용군이 있는데 이들이 해방후 북한에 들어와서 연안파를 형성하였다. 숫적으로 김일성의 빨치산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숫자이다. 김일성 부대만 우리 민족 군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 군대의 일부로 편성되어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무장투쟁의 측면에서도 김일성 부대는 지극히 작은 일부이다. 민족운동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정도로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 6사는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부대였다.

나. 무장투쟁론 vs. 외교론

독립전쟁의 전략은 시기, 지역,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가령, 노령의 민족운동가들은 3·1운동 직후에는 외교론에 입각한 독립전쟁론인데 파리강화회의(1919년 1월~6월)에 대표를 파견하여 일제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이다. 간도한족독립선언운동의사부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3단계독립운동 방침을 제시하여 노령, 만주, 국내에서 1만명 가량의 군대를 모집하여 국내에 진입하여 일제의 조선통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고 파리강화회의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방안이다. 임시정부의 안창호는 시위운동과 선전활동을 적극 계속하는 한편, 외교력을 강화하여 국제연맹 내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어 독립을 승인받자고 주장하였다. 일제의 거대한 군사력에 정면에 맞서 승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투쟁을 하

되 그것으로 일제를 분쇄하기는 역부족이니 그것으로 외교적 효과를 거두자는 입장이다.[381]

이동휘의 교전단체자격론은 무장투쟁론에 가깝다. 교전단체자격론이란 반일련합전쟁에 참가한 국가(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단체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동만지방에서 무장투쟁론을 적극 실천한 사람은 홍범도와 김일성이다.

이처럼 각 단체별로 독립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심한 갈등이 있을 정도로 외교론과 무장투쟁론은 모두 의미있고 중요한 것이었다.

다. 군정 vs. 민정

무장론과 외교론의 갈등과 비슷한 갈등이 군정론과 민정론의 갈등이다. 1920년 경신참변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계기로 만주지역 민족주의 운동에서 군정보다 민정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전략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런 노선으로 설립된 단체는 대한통의부이다.[382] 민족주의자들이 대한통의부처럼 군사활동보다 한인사회의 안정에 우선 초점을 두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19년 3·1운동 직후의 고양된 항일분위기 속에서 일제를 상대로 즉각 무장투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분위기와는 달리 대한통의부 시기에 오면 민족주의자들은 장기적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는 전략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둘째, 민족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객관적 조건때문이었다. 1920년을 지나면서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의

---

[381]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21.

[382] 대한통의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50.

공격에 밀려 동만지방에서 후퇴하였고 비록 다시 무장부대를 결성하고 활동했지만 이전만큼 강력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인사회는 1920년 경신참변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계기로 독립군을 다시 지원하는 활동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워싱턴회의에서는 조선의 독립문제가 무시당하였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독립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낮추어갔고 한인사회에서 자발적인 성격의 군자금이 잘 걷히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되는 조건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려는 활동경향은 192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정착되었다.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은 조직의 이념과 운영원리로서 공화주의,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식산흥업과 교육진흥을 통하여 한인사회를 안정화시키며 차치를 실현하는데 치중해갔다.[383]

그러나 대한통의부는 민정이냐 군정이냐의 노선의 갈등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분열되었다.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로 재통합되었으나 무력투쟁 우선이냐 자치(민생) 우선이냐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었다.

정의부는 처음부터 군사에 대한 행정의 우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가운데 3권 분리의 원리에 입각하여 한인사회의 안정된 기반 확보, 곧 자치활동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에 참의부와 신민부 내부에서는 지도성원들 사이에 무력투쟁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자치를 통해 한인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우선을 두느냐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

[383]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p. 108~110.

2. 무장투쟁 활동의 비교

가.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 2군 6사의 비교

우리민족의 공산주의계열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던 두 집단은 만주의 항일연군과 화북의 조선의용군이다.

조선의용군은 화북지방(관내지방)에서 활동하였고, 항일연군의 2군 6사는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조선의용군은 한국국내에서 항일투쟁을 위하여 이주해간 사람들이고, 2군 6사는 연변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2군 6사는 1938년 무렵부터 거의 궤멸되어 1940년 8월에는 소련으로 피신하였지만, 조선의용군은 1938년 10월에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항일무장투쟁의 맥을 이은 부대이다. 조선의용군도 사회주의계열이고, 2군 6사도 사회주의계열이다.

조선의용군의 수는 1945년 8월 해방당시 1,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2군 6사는 200여명된다. 1군에서 11군까지 합한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숫자는 더 많다. 조선족인민은 1931년 9월에서 1937년 6월을 포함한 14년동안의 항일투쟁 중 10여만명의 조선족 인민이 참전하였으며, 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족 열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다. 연변자치주 민정국 통계에 의하면 연변지역의 열사는 3,500명이며, 이중에서 조선족 열사는 3,026명에 달한다.[384]

2군 6사는 북한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반면 조선의용군의 역사는 북한의 역사에서 지워져버렸다.

---

[384] 최성춘 (중국연변주 당사연구실 주임) 인터뷰, (2004년 5월).

조선의용군 대원들의 지식수준과 군사수준이 매우 높았다. 최초의 의용대원들은 그 절대다수가 황포군관학교, 중앙군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중산대학 증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다. 그리고 미국 유학생, 일본유학생, 상해 프랑스학교 졸업생이 있는가 하면 남경중앙대학이나 광동 중산대학에서 공부하고 중앙군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김학무, 김학철, 주제민, 문정일, 전용섭 등도 있었고 중산대학을 졸업하고 강서성 성자군관학교 특별반에서 군사학습을 한 리정호, 김창만, 리소민, 김창제, 최계원, 림진 등도 있었다. 거듭되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조선어, 중국어, 일어, 그리고 영어, 로어, 프랑스 중 한 사람이 보통 두가지 언어, 세가지 언어, 네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으며 현대적 과학 문화 지식, 군사정치 지식의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았으므로 문화수준과 군사적 자질이 대단히 높아 거의 모두가 훌륭한 군사 지휘자나 정치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385]

그에 반해서 동북항일연군의 전사들은 대체로 무학이었다. 동만의 무장투쟁 지도자들이 민생단 사건으로 500여명이 처형된 이후, 김일성이 중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 특이할 정도의 교육수준이고 수명의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농민출신의 무학이었다.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반일의지가 굳세고 민족의식이 투철하였다. 의용대에는 망국의 치욕을 자기들의 뜨거운 피로써 씻으려고 일찍 1919년 11월에 의열단을 조직한 후 장기적으로 의열투쟁을 견지해온 김원봉, 신악, 류자명, 김세일 등이 있고, 국제공산당의 파견을 받고 조선에 나가 지하공작을 하다 일제에게 체포되어 8

[385] 강기주,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p. 135.

년동안 징역살이를 한 한반, 18세부터 의열투쟁을 벌이다 7년형을 받은 장지광, 서울에서 조선총독을 암살하려다 살인미수죄로 6년동안 복역한 석정 등도 있고, 북경, 상해, 천진 등지에서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이나 지하비밀공작을 견지해온 항일투사들도 있었다. 반일투쟁의 경력이 오래고 갖가지 시련을 겪은 이들은 다 같이 일제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 민족독립, 조국광복의 승리를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철석 같은 결심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386]

2군 6사 대원들도 반일의지와 민족의식이 투철하였다. 특히 2군 6사 대원들 중에는 만주지역 주민들이 많았기에 한국의 독립과 중국의 독립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의용군은 1945년까지 전쟁을 계속하였지만 동북항일연군은 거의 궤멸당하였다. 살아남은 대원들은 소련으로 피신하였다. 김일성은 1940년 10월 16명의 부대원을 대동하고 소련으로 피신하여 해방 후에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중국인 간부들은 동북항일연군이 완패했던 것으로 인정하였다.[387] 대부분의 동북항일연군 지도자들은 전사하였다. 주보중 등 수명만 살아남았다. 김일성의 직속상관인 제2군사령관 왕덕태는 1939년 5월에 몽강현에서 전사하였다. 동북항일연군 총사령관 양정우는 1940년 2월 20일 전사하였다고 양정우가 희생되자 위증민이 후임으로 되었으나 위증민은 1940년 3월에 전사하였다. 제3로군 사령관 조상지도 1942년 2월 전사하였다. 김일성은 백두산 밀영에서 유격전을 했던 것이 죽지않고 생존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항일연군의 다

---

386 위의 책, p. 135.
387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 p. 265.

른 부대들은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항공기에 쉽게 노출되어 전사하기 쉬웠고, 실제로 많이 전사하였다.

소련으로 월경한 이후, 소련의 도움을 받아 1942년 7월에 동북항일연군 '교도려'로 편성되었고, 교도려는 소련군 산하 국제홍군 제88특별여단이라고 했다. 이 무렵 이들 소련인 중국인 조선인을 합친 전체대원은 600여명이었는데 이들 간운데 조선인은 150명이었다.[388] 해방직전 이 국제여단 내에서 조선공작단이 290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조선인은 약 300명으로 늘어났다.[389]

나. 만주지역 무장투쟁 비교: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

만주지역 한인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중국공산당원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이점이 민족주의계열과 차이가 있다. 민족주의운동 계열의 무장활동, 곧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독자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두 무장대의 이름으로 전개된 무장투쟁은 각각 1933년과 1938년으로 끝났지만 두 무장부대의 주력은 항일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견지하였다.[390] 민족주의 계열도 중국 국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활동하였으나 독자적 정부조직과 군대조직을 유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388]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출판, 2001), pp. 341~343.

[389] 신주백은 290명 가운데는 만주에서 싸웠던 구 항일연군 유격대만이 아니라 소련 국적의 한인으로 야영지에서 교도려에 합류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pp. 489~490.

[390]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132.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독자적인 이름을 내걸고 무장투쟁을 벌인데 비해 사회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북한역사서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허구적 부대명을 만들어서 역사를 기술한 이유가 바로 민족주의 계열과의 이런 차이에 기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우선 만주에서 중국혁명을 달성하면서 조선혁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중의 임무'에 따라 중국공산당 유격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만주에서 조선만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만주에서의 한인들의 형편에 맞지 않으며 대신에 이중의 임무를 실천함으로써 만주지역에서 일제는 몰아내는 것이 조선의 독립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391]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활동한 조선혁명군이나 한국독립군도 중국국민당 계통의 동북의용군과 연대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강력한 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기와 탄약, 의약품 등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혁명군은 동북의용군만이 아니라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조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군자금 모집투쟁과 같은 일회성 활동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기반을 닦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1935년까지도 중국공산당 소속 한인 유격대원들의 활동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만주의 무장역량과 국내의 항일대중을 연계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활동은 1936년들어 중국공산당 소속의 한인대원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었다. 동북항일연군 제2군 6사는 중국의 장백현과 함경남도 갑산군 등지에서 재만조선인조국광복회를 결성하

[391] 위의 책, pp. 164~165.

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1936년 6월 보천보전투도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392]

만주지역 한인사회주의자들은 이중의 임무, 즉 중국의 독립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의 임무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들어가 활동한 것이었지 조선의 독립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부대로서 활동하였다거나 활동과정에 조직과 정책결정을 독립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역사왜곡이다.

다. 연변지역 조선인 vs. 김일성

김일성은 한국 공산주의자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자의 일인으로서 중국인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만주에 있어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체제 속에서 승진하였던 이방인인 것이다.[393] 김일성은 연변 조선족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김일성은 8살되던 1920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만주로 이주했다. 만주에서 중국인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만주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조선인 학교에 다녔지만 김일성 등 소수만이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김일성이 활동한 지역이 동북지방, 만주 또는 지금의 연변이다.

당시 연변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항일련군 제2로군 총지휘였던 주보중은 "조선족 농촌에서는 어른이건 젊은이건 녀성이건 남성이건 할 것 없이 모두

---

[392]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p. 165.
[393]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 p. 267.

항일에 떨쳐나섰다. 각종 반일단체나 무장자위대를 조직할 때면 그들은 선두적으로 나서서 다른 민족을 항일구국에로 추동하곤 하였다"고 조선족들의 혁명열정을 평가하였다.[394]

중국인과 조선인이 연합군대였던 동북항일연군은 전성기에는 모두 11개군까지 있었다. 이 가운데 6개군의 전신이 조선족 지사들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항일연군 제2군의 절대다수와 제1, 제3, 제7군의 절반이상이 조선족이었고, 기타 군에도 조선족이 적지 않았다.[395] 1931년 11월 당시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한 결의안에서는 당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중공에 가입함에 따라 당원수는 1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발전하였고, 당조직이 있는 지역도 12개에서 55개로 발전하였으며 85%의 당원은 조선족동지라고 지적하였다.[396]

동북항일연군 11개군 중에는 모두 조선인 전사들이 있었고 그 중, 1, 2, 3, 7군은 조선인전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1936년 초에서 1937년 근 2년동안 동북항일연군은 일본군과 위만군을 상태로 1,000차례 이상의 전투를 전개하였고 동북항일련군 전성기에는 45,000여 명까지 발전하였다. 한 통계에 따르면 동북항일연군은 근 14년 간의 항일전투 중 모두 183,700여 명의 적을 사살하였다.[397]

민정국통계에 의하면 연변지역 열사가 14,000명인데, 항일전쟁

---

[394] 1946년 12월 길림성민족사업회에서 한 주보중의 연설,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 5," 『승리』(길림: 민족출판사, 1992), p. 705.

[395] 정신철,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천과 전망』(심양: 료녕성출판사, 1999), p. 15.

[396] "만주성위를 확대조직하는 문제에 관한 결의안," 왕림, 『동북항일전쟁중에서 조선족의 작용 및 역사적 지위를 론함』; 정신철, 위의 책, p. 14에서 재인용.

[397] 김강일·허명철,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1), p. 64.

시기, 즉 918사변이후 공산당 활동자 열사는 3,500명이다. 3,500명 중에서 조선인이 3,026명, 조선여성 항일열사가 398명이다. 조선족의 전수에서 계산해보면 연변지구 조선족 열사가 20호에 1명이다. 전 길림성에서 열사의 42%를 차지한다.[398]

연변에서 항일운동을 한 사람은 김일성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 역사학계의 김일성에 대한 유아독존적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의 조선민족은 거족적인 반일투쟁을 진행하였다. 1920년에 홍범도, 김좌진 등이 인솔한 독립군은 선후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일본침략자들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는 조선민족의 반일투쟁 역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사건들이다.

만주에서는 1920년 경신참변이후 공산주의 계열로 민족운동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에서 1920년대말에 중공 만주성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운동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위주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동북에서 맑스주의를 전파하였고 1925년에 건립한 조선공산당은 1926년에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을 세우고 동만, 남만, 북만에 기층당조직을 설립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27년에 임시 만주성위원회를 세우고 이듬해에 정식으로 설립하였으나 당시 조직이 빈약하고 당원수가 많지 않았다. 1928년 12월 공산국제 제6차 대표회의에서 일국일당의 원칙을 제정한 후 수많은 조선공산당원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399]

---

[398] 최홍빈 교수 인터뷰, (2004년 4월).
[399] 정신철,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천과 전망』, p. 13~14.

조선족은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931년 9·18 사변이후 동북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조선인들은 일제의 더 가혹한 피해를 받아야 했다. 당시 동북 곳곳에서 조선족 반일무장조직이 나타나 일본 침략자에 저항하였다.

3. 소결

김일성의 신화화에 기여한 요인들을 몇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성주가 전설적이었던 김일성의 이름을 차용하였다. 김성주는 전설적인 신화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많은 항일혁명가 중의 한 사람이다.[400] 당시 항일혁명가들은 모두 일경이나 일군에 의하여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몇 개의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항일혁명가들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401] 김성주가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28년 연길에서 길·회철도부설에 대한 길림사람들의 대규모 저항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때이다. 그리고 김성주는 1931년 10월 중국공산당에 입당할 때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오늘날의 김일성이 다른 혁명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명예의 일부를 받아서 혜택을 입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402]

---

[400]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pp. 236~239.
[401] 권립 (연변대 역사학 교수) 증언, (2004년 3월).
[402]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p. 239.

둘째, 조선민족의 비극인 민생단사건은 김일성에게는 출세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500여명의 항일투쟁 지도자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처형되었지만 김일성은 거의 유일하게 생존하여 민생단 사건이 종결된 이후 항일연군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셋째, 김일성은 공산국제 7차회의에서 결정된 신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단이 2군 3사를 신설할 때 3사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조-중 접경지역인 장백현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신방침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에 처음으로 진공한 작전인 보천보전투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언론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경찰이 항일투사들을 일제 검거하기 위하여 보천보전투를 과장되게 홍보하여 김일성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다. 수많은 항일투사들이 당시 국내에 이름을 내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을 감안한다면 김일성은 백두산 지역에 근무지를 명령받은 점에서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넷째, 만주 벌판에서 활동하였던 다른 무장투쟁지도자들은 일군의 항공 공격으로 거의 다 사망하였는데 김일성은 백두산 밀림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백두산 밀림속에서 은거하여 있었기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1940년 10월 이후에는 소련으로 피신하였기때문에 생존하였다. 대부분의 항일연군 지도자들이 전사한데 반하여 김일성은 생존할 수 있었다. 죽지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무장투쟁지도자들의 공적을 자기가 대신 수혜받게 된 측면도 많다.

다섯째, 소련의 88여단이 동북항일연군의 집결지가 되었는데 88여단에 1로군의 김일성, 2로군의 최용건, 3로군의 김책이 집결하는 집결지가 되었다. 원래 김일성, 최용건, 김책은 연계가 없었

으나 5년동안의 소련 체류 중에 그들이 모두 만주파로 융합되었다. 88여단에서 처음만난 최용건, 김일성, 김책이 3형제처럼 뭉치는 관계로 발전하며 1956년 8월종파사건때 최용건이 김일성이 승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섯째, 김일성은 88연단에서 소련군부 지도자들과 인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45년 소련군의 북한정권 수립시 소련에 의하여 최고지도자로 옹립되었다. 소련은 항일무장투쟁을 북한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면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김일성을 영웅으로 부각하였다. 소련 군정의 도움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옹립된 이후, 이전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왜곡하였다.

일곱째,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 역사학계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김일성 혼자만의 것으로 왜곡하였다. 김일성만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잡고 자기의 업적을 우상화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의 위상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항일독립운동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을 반대하였고,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무정 같은 사람들은 중국의 팔로군에서 포병사령관을 한 사람으로서 김일성이 비길 수 없는 고위급 인사이다. 김일성의 권력이 항일무투의 역사를 김일성의 역사로 기술하였고, 역사의 업적을 독점하였다. 김일성은 1956년 연안파를 숙청한 뒤 연안파의 역사 자체를 말소시켜버리며 김일성의 만주파만이 유일한 항일무장투쟁 세력으로 부각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김일성의 가계만을 유일한 항일세력 항일의 전통으로 부각하였다.

제9장

결 론

이 연구는 북한 역사서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사실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 왜곡된 사실을 북한 국내정치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북한 측의 왜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우리 학계의 연구 결과, 그리고 중국측 문헌자료, 중국에 거주하는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들의 증언, 일본의 관헌자료, 소련측의 자료 등을 토대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실상을 복원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측의 왜곡된 사실을 비판하는 목적에서 계획되었지만, 우리 학계와 우리 사회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교정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주장과 역사기술은 왜곡이 너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북한 역사서의 어느 한 줄도 왜곡되지 않은 곳이 없다. 사실에 가깝게 기술된 부분도 미화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처럼 사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오히려 김일성은 통째로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북한 역사서들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왜곡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 공산당 주도의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대하여 북한은 김일성이 창설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군사간부들의 결정과 지휘를 김일성의 결정과 지휘로 바꿔치기 하였다. 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중국공산당 동북항일연군의 영도 밑에 전개된 것인데 김일성이 독립부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지휘한 것인양 왜곡하였다. 김일성이 주체로 한 것이 아닌데 자신이 주체로 했다고 왜

곡하였으며, 김일성이 결정한 것이 아닌데 김일성이 결정했다고 왜곡한 부분이 많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은 중국공산당의 계획과 명령에 의한 것인데 마치 김일성이 혼자서 주도하고 혼자서 결단한 것인양 왜곡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원으로서 철저히 중국공산당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 동북항일연군의 일개 부대원이었다. 말기에 가서는 제2군 6사 사장의 자리에 있었으나 동북항일연군의 지휘자는 중국공산당이며, 강령은 중공의 강령이었고, 김일성 부대의 일거수일투족은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의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의 개척자이며 영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너무 왜곡한 것이다.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조선인 김일성에게 동북지방의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볼 수 있는가?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은 주보중을 동북으로 보내어 항일무장투쟁을 개척하게 하였고 실제로 주보중이 1940년에 소련의 하바로프스크로 피난하기 전까지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한 사람이다. 양정우는 수만명 대오의 사령관이었다. 이들이 실제로 항일무장투쟁을 개척한 사람들이다. 김일성은 일개 병사에서 시작하여 정위, 단장, 사장이 되었다.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한 당역사연구소 소장 최진혁은 연변대 역사학자들이 역사왜곡의 실상을 비판하는데 대하여 대응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왜 모릅니까. 우리 민족은 주체사학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변명하였다고 한다.[403]

둘째, 실재하지 않은 역사를 실재한 것으로 조작하였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존재한 것인양 왜곡하였다. 김일성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여 지휘하여 조국을 해

[403] 남임오 (연변대교수) 인터뷰, (2004년 2월).

방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부대가 존재한 적이 없다. 중국공산당 동북항일연군의 명칭이 개칭되기 전에 동북인민혁명군으로 불렸는데 북한은 이 이름을 모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왜곡하였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조직이다. 동북항일연군의 전 역사를 왜곡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사칭하고 김일성이 지휘한 것으로 왜곡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1934년 3월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하고 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1934년 3월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문건이 중국에 있다. 중국 문건에 의하면 1933년 12월 3일에 만주성위의 지시문건에 의하여 연변인민 유격대를 동북 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로 개편하고 조건이 성립된 다음에 제2독립사를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이 문건에 따라 중공 동만 특위에서 1934년 3월에 삼도만 능지영에서 회의를 열고 제1독립사를 설치하였고 사장에 주진, 정위에 왕덕태를 임명하였고, 연길현 유격대를 제1탄(団), 왕청현 산림대를 제2탄, 화룡유격대를 제3탄으로 조직하였다. 김일성의 소사 별동대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404]

또한 북한 역사서는 김일성이 14살 때인 1926년 10월에 ㅌ·ㄷ 동맹을 건설하고 조선혁명에서 완전한 강령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18세인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김일성이 역사적 결정인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창시했다는 주장이다. 중국 문헌에 없으며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들이다.

셋째, 북한 역사서는 실재한 역사를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은폐

[404] 남임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관련 연구 전문가) 증언.

하였다.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1940년 11월에 일군의 반격에 밀려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역으로 피신하여 소련 극동군에 배속되어 있다가 1945년에 소련에 의하여 북한의 지도자로 선발되어 입국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의 역사에서는 숨겨져 있다. 또한 김일성이 1945년 9월 19일에 입국하기 직전 모스크바에 호출되어 스탈린을 면담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옹립되어 귀국하였는데 북한 역사서는 이를 은폐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신의 활동이 1940년까지 중국공산당과 연결되는 것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1년이후 소련 홍군 88여단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도 부인하였다.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체사상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사실을 미화하거나 과장하였다. 보천보 전투에 대한 과장된 평가나,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 등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왜곡들이다.

북한의 역사서들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보편적 역사를 김일성 개인의 유일한 역사로 왜곡하였다. 일제시기 우리 민족은 중국의 동북지방(만주), 중국 화북지방(관내), 미주, 국내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김일성이 태어나기 전인 1905년대부터 김일성이 소련으로 피난한 이후 해방직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며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북한 역사서는 당시 우리민족의 보편적 역사를 김일성만의 유일성 역사로 왜곡한 것이다. 김일성이 활동한 만주지역에서도 동북항일연군의 숫자는 4만명에 달하였는데, 대부분의 대원들은 산화하여 1940년경에는 1천여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 중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양정우, 위증민, 왕덕태, 조상지 등 최고위급 지휘관과 지도자들이 대부분 전사하였는데 반하여 김일성은 생존하였다. 김일성은 500여명의 조선족 항일 전사들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처형되었는데 반하여 김일성은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사람과 잘 어울렸으며, 민생단 사건 재판에 통역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2군 3사가 신설되었을 때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항일문장투쟁 전사들은 만주 벌판에서 싸우다 일제 토벌대의 전투기 기총소사에 희생된데 반하여 김일성은 백두산 밀림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공산국제의 결정에 따라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감안하여 1개 부대를 조선국경지대인 백두산 지역에 배치하였는데 김일성이 그 부대장으로 발탁되었고, 그 취지에 따라 첫 국내진공작전이었던 보천보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당시의 국내언론에 보도되어 이름이 국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은 1940년 10월에 소련에 피신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소련군 간부들과의 친분을 맺게되어 해방후 소련군정하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로 옹립될 수 있었다. 김일성은 또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이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 과잉통치 이데올로기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은 김일성에게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행운을 주었지만, 북한주민과 우리 민족 전체에게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고 그 명분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켰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통치 이데올로기화가 낳은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은 항일무장투쟁이 6·25전쟁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된 점이다. 김일성은 자기 권력의 정당성 고양을 위하여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체제경쟁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일컫는데 그 의미는 남한을 친일세력에서 해방한다는 명분이었다. 북한주민을 전쟁으로 내몰게 된 이념적 토대였다. 일본 잔재세력을 척결하고 남한주민을 일본에서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주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북한 주민과 중국 및 소련을 설득하여 6·25전쟁을 일으켰다. 민족상잔의 전쟁 도발의 명분으로 항일투쟁 경력이 이용된 것이다.

둘째,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동원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국가이데올로기는 일본과의 적대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나머지 식민지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일본과의 적대정책을 지속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적대정책 때문에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남한이 일본과 수교하여 일본으로부터 기계,

원자재를 도입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국제분업 구도로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한 것에 비하면 북한은 남한의 고도성장의 혜택을 포기한 셈이다. 북한은 아직도 항일 및 반미주의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고립을 감수하고 있다.

셋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는 과잉으로 통치 이데올로기화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은 민족주의, 반외세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으로 이론화되었다. 북한에서 항일무투 없는 주체사상도 없고, 주체사상이 없는 항일무투도 없다. 북한에서 역사와 사상이 상호보완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은 과잉 통치 이데올로기로 발전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이념이 너무 절대화하여 수단으로서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정책방향을 제약하는 절대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진전되었다. 항일무투의 역사를 왜곡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신화화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신화가 탈로날 것을 우려하여 대내외적으로 정보 통제를 강화하였고 이것이 체제와 사회의 경직화, 폐쇄화를 야기하였다.

결국,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은 김일성·김정일 권력은 살렸지만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항일무장투쟁의 통치 이데올로기화 때문에 북한은 고립된 대외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고립된 대외관계 때문에 경제가 고사당하고 있다.

항일무투를 왜곡되게 신화화하였기 때문에 왜곡된 신화가 깨질 것을 우려하여 정보 통제, 대외적 인적교류 통제를 지속하였고, 항일무투의 논리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일본과의 수교를 포기하고 대외적 경제고립을 감수하였다. 정권을 정당화하는 국가이데올로기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항일무장투쟁과 선군정치

북한의 공식간행물이 선군정치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선군정치는 명백히 항일무장투쟁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405] 이러한 언명은 선군정치에 대한 역사적 명분 찾기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출신성분, 정치풍토, 선군정치의 구체적 내용에서 볼 때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항일무투는 김일성 사후 선군정치로 부활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선군정치에 다시 재활용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과 선군정치의 관계를 몇가지로 나누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일무장투쟁은 기본적으로 반일 투쟁이며, 반외세, 반제국주의 투쟁이며, 그래서 군사력을 중시하고 군대를 중시한다. 항일무장투쟁의 결과 형성된 북한체제는 유격대국가로 불려질 만큼 군사주의적 성향이 강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군정치도 반미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반외세, 반제국주의적이다. 핵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대결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구호를 통하여 반미주의를 선동하고, 선군정치의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일련의 군사적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대를 다른 사회집단에 우선시 한다는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항일무장투쟁이 김일성의 역사라면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역사이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평생 동안 권력의 정당성으로 활용하였듯이 김정일은 선군정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

[405]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있으며 이로써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셋째, 항일무장투쟁이 고난의 행군을 역사적 전통으로 가지고 있듯이 선군정치도 고난의 행군을 필수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외세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을 수 없듯이 선군정치를 하는 과정에 경제난을 고난의 행군을 필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거의 항일무장투쟁은 고난의 행군의 역사였듯이, 선군정치는 고난의 행군을 되풀이하는 정치이다. 과거의 항일무장투쟁이 외래의 침략에 맞서 불가피하게 고난의 행군을 한 역사라면, 현재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선군정치는 미래지향적 정치가 아니라 과거지향적 통치 전략이다. 북한은 과거청산이 필요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새롭게 적응해야 할 나라이다.

참 고 문 헌

1. 국문 및 영문

강기주.『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사 연구』. 북경: 민족출판사, 1998.

강만길.『20세기 우리 역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김광운.『북한정치사 연구 Ⅰ: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김강일·허명철.『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2001.

김준엽·김창순.『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5권』. 서울: 청계연구소, 1986.

김병로.『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김성보.『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김성호.『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1999.

김우종 편.『동북지역조선인항일력사사료집』(10권). 흑룡강성: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3.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명지출판사, 2000.

서대숙. 현대사연구회 역.『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서울: 화다신서, 1985.

서재진.『주체사상의 이반』. 서울: 박영사, 2006.

_____.『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3.

鐸木昌之.“잊혀진 공산주의자들-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로.” 이정식·한홍구.『항전별곡』. 서울: 돌베개, 1986.

신주백.『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신주백.『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서울: 선인, 2005.

안드레이 란코프.『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5.

楊昭全·李輔溫.『조선의용군 항일전사』. 서울: 도서출판 고구려, 1995.

와다 하루끼, 이종석 역.『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역.『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1998.
염인호.『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이기봉 편저.『증언: 전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 서울: 도서출판 원일정보, 1989.
이현희. "대한민족 임시정부의 광복운동." 한국사연구회 편.『한국사연구 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7.
임은.『북한 김일성 왕조 비사』. 서울: 한국양서, 1982.
趙擎韓.『백강 회고록』. 서울: 한국종교협의회, 1979.
정신철.『중국조선족 사회의 변천과 전망』. 료녕성: 료녕성출판사, 1999.
중앙일보특별취재반,『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3.
최성춘.『연변인민항일투쟁사』. 연변: 민족출판사, 1999.
崔燎原.『王德泰與抗聯2軍』. 길림: 吉林教育出版社, 1994.
한시준.『한국광복군 연구』. 서울: 일조각, 1993.
황민호.『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서울: 신서원, 2005.
황용국·신일호·최홍빈·황유복·문숙동.『조선족혁명투쟁사』. 심양: 료녕성민족출판사, 1988.
桂基華. "3부·국민부·조선혁명군의 독립운동 회고."『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김광재. "한국광복군의 한미합작훈련에 대한 임정 내부 및 각국의 반응."『사학연구』. 제73호, 2004.
김성호. "민생단사건과 만주 조선인 빨치산."『역사비평』. 여름호, 2000.
金若山. "<告朝鮮國內革命同志書>, <조선민족전선> 제2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제2집.
신주백.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역사와 현실』.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1994.
진가외.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동북의 한국교민."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관리처 편,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서울: 시대의 창, 2005.
Robert, Scalapino·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2. 북한 문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1992.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항일무장투쟁사』~제10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2005.

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통사』. 평양: 과학원역사연구소, 1958.

김인옥.『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김일성.『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9.

김한길.『현대조선역사』. 평양: 일송정, 198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조선근대혁명운동사』. 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6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현대조선역사』. 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8, 1983.

역사편찬위원회.『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역사편찬위원회, 1949.

이나영.『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조선역사연구소, 1958.

임춘추.『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며』. 1960.

조선로동당,『김일성동지 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혁명전통연구자료. "혁명의 길에서."『항일유격대원 회상기 1』. 1960.

강석숭. "주체사상이 기치밑에 승리한 우리나라 사회주의혁명."『근로자』~1973년 4호.

김일성.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9년 7월 29일).『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재봉.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근로자』~1973년 4호.

김주영.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인민의 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근로자』~1973년 4호.

사회과학출판사, "영도체계."『주체사상총서 9』. 1973.

서관히. "민주주의혁명 수행에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근로자』~1973년 4호.

오진우.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쟁.”『근로자』1973년 4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절취선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93340
9 788984 793798
ISBN 89-8479-379-5